

## V.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1. 불교와 기타 신앙
2. 유학과 한문학
3. 예 술
4. 발해사 인식의 변천

## V.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 불교와 기타 신앙

발해의 종교는 불교가 중심이었다.<sup>1)</sup> 713년 12월에 당나라에 갔던 발해 왕자가 절에서 예배하기를 청한 사실에서<sup>2)</sup> 당시 발해 왕실이 이미 불교에 젖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발해인들이 과거 高句麗나 營州에 살던 시절에 이미 불교를 접촉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松漠紀聞》에서 발해 초기에는 浮圖氏가 적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초창기에는 유포 범위가 그리 넓지 못하였을 것이다.<sup>3)</sup>

발해 불교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그 원류를 靺鞨族에서 찾고 있지만,<sup>4)</sup> 현재로서는 그럴 정도로 말갈족 사이에 불교가 확산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유적도 없다.<sup>5)</sup> 따라서 그 뿌리는 고구려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발해의 불상이나 瓦當 등이 고구려 것과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이 일차적으로 이를 증명해 준다.

발해 불교는 과거 고구려 영역이었던 中京·東京지역과 그렇지 않았던 舊

1) 발해 불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글이 있다.

宋基豪, 〈渤海佛教의 展開過程과 몇 가지 特徵〉(《伽山李智冠스님華甲紀念論叢 韓國佛教文化思想史》上, 1992) 참조.

2) 《冊府元龜》권 971, 外臣部, 朝貢 4, 開元 원년 12월.

3) 洪皓, 《松漠紀聞》권 上, 渤海國.

4) 何明, 〈淺談唐代渤海的佛教〉(《博物館研究》1983-3), 42쪽.

방학봉, 〈구국, 중경, 동경을 수도로 한 시기의 발해의 불교에 대한 연구〉(《발해사연구》, 정음사, 1989), 140쪽.

5) 말갈인의 불교 관계 기사는 설화적인 내용 하나만이 《續高僧傳》권 25에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河上洋, 〈東北アジア地域の佛教—渤海を中心として—〉(《大谷大學史學論究》1, 1987), 63~64쪽.

國(첫 도읍지)·上京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만큼 그 양상이 달랐다. 뒤에 다시 다루지만 이러한 차이는 두 지역에서 유행하는 불상양식과 이에 따른 신앙형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구려 영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국과 상경지역에는 발해가 건국되면서 불교가 새로 유입되었다. 반면에 중경이나 동경지역은 삼국통일전쟁에서 별로 피해를 보지 않았던 곳이었으므로 발해에 편입된 뒤에도 단절없이 고구려 이래의 사회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종교활동도 역시 그러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사례로 함경남도 新浦市の 梧梅里 절골유적을 들 수 있다. 이 곳에서 발견된 건물자리에서는 고구려 문화층과 발해 문화층이 함께 나타나는데, 발해 문화층에서 고구려 金銅板이 발견되었다고 한다.<sup>6)</sup> 이 사실은 고구려 때에 만들어진 것이 발해 시기까지 그대로 전승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二佛並坐像이 동경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것도 고구려 후기 이래로 그 전통이 고수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sup>7)</sup>

발해 불교가 발전기를 맞이한 것은 文王 때이다. 이는 우선 불교식으로 지은 그의 尊號인 “大興寶曆孝感金輪聖法大王”에서 엿볼 수 있다. 여기서 ‘대흥’과 ‘보력’은 당시의 연호이고, ‘효감’은 효행과 관련된 유교적 용어이며, ‘금륜’과 ‘성법’은 불교적 용어이다. 그런데 금륜과 성법은 불교의 轉輪聖王이념에서 유래된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당나라 則天武后의 존호를 모방한 것이다. 따라서 그가 측천무후를 본받아 불교를 진흥시키면서 무력이 아닌 佛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8)</sup>

다음으로 貞孝公主무덤에서도 불교적 요소를 엿볼 수 있다. 지하에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벽돌로 탑을 쌓았는데, 이것은 무덤 위에 건물을 짓던 전

6) 박진옥, <최근년간 우리 나라 동해안일대에서 발굴된 발해유적들과 그 성격에 대하여> (《연변대학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논문집》, 1989), 292쪽.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4 고구려편(외국문종합출판사, 1990), 281쪽.

7) 三上次男, <半拉城出土の二佛並座像とその歴史的意義—高句麗と渤海を結ぶもの—> (《朝鮮學報》 49, 1968; 《高句麗と渤海》, 吉川弘文館, 1990, 154~155쪽).

8) 전륜성왕의 이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판카즈, <新羅 ‘中古’期の 轉輪聖王 理念—印度 Asoka王과 新羅 眞興王의 政治 理念의 비교—> (서울大 國史學科 碩士學位論文, 1994).

통이 불교와 습합되면서 탑 양식으로 변모된 것이다. 그리고 무덤 바로 앞에서 건물자리가 발견되고, 산 아래에서 절터가 발견된 것도 주목된다. 그 위치로 보아 절터는 공주의 무덤을 지키던 陵寺로 짐작되며, 건물터는 승려들이 기거하면서 무덤을 지키던 곳으로 추정된다.

또한 문왕 때에는 귀족층에까지 불교가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762년에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이듬해 귀국한 王新福 일행이 東大寺에서 禮佛하였음을 보여주는 일본 正倉院 소장의 古文書를 통하여 알 수 있다.<sup>9)</sup>

문왕 때의 불교 진흥정책에 힘입어 9세기에 들어오면 불교도 융성기를 맞이한다. 현재로서는 이 당시의 모습을 전하는 기록이 없지만 승려들의 활동이나 유적과 유물을 통하여 그 편린을 엿볼 수 있다.

발해의 승려로는 釋仁貞·釋貞素·薩多羅·載雄이 알려져 있다. 이들은 모두 9세기 이후에 활동한 인물들로, 발해의 승려들이 왕성하게 활동한 것이 이 무렵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들의 사상을 이해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고, 다만 발해의 대외관계와 관련하여 활동한 행적이 보일 따름이다.

석인정(?~815)은 僖王 때에 활동하였고, 석정소(774~828)는 희왕부터 宣王 때까지 활동한 인물로서, 모두 일본과의 교류에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석정소는 당나라에서 일본 유학승 靈仙(?~828)과 교유하였고, 그와 일본조정 사이를 두 번이나 왕복하면서 심부름을 하다가 결국은 중국에서 귀국하는 길에 풍랑을 만나 사망하였다. 그가 영선이 독살된 것을 알고 애도하여 지은 시가 한 편 전해지고 있다.<sup>10)</sup> 그리고 살다라는 大虔晃 초기에 당나라 장안에 가서 머물렀는데, 새와 짐승의 말에 능통하였다고 전해지는 설화적 인물이다.<sup>11)</sup> 한편 재웅은 발해가 멸망한 뒤인 927년 3월에 60여 명과 함께 고려로 망명한 인물이다. 이 밖에 대원화상이 선왕 9년(826)에 함경북도 明川郡 七寶山에 있는 開心寺를 창건한 기록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9) 東京帝國大學, 《大日本古文書》16(東京帝國大學 文學部 史料編纂掛, 1927), 324~325쪽.

石井正敏, 〈渤海の日唐間における中繼的役割について〉(《東方學》51, 1976), 주 24).

10)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권 3, 開成 5년 7월 3일.

11) 金毓黻, 《渤海國志長編》권 11, 土庶列傳.

데,<sup>12)</sup>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발해 불교의 융성은 왕실뿐만 아니라 지배층 전반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일본과의 문화적 교류에도 한 몫을 하였다. 희왕 때인 814년 가을에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王孝廉(?~815)은 일본의 弘法大師 空海(774~835)와 詩文을 주고 받으면서 교류하였고, 접대를 맡았던 領客使 安倍吉人は 발해 사신이 예불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감격해서 시를 짓기도 하였다.<sup>13)</sup> 한편 발해 사신이 일본에 불경을 전해준 사실도 있다. 일본 石山寺에 소장되어 있는 《佛頂尊勝陀羅尼經》의 跋文에 의하면 이 경전은 861년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李居正이 전해준 것이라고 한다.<sup>14)</sup>

불교의 융성에 따라 많은 사원과 불상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발해 절터는 모두 40여 곳이다. 구국지역에서 1곳, 상경 일대에서 10여 곳, 중경 일대에서 13곳, 동경 일대에서 9곳이 확인되었고, 大城子 성안에서도 절터로 보이는 곳이 조사되었다. 또 러시아 연해주에서 5곳, 함경도 일대에서도 2곳의 절터가 확인되었다.

탐으로는 정효공주 무덤탑・馬滴達塔・靈光塔이 알려져 있다. 이들은 다 벽돌로 쌓은 것으로 당의 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영광탑만이 거의 온전히 남아 있다. 그런데 이들은 舍利塔이 아니라 무덤탑의 성격을 띠고 있음이 특징이다. 탑 아래에 무덤칸을 만들고 그 곳에 시신을 안치하였다. 따라서 이 탑은 승려가 아니라 왕실 내지 귀족을 위해 축조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무덤탑은 발해 불교의 한 특색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영광탑의 1층 4면 각각의 王・立・國・土라는 벽돌 문양은 王立國土나 國立王土라고 읽을 수 있으므로, 발해 불교가 왕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고 추측하게 한다.<sup>15)</sup>

그러나 몇 개의 유적에서 사리탑이 있었던 증거도 발견되었다. 八連城 제1

12) 리준걸, <함경남북도 일대의 발해 유적 유물에 대한 조사 보고> (《조선고고연구》 1986-1), 34쪽.

13) 《經國集》 권 10, 聞渤海客禮佛感而賦之.

14) 田島公, <海外との交渉> (《古文書の語る日本史》 2-平安, 筑摩書房, 1991), 256~258쪽.

15) 邵春華, <長白靈光塔> (《博物館研究》 1983-1).

吉林省文物志編委會, 《長白朝鮮族自治縣文物志》(1988), 72쪽.

절터에서 사리 장치의 일부로 보이는 心礎石이 발견된 바 있다.<sup>16)</sup> 大城子古城에서는 1972년 金銅製 사리함<sup>17)</sup>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의 작은 銀盒에 6顆의 사리가 들어 있었다.<sup>17)</sup> 또 상경성 土台子에서도 1975년에 7겹으로 싸여 있는 사리함이 발견되었는데,<sup>18)</sup> 가운데에 있는 漆匣은 가는 銀絲로 꽃무늬가 상감되어 있고 은함에는 구름무늬와 四天王像이 새겨져 있어서 불교 예술의 수준을 가늠하게 해준다. 마지막 함에는 유리병 속에 사리 5과가 들어 있었다. 이 사리함은 발해 中·晩期の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밖에 黑龍江省 渤海상경 유적에는 용암으로 만든 높이 6m의 거대한 石燈이 지금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유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상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1천 개 가까이 발견되었는데, 재료에 따라 石佛·鐵佛·金銅佛·塼佛(泥佛, 陶佛)·塑造佛·漆佛 등으로 나뉜다. 그리고 814년에 발해 사신 高禮進 일행이 당나라에 금불상과 은불상을 각기 하나씩 바친 기록도 보인다.<sup>19)</sup>

불상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불이다. 전불은 틀째기를 하여 구워 만든 것으로서 상경과 동경에서 대량으로 출토되었고, 연해주<sup>20)</sup>의 아브리코스(Abrikos)절터에서도 발견되었다. 불상 아래에는 못이 박혀 있던 원형 구멍이 있어서 벽에 꽂았던 것으로 보인다. 연해주에서 출토되는 금동불상들에는 아래에 구멍 대신에 막대가 달려 있어 역시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형태의 전불이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발견된 예가 있지만, 발해 것이 둥글고 입체적인 데 비해서 중국이나 일본 것들은 모두 납작한 판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발해 전불은 고구려 元五里절터에서 출토된 것과 비슷한 것이어서 발해의 전불이 고구려 전통을 계승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20)</sup>

석불로서는 興隆寺에 안치된 것이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이지만, 청나라 때에 개조되면서 원래의 모습을 상실하고 말았다.<sup>21)</sup> 현재의 높이는 대좌를

16) 齋藤甚兵衛, 《半拉城—渤海の遺蹟調査—》(琿春縣公署, 1942), 21쪽.

17) 張太湘, 〈大城子古城調査記〉(《文物資料叢刊》4, 1981), 225쪽.

18) 丹化沙, 〈黑龍江省寧安縣出土的舍利函〉(《文物資料叢刊》2, 1978).

19) 《冊府元龜》권 972, 外臣部, 朝貢 5, 元和 9년 정월.

20) 原田淑人, 〈渤海の佛像〉(《文化》2-11, 1935; 《東亞古文化研究》, 1940, 370쪽).

포함하여 3.3m에 이른다. 팔련성의 절터에서도 여러 구의 석불이 발견되었다. 또 일본의 大原美術館에는 碑像形 五尊像이 소장되어 있다. 여기에는 咸和 4년(834)에 趙文休의 어머니 李씨가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大勢至菩薩 등을 조성하였다는 연기가 적혀 있다.<sup>22)</sup>

불상의 양식면에서 볼 때 상경지역은 觀音像이 주류를 이루고, 서경과 동경지역은 석가모니불과 다보불을 병좌시킨 이불병좌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전자는 관음신앙과 연관된 것이고, 후자는 法華信仰과 결부된 것이다. 이러한 신앙형태의 지역적 차이는 과거에 고구려 영역이었던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라는 역사적 배경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불상에서는 세부적인 면에서 발해 고유의 양식이 눈에 띄인다. 중요한 것으로서 塼佛思惟觀音菩薩立像과 이불병좌상이 있다. 관음보살입상 중에는 사유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유상의 경우 생각에 잠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앉아 있는 반가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데에 비해서 발해에서는 서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특색을 이루고 있다.<sup>23)</sup> 또한 이불병좌상은 왼쪽 부처의 오른손을 오른쪽 부처의 왼손 위에 올려놓고 있으며, 두 불상이 서로 팔을 맞대어 나란히 결가부좌하고 있다. 또한 두 개의 頭光이 서로 겹쳐져 하나의 커다란 舉身光의 광배 속에 함께 들어가 있으며, 양쪽에 협시불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등도 독특한 것이다.<sup>24)</sup> 이 밖에 거의 모든 불상들이 通肩衣를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발해의 불상들은 대부분이 北魏에서 隋나라에 이르는 시기의 양식을 따르고 있고, 이 중에서도 북위 양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sup>25)</sup> 발해와 같은 시대의 당나라 양식이 거의 눈에 띄이지 않는 것은 동일한 시기에 통일신라가 당나

21) 丹化沙, 〈關於興隆寺與渤海大石佛〉(《北方論叢》1980-6).

22) 宋基豪·全虎兌, 〈咸和四年銘 발해 碑像 검토〉(《西巖趙恒來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亞細亞文化社, 1992).

23) 車玉信, 〈渤海 佛像에 관한 연구〉(梨花女大 美術史學科 碩士學位論文, 1990), 55~56쪽.

24) 駒井和愛, 〈渤海國の二佛並座石像〉(《學海》3-4, 1946 ; 《中國都城·渤海研究》, 雄山閣, 1977), 173쪽.

車玉信, 위의 글, 69쪽.

25) 車玉信, 위의 글, 78쪽.

라 양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발해의 불상 양식이 같은 시대에 주변국가로부터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전 시대로부터 이어받은 것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말갈이나 고구려로부터 계승된 것이 되는 셈인데,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구려에 그 연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왜 고집스럽게 古式을 고수하였는지는 수수께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926년에 발해가 멸망하자 많은 유민들이 고려로 망명해 왔다. 이러한 유민 가운데에는 載雄과 같은 승려도 포함되어 있는데, 망명 이후의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한편 발해 불교는 요동지방에서 명맥이 유지되었다. 928년에 거란이 발해유민들을 요동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상경성을 불태웠을 때에 그 곳에 있던 절들은 모두 불에 타버렸다. 이에 따라 遼陽을 중심으로 한 요동지방에 옮겨진 유민들 사이에 불교의 맥이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거란이 통치하던 시기의 불교 양상은 전해지는 것이 없고, 2백여 년이 지난 금나라 시기의 것만이 전해지고 있다.<sup>26)</sup>

우선 금나라에서 활동한 趙崇德에 관한 기록이 있다.<sup>27)</sup> 그는 금나라에서 벼슬을 하였던 발해유민으로서, 벼슬을 그만 둔 뒤 스스로 승려가 되어 큰 절을 짓고 燕京 竹林寺에 있던 慧日을 청하여 住持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 시기는 대체로 12세기 전반에 해당된다.

그리고 금나라 蒲路虎(宗雋, ?~1139)에게 죽임을 당한 발해 승려에 관한 기록이 있다.<sup>28)</sup> 그는 원래 술이 과하여 東京留守로 임지에 부임하기 전에 황제로부터 금주령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런데 도중에서 술을 권하는 발해 승려를 만나자 그를 죽였고, 다시 길에서 승려 5명이 輦을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이들마저 죽였다고 한다. 뒤의 승려들도 발해인들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張浩(?~1162)는 요양 출신의 발해인으로 원래의 성은 고구려계의 高씨였다고 한다.<sup>29)</sup> 그는 금나라 태조로부터 세종까지 5대에 걸쳐 벼슬을 하였

26) 금나라 때의 불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外山軍治, 〈金代遼陽の渤海人と佛教〉(《塚本博士頌壽記念佛教史學論集》, 1961).

27) 洪皓, 《松漠紀聞》 권 上, 渤海國.

28) 洪皓, 《松漠紀聞》 권 上, 蒲路虎.

29) 《金史》 권 83, 列傳 21, 張浩.



고, 특히 海陵王 이후로는 재상의 지위에 올라 요양지방의 발해유민으로서는 가장 현달하였던 인물로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런데 그의 집안도 불교와 관계가 깊었다. 자신이 磁州의 승려 法寶를 만날 때마다 大臣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아랫자리에 앉았다고 하여 1155년 3월에 해릉왕으로부터 杖 20대의 형벌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그의 형과 여동생도 승려가 되었다고 한다.<sup>30)</sup>

한편 금나라 초기에는 황실의 后妃에 요양 출신의 발해인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 중에는 睿宗妃로 世宗의 생모였던 貞懿皇后 李씨(?~1161)와 顯宗妃인 昭聖皇后 劉씨(1139~1163)처럼 불교에 심취하였던 인물도 있었다. 이씨는 예종이 사망하자 여진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比丘尼가 되어 고향인 요양에 돌아와 淸安禪寺를 세우고 따로 尼院인 垂慶寺를 세워 그 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유씨는 어려서 불교 서적을 아주 좋아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금나라 황실에서 불교를 받아들일 때에 이들의 역할이 컸다는 점이다. 금나라 황실에 불교가 받아들여진 것은 熙宗 때인데, 그는 직접 燕京에 가서 불교가 성행하던 모습을 보고 명승 海慧 등을 알게 되어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금나라 황실 안에 있었던 이들 후비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sup>31)</sup> 따라서 금나라의 불교사에서 발해유민들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해 불교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제 발해 불교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볼 차례이다.

첫째, 발해 불교의 원류와 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우선 발해 불교의 뿌리는 말갈이나 당나라에 있지 않고 고구려에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현재까지 발견된 불상들이 모두 북위에서 수나라에 이르는 고식을 취하고 있다는 데에서 증명이 된다. 그러므로 발해 불교는 같은 시대에 주변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이 아니라 고구려로부터 계승된 것이 그 모태를 이루었고, 그것이 끝까지 고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塼佛들이 고구

外山軍治, 〈金代遼陽의張氏와熊岳의王氏について〉(《橋本博士古希記念東洋學論叢》, 1960).

30) 羅福頤, 〈光祿大夫張行願墓誌〉(《滿洲金石志》 권 3; 《石刻史料新編》 1집 23책,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31) 外山軍治, 앞의 글(1961), 499~500쪽.

려식이고, 사원 건축에 이용된 와당이 고구려식 蓮花文이라는 사실도 이를 증명해 준다.

물론 고구려 영역이었다가 커다란 변동을 겪지 않고 발해 영역으로 편입되었던 남경과 동경지역에서는 고구려 불교가 발해로 거의 그대로 이어졌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동경을 중심으로 퍼져 있었던 법화신앙이라든가, 新浦市 梧梅里 절골유적에서 발견된 금동판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발해 불교에는 고구려적 요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나라로부터 새로 유입된 요소, 그리고 자신의 독창적인 요소가 점차 가미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탑은 분명히 당나라 벽돌탑 양식을 채용하고 있으나, 탑의 운용면에서 승려의 사리탑이 아닌 권력자의 무덤탑으로 이용되기도 한 점은 두드러진 예이다. 그리고 불상 양식면에서 사유상이 서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 있고, 이불병좌상의 세부 양식면에서 중국 것과 다른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불상들이 통일신라의 경우와 달리 당나라 양식이 아닌 그 이전의 고식을 고수하였다는 점도 발해 불교의 특징이라 하겠다.

둘째, 신앙의 형태에 관한 문제이다. 비록 어떤 종파가 발해에 전해져 성행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신앙면에서 볼 때 관음신앙, 법화신앙, 아미타불신앙 그리고 密敎的 요소들이 발견된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관음신앙과 법화신앙이 발해에서 성행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면서도 지역적으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점도 주목된다. 상경지역에는 관음신앙이 중심을 이루었고, 동경지역에는 법화신앙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것은 시기적인 차이의 결과라기보다는 불교 전통의 지역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셋째, 지배층 특히 왕권과의 관련성 문제이다. 발해 불교 역시 지배층 중심으로 융성하였으며, 특히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불교 유적이 도성이었던 상경·중경·동경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점은 문왕 때의 전륜성왕 표방이나, 정효공주의 무덤탑 양식과 이 무덤에 능사를 조성한 사실 등에서 알 수 있으며, 그 밖에 영광탑에 도안된 문구도 그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발해에는 불교 이외에도 景敎(네스토리우스교)와 샤머니즘의 흔적도

보인다. 팔련성 제2절터에서 발견된 三尊佛에는 십자가같은 것을 매단 목걸이가 보이고,<sup>32)</sup> 러시아 연해주와 아브리코스절터에서도 경교 십자가가 새겨진 점토판이 발견되었다.<sup>33)</sup> 이들은 발해에 경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지만, 아직은 확증하기 어렵다.

상경성이나 우수리스크에서 발견된 소형의 騎馬人物像들은 샤머니즘의 신을 표현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sup>34)</sup> 아마 일반인들의 신앙은 이러한 샤머니즘이 중심을 이루었을 것이다.

〈宋基豪〉

## 2. 유학과 한문학

발해는 당나라와 가장 활발하게 교섭하였다. 중국과의 빈번한 교류는 冊封을 받고 國喪을 알리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나, 교역과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에 못지 않게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선진 문화의 수입이었다. 중국 문화를 수입하던 창구로는 장기간 현지에 머물렀던 유학생·宿衛 王族 등을 주로 이용하였을 것이지만, 일시적으로 파견되었던 사신들도 여기에 한몫을 하였다.

문헌에는 발해에서 당에 학생을 파견한 기록이 세 군데 보인다. 첫째는 714년에 발해 학생 6인과 신라 학생 7인이 당의 國子監에 입학하였다는 기록이다.<sup>1)</sup> 이로부터 100여 년을 뛰어 넘어 830년대에 학생을 파견한 기록이 다시 보인다.<sup>2)</sup> 당나라에 갔던 발해 사신 高寶英(高賞英)이 833년 정월

32) 齋藤甚兵衛, 앞의 책, 도판 7-1.

33) E.V. Shavkunov 著・宋基豪 譯, 〈沿海州의 발해 문화 유적〉(《白山學報》 30・31, 1985), 457쪽.

34) E.V. Shavkunov・L.E. Semenichenko 著・宋基豪 譯, 〈소련 연해주의 발해 문화 연구〉(《韓國史論》 23, 서울대, 1990), 566~567쪽.

1) 《玉海》 권 153, 朝貢 外夷來朝 唐渤海遣子入侍.

2) 《冊府元龜》 권 999, 外臣部, 請求.

에 학생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당나라 조정에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리하여 이미 파견되어 있던 李居正·朱承朝·高壽海 3인을 새로 보낸 解楚卿·趙孝明·劉寶俊 3인으로 교체하였다. 셋째는 837년 3월의 기사이다.<sup>3)</sup> 발해 왕자 大俊明이 賀正使로 당나라에 갔을 때에 16명의 학생이 동행하였는데, 6명의 학생만 입학할 허락받고 10명은 되돌려 보내졌다고 한다.

당나라 賓貢科에 급제한 발해인들도 역시 국자감에 입학하였던 학생들임에 틀림없다. 당나라는 9세기에 들어와 외국에서 유학온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빈공과란 과거를 개설하였다. 여기에 합격한 발해인은 10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는데,<sup>4)</sup> 이름이 알려진 것은 세 사람이다. 872년에 급제한 烏昭度(烏昭度),<sup>5)</sup> 892년에 급제한 高元固,<sup>6)</sup> 906년에 급제한 오소도의 아들 烏光贊<sup>7)</sup>이 그들이다.

이상의 사료로 보아 발해는 초기부터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파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생의 파견은 발해 문화를 꽃 피우는 밑거름이 되었는데, 이 사실은 다음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처음에 발해 왕이 자주 학생들을 파견하여 京師의 太學에서 고금의 제도를 익히게 하니 이 때에 이르러 마침내 海東盛國이 되었다(《新唐書》 권 219, 列傳 144, 渤海).

즉 발해가 9세기에 해동성국이라는 영예의 칭호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었다.

학생 외에도 장기간 당나라에 머물면서 선진 문물을 습득하였던 사례로서 宿衛로 보내진 왕족들도 고려해야 한다. 발해에서 王子나 王弟를 숙위로 파

《舊唐書》 권 199 下, 列傳 149 下, 北狄 渤海靺鞨.

3) 《唐會要》 권 36, 附學讀書.

4) 宋基豪, 〈唐 賓貢科에 급제한 渤海人〉(《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一潮閣, 1994), 443쪽.

5) 《孤雲集》 권 1, 新羅王與唐江西高大夫湘狀 및 與禮部裴尚書瓚狀.  
《高麗史》 권 92, 列傳 5, 崔彥謨.

6) 《全唐詩》 11函 1冊, 徐夔.

7) 《高麗史》 권 92, 列傳 5, 崔彥謨.

견한 것은 12회가 확인된다.<sup>8)</sup> 이들뿐만 아니라 朝貢使나 賀正使와 같이 그 때그때 파견되었던 사신들도 이러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을 통해서 국가에서 필요한 문물들을 수집해 오도록 하였던 사례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학생이나 숙위 왕족·사신들을 통하여 당나라로부터 수입된 문물들은 여러 면에서 발해를 일신시켰다. 이렇게 수입된 당나라 문화로서 발해사회를 이끌어가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던 것이 儒學과 文學이라 할 수 있다. 유학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질서를 마련해 주었고, 문학은 국가를 이끌어 가던 귀족들의 소양을 한껏 높여 주었다.

### 1) 유 학

유학이 발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은 文王 때부터일 것이다. 714년에 학생을 파견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건국 초기부터 유학의 영향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유학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유학이 발해사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 것은 대체로 문왕의 文治에 힘입은 것으로 여겨진다.

문왕이 당나라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내부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각종 정치제도·都城구조·무덤양식 등에서 중국적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sup>9)</sup> 이와 궤를 같이 하면서 문왕은 사상면에서 유학과 불교를 진흥시키는 데에 주력하였는데, 여기서는 유학에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왕은 즉위한 다음해인 738년 6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唐禮》·《三國志》·《晉書》·《三十六國春秋》를 구하고자 하여 玄宗의 허락을 받았다.<sup>10)</sup> 여기서 《당례》는 유교에 입각한 국가규범인 五禮를 담고 있던 《大唐開元禮》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종전에 사용하던 貞觀禮와 顯慶禮를 정비하여 蕭嵩

8) 宋基豪, 앞의 글, 431쪽 표 참조.

9) 宋基豪, 〈발해 文王대의 개혁과 사회변동〉(《韓國古代史研究》 6, 한국고대사연구회, 1993), 66~69쪽.

10) 《唐會要》 권 36, 蕃夷請經史.

《冊府元龜》 권 999, 外臣部 請求.

《玉海》 권 153, 朝貢 外夷來朝 唐渤海遣子入侍 참조.

등이 당의 玄宗 開元 20년(732)에 완성한 것이다.<sup>11)</sup> 반포된 지 6년 만에 문왕이 이를 수입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아 유교적 도덕규범과 사회규범을 토대로 발해사회를 이끌어 나아가고자 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적들은 궁중 도서를 관장하던 文籍院에 소장되었을 것이고, 胄子監에서는 이를 교재로 삼아 교육을 하였을 것이다. 주자감은 당나라의 국가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이곳에는 책임자로 監長을 두었다.<sup>12)</sup> 胄子란 말은 《書經》 舜典에서 따온 것으로 ‘卿大夫 이상의 만아들’을 의미한다고 한다. 따라서 명칭만으로도 주자감이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교육시키던 곳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발해의 여러 제도를 살펴보면 유학과 관련된 명칭들이 다수 보인다. 궁중에서 후궁의 업무를 담당하던 巷伯局의 항백은 《詩經》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문왕의 尊號인 “大興寶曆孝感金輪聖法大王”에도 불교 용어와 함께 孝感이란 유교적 단어가 들어 있다.

무엇보다도 忠·仁·義·智·禮·信이라는 유교덕목을 6부의 명칭으로 삼은 것은 독창적인 것으로서 발해사회에 유학이 얼마나 깊숙히 침투해 있었는가를 실증해 주고 있다. 8세기 중반에 일본의 仲麻呂정권이 官號와 官制 등을 개혁하면서 이 6부의 명칭을 모방한 것도 눈여겨 볼 만하다.<sup>13)</sup>

발해 지배층에 유학이 깊이 자리잡고 있었던 사실은 貞惠公主와 貞孝公主의 두 墓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14)</sup> 이 묘지는 중국의 유교 경전과 역사서들을 두루 섭렵하여 변려체 문장을 구사하고 있어서 당시 발해 지식인의 소양을 엿보게 한다.<sup>15)</sup> 인용된 경전만 하더라도 《尚書》·《春秋》·《左傳》·《詩經》·《易經》·《禮記》·《孟子》·《論語》 등이 있다. 유교적인 수사를 사용하

11) 《舊唐書》 권 21, 志 1, 禮儀 1.

12) 監長을 하나의 직책으로 이해하여 당나라 祭酒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鳥山喜一 著·船木勝馬 編, 《渤海史上の諸問題》, 風間書房, 1968, 77쪽), 監과 長의 두 개 직책으로 이해하여 각기 祭酒와 司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金毓黻, 《渤海國志長編》 권 15, 職官考, 華文書局, 1934).

13) 鈴木靖民,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吉川弘文館, 1985), 38쪽.

14) 鄒秀玉, 〈貞孝公主墓志反映出的儒家思想〉(《博物館研究》1983-3).

15) 王承禮, 〈唐代渤海“貞惠公主墓志”和“貞孝公主墓志”的比較研究〉(《社會科學戰線》1982-1), 185~186쪽.

여 국왕과 공주의 덕을 기리고 있는 몇 구절을 정효공주묘지에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sup>16)</sup>

① 무릇 오래 전에 읽었던 《尙書》를 돌이켜 보건대, 堯임금은 두 딸을 嬀水の 물굽이에 내려보내 舜임금에게 시집보냈고, 《左傳》을 널리 상세히 보건대 周 天子가 딸을 齊나라에 시집보낼 때에 魯 莊公이 魯館을 지어 그 혼례를 주관하였다. 그러니 부녀자로서 갖추어진 덕이 밝고 밝으면 명예로운 이름이 어찌 후세에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로서 갖추어진 규범이 아름답고 아름다우면 先人들이 쌓은 은혜가 어찌 무궁하게 전해지지 않으리오.

② 생각건대 高王·武王의 조상들과 아버지 文王은 王道를 일으키고 武功에서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고 능히 말할 수 있으니, 만일 이들이 때를 맞추어 政事를 처리하면 그 밝기가 日月이 내려비치는 것과 같고, 기강을 세워 정권을 장악하면 그 어진 것이 천지가 만물을 포용하는 것과 같았다. 이들이야말로 우·순임금과 짝할 만하고 夏·禹임금과 닮았으며, 商 湯王과 같은 지혜를 배양하고 周 文王과 같은 韜略을 갖추었다.

③ (공주는) 일찍이 女師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능히 그와 같아지려 하였고, 매번 漢 班昭를 사모하여 詩書를 좋아하고 禮樂을 즐겼다...六行을 크게 갖추고 三從을 지켰다. 衛 共伯의 처 共姜의 맹세를 배웠고, 齊 杞梁의 처와 같은 애처러움을 품었다. 父王에게서 은혜받아 스스로 婦德을 품고 살았다(〈貞孝公主墓誌并序〉).

그렇지만 정효공주를 칭송하기 위해서 漢代의 고사를 잘못 인용한 예가 보이고 있고, 첫머리에 “貞孝公主墓誌銘” 또는 “貞孝公主墓銘并序”라고 해야 할 것을 “貞孝公主墓誌并序”라고 잘못 표기하고 있어서 미숙하였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한다.<sup>17)</sup>

문왕 이후로 발해사회는 유학이 널리 보급되었고, 지속적인 선진 문화의 유입에 따라 마침내 9세기에는 해동성국으로까지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황을 보여주는 사료는 없다. 다만 다음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하여 유학이 발해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우선 발해인의 姓名이다. 왕의 이름인 大元義·大言義·大明忠·大仁秀,

16)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451~465쪽 참조.

17) 鄒秀玉, 〈渤海貞孝公主墓志并序考釋〉(《延邊文物資料匯編》, 1983), 68쪽·81쪽.

공주 이름인 貞惠와 貞孝, 귀족 이름인 大義信・大誠慶・大誠愼・大昭順・大禹謨・謁德・高仁・辛文德・高文信・烏孝愼・李居正・楊成規 등에는 추상적이고 유교적 덕목들인 충・인・의・신・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외국에 오고간 國書이다. 국서는 비록 의례적이고 추상적이며 상투적인 말들로 가득 차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왕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실상을 보여주는 면이 있다. 특히 宣王이나 大霧震에 대한 평가는 주목할 만한 것이다. 선왕은 일본으로부터 “信義로 본성을 이루고, 禮儀로 立身하였다”<sup>18)</sup> “세속에는 禮樂을 전하고, 가문에는 衣冠을 이었다”<sup>19)</sup> “믿음은 金石과 같이 확고하고 절개는 소나무・대나무처럼 곧다”<sup>20)</sup>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대이진은 중국으로부터 “대대로 忠貞을 이어받았고, 사람 됨됨이는 仁厚에 바탕을 두었다”<sup>21)</sup>는 평가를 받았다.

## 2) 한문학

발해인이 남긴 문학작품들은 중국과 일본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웠지만, 금세기에 들어서 金毓黻이 대부분을 수집하여 놓았기 때문에,<sup>22)</sup> 그 뒤의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었다.<sup>23)</sup>

발해인들이 얼마나 문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高元固와 관련

18) 《日本逸史》권 28, 嵯峨天皇 弘仁 11년 정월 갑오.

19) 《日本逸史》권 30, 嵯峨天皇 弘仁 13년 정월 계축.

20) 《日本逸史》권 34, 淳和天皇 天長 3년 5월 신사.

21) 《文苑英華》권 471, 與渤海王大霧震書.

22) 金毓黻, 《渤海國志長編》권 18, 文徵.

23) 발해 문학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참조된다.

朱國忱・張泰湘・吳文衡・魏國忠, 〈關於唐代渤海國的文學藝術〉(《求是學刊》1980-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지식산업사, 1982), 214~229쪽.

鄧偉, 〈論渤海文學〉(《學習與探索》1984-3).

王承禮 著・宋基豪 譯, 《발해의 역사》(翰林大 아시아文化研究所, 1987), 236~246쪽.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5(제2판,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164~168쪽.

金武植, 〈渤海 文學 研究〉(韓國精神文化研究院 碩士學位論文, 1992).



된 글에서 조금이나마 더듬어 볼 수 있다.<sup>24)</sup> 그가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에 같은 시기에 과거에 급제한 徐夔를 만나러 閩中(福建省 福州)지방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 때 서인을 만나서 그가 지은 〈斬蛇劍賦〉·〈御溝水賦〉·〈人生幾何賦〉를 발해 사람들이 집집마다 금으로 써서 병풍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을 전하였다. 이들이 급제한 것이 892년이므로 그 시기는 10세기 초가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이러한 발해인들의 취향으로 보아서 많은 문학작품들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은 극소수만이 전해지고 있을 따름이다.

발해인의 문학작품으로 文章과 詩가 남아 있는데, 우선 문장부터 살펴보겠다. 문장은 私인 것보다는 외교관계와 관련하여 국가 사이에 오고간 공식 문서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문장형식은 당나라에서 크게 유행하던 駢驪文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散文도 있다. 발해는 당·일본·신라·거란·돌궐 등의 이웃 나라들과 외교 교섭이 있었지만 전해지는 문서들은 당 또는 일본과 오간 것들뿐이다. 그 숫자를 보면 발해에서 당나라에 보낸 것이 1편, 당나라에서 발해에 보낸 것이 10편이 된다. 그리고 발해에서 일본에 보낸 것이 23편, 일본에서 발해에 보낸 것이 28편이다.

발해가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한 것이 160차례 이상이 되지만, 발해가 당나라에 보낸 문서는 연대를 확인할 수 없는 賀正表 1편만이 남아 있다.<sup>25)</sup> 이 글은 4·6句의 변려문 형식을 띠고 있고, 한 해의 시작을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해에서 일본에 보낸 23편의 문서 가운데에서 발해 국왕이 보낸 것이 16편이고, 발해 中臺省이 일본 太政官에 보낸 관청문서가 7편이다.<sup>26)</sup> 앞의 것은 일본 사료에서 書·啓·啓狀·別狀 등으로 칭해지는 것들이고, 뒤의 것은 牒으로 칭해지는 것들이다. 이들은 외교문서에 속하기 때문에 일정한 격식을 갖추고 있고 대부분 상투적인 어구로 채워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들을 통해서는 작자의 의중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들을 분석해 보면 발해 초기에는 변려문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후기로 갈수록 對句가 적

24) 《全唐詩》11函 1冊, 徐夔.

25) 洪皓, 《松漠紀聞》권 下.

26) 宋基豪, 〈渤海·日 國書を 중심으로 본 9세기의 발해사회〉(《汕耘史學》 7, 1993), 7~9쪽 표 참조.

어지고 문장의 호흡이 자유로워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sup>27)</sup> 이것은 발해 문학의 전반적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밖에 裴瑒가 東丹國의 사신으로 일본에 갔다가 일본조정에 사과하는 글을 올린 것이 있다.<sup>28)</sup> 이 때는 발해가 멸망한 지 4년이 되는 930년에 해당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遺民의 문장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가 주로 멸망 전에 활동하였으므로 발해 문학에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 그는 典故를 끌어들이면서 四六(文)과 對句를 구사하여 훌륭한 문학적 재질을 보여주고 있다.<sup>29)</sup>

이상은 외교와 관련된 문장들이지만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쓰인 문장도 없지는 않다. 첫째는 발해 승려인 貞素가 靈仙의 죽음을 애도하여 지은 시에 붙여진 序가 있다.<sup>30)</sup> 이 글은 산문으로 쓰여 있다. 둘째는 貞惠公主와 貞孝公主의 墓誌이다. 이들은 序와 銘을 갖추어 당나라의 전형적인 墓誌文 형식을 따르고 있다.

정효공주묘지는 전형적인 변려체 문장으로서, 12행의 서문과 5행의 銘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정혜공주묘지와 비교해 보면 두 사람의 행적을 기록한 부분만 다르고 거의 대부분이 일치한다. 이 점으로 보아 당시에 文籍院과 같은 곳에 원본을 작성해 두었다가 개인적 신상에 관한 부분만 수정하여 문장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실은 문왕 때에 당나라의 수준 높은 문화를 습득하여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지 못하고 아직은 모방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을 반영하는 듯하다.

이제 漢詩로 눈을 돌려보자. 발해인의 시는 貞素가 중국에서 지은 1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에 파견된 사신들이 지은 것이다. 일본 문인들과 시문을 교환하였던 발해 사신으로는 758년에 파견된 副使 楊泰師, 814년에 파견된 大使 王孝廉과 부사 高景秀<sup>31)</sup> 및 錄事 釋仁貞, 858년에 파견된 부사 周元伯, 871년에 파견된 대사 楊成規와 부사 李興晟, 882년에 파견된 대사 裴頤,

27) 金武植, 앞의 글, 26쪽.

28) 《本朝文粹》 권 12.

29) 金武植, 앞의 글, 31쪽.

30)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권 3, 開成 5년 7월 3일.

31) 《文華秀麗集》 권 上, 和渤海入觀副使公賜對龍顏之作.

894년에 파견된 대사 배정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부사,<sup>32)</sup> 907·919·929년에 파견된 대사 裴璆가 있다.

일본에서는 이들 문인을 대하는 데에 대단한 신경을 썼다. 주원백이 파견되었을 때에 문장에 능한 嶋田忠臣을 加賀權掾으로 삼아 응대하도록 조치하였고,<sup>33)</sup> 양태사 일행을 접대하기 위해 掌渤海客使로 임명된 都言道가 조정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의 이름을 都良香으로 개명하였다.<sup>34)</sup> 자신의 이름이 발해 사신을 접대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雅化시킨 것이다. 또한 ‘七步之才’<sup>35)</sup>를 지녔다고 할 정도로 즉흥시에 능한 배정이 사신으로 갔을 때에도 일본조정에서는 임시로 菅原道眞을 治部大輔로 삼고, 嶋田忠臣을 玄蕃頭로 삼아 응대하도록 하였고,<sup>36)</sup> 문장에 능하지 못한 藤原良積이 연회 도중에 퇴장해 버리는 사건도 있었다.<sup>37)</sup> 이 때 그는 強仕(40세)가 채 되지 않았던 젊은 나이였다.<sup>38)</sup> 12년 후 그가 다시 사신으로 일본에 갔을 때에 관원도진은 뛰어난 재주에도 불구하고 宰相에 오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시를 지어주기도 하였다.<sup>39)</sup>

이들 문인들이 파견된 시기는 양태사를 제외하고 모두 9세기였다. 특히 왕효렴 일행마저 제외한다면 9세기 중반 이후가 된다. 그리고 일본에서 발해 문인들을 대하는 데에 특별히 신경을 썼던 것도 9세기 중반 이후의 일로서, 이 무렵에 발해 사신의 문장에 대한 식견이 상당히 높았음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시는 양태사 2수, 왕효렴 5수, 석인정 1수, 석정소 1수로써 모두 9수가 있다. 시의 제목을 보면 양태사의 〈夜聽擣衣〉·〈奉和紀朝臣公詠雪〉, 왕효렴의 〈奉勅陪內宴〉·〈春日對雨得情字〉·〈在邊亭賦得山花戲寄兩箇領客使并滋三〉·〈和坂領客對月思鄉見贈之作〉·〈從出雲州書情寄兩箇勅使〉,

32) 《菅家文草》권 5, 客館書懷同賦交字寄渤海副使大夫 및 和副使見訓之作.

33) 《日本三代實錄》권 2, 清和天皇 貞觀 원년 3월 13일.

34) 《日本三代實錄》권 21, 清和天皇 貞觀 14년 5월 7일.

35) 《菅家文草》권 7, 鴻臚贈答詩序.

36) 《日本三代實錄》권 43, 陽成天皇 元慶 7년 4월 21일.

37) 《日本三代實錄》권 43, 陽成天皇 元慶 7년 5월 10일.

38) 繼和渤海裴使頭見酬菅侍郎紀典客行字詩의 “多才實是丹心使 少壯猶爲白面郎” 구절 다음에 “大使年未及強仕故云”이란 주가 달려 있다(《田氏家集》권 中).

39) 《菅家文草》권 5, 客館書懷同賦交字呈渤海裴令大使.

석인정의 〈七日禁中陪宴〉, 석정소의 〈哭日本國內供奉大德靈仙和尚詩并序〉이다. 이 밖에 배정이 지은 시의 한 구절이 전해지고 있다. 이들의 시는 五言律詩 2수, 七言古詩 1수, 七言絶句 6수로 되어 있어서 발해인들이 7언시를 즐겨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내용으로는 일본조정으로부터 환대를 받아 즐거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 있는가 하면, 멀리 타국에서 고국을 그리는 향수를 그린 것도 있다.

고국을 그리는 시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히는 것이 양태사의 〈밤에 다듬이 소리를 듣고〉라는 서정시이다.<sup>40)</sup> 이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리 기운 가득한 하늘에 달빛 비치니 은하수도 밝은데  
 나그네 돌아갈 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네  
 홀로 앉아 지새는 긴긴 밤 근심에 젖어 마음 아픈데  
 홀연히 들리누나 이웃집 아낙네 다듬이질 소리  
 바람결에 그 소리 끊기는 듯 이어지는 듯  
 밤 깊어 별빛 기우는데 잠시도 쉬지 않네  
 나라 떠나온 뒤로 아무 소리 듣지 못하더니  
 이제 타향에서 고향 소리 듣는구나  
 방망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다듬잇돌 평평한지 아니한지  
 멀리서 가너린 몸에 땀흘리는 모습 측은히 여기며  
 밤 깊도록 옥같은 팔로 다듬이질 하는 모습 보는 듯하네  
 나그네에게 따뜻한 옷 지어 보내려고 하는 일이지만  
 그대 있는 방 찬 것이 먼저 걱정이구려  
 비록 예의 잊어 묻기 어렵지만  
 숙절없이 원망하는 그대 마음 모를 리야 있겠는가  
 먼 이역에 가 있네 그래도 새로 사귀 사람 없지  
 한 마음이기를 원하네 그러면서 길게 탄식하네  
 이 때 홀로 규중으로부터 탄식소리 들리니  
 이 밤 아름다운 눈동자에 눈물 고이는 것 그 누가 알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네 마음은 이미 그대에 젖어 있는데  
 또 들리누나 괴로운 이 마음

40) 《日本詩紀》권 6. 이 시는 《經國集》권 13에도 실려 있지만, 滋野貞主의 시와 뒤섞여서 잘못 편집되어 있다.

차라리 잠들어 꿈속에서 소리 찾아 가고 싶은데  
다만 근심으로 잠 못드누나(〈夜聽擣衣〉)

이 시는 일본에서 가을밤에 다듬이질 소리를 듣고 고국의 부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섯 번에 걸쳐 운을 바꾸면서 상념의 변화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어서 높은 수준의 서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조정에서 환대를 받아 즐거운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는 왕효렴의 〈봄날에 비를 보고 情字를 얻어 지음〉이란 시를 들 수 있다.

주인이 邊廳에서 잔치를 여니  
上京에서처럼 심히 취하였네  
아마 雨師도 聖意를 안 듯  
단비가 축축이 내려 나그네 마음 적시네(〈春日對雨得情字〉)

이상으로 발해 문학을 개관하여 보았다. 이 밖에도 발해遺民으로서 문학 작품을 남긴 인물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인물로서 遼나라 때의 天祚帝 文妃 大氏, 金나라 때의 王遵古·王庭堅·王庭筠·王萬慶 집안, 高衍·高憲 집안, 張汝爲·張汝能 형제 등을 열거할 수 있지만, 이들은 이미 발해 문학의 범주에서는 벗어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해에 한자 이외에 고유 문자가 있었는지 간단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舊唐書》渤海靺鞨傳에 “文字와 書記가 있다”고 한 기록과 기와에 적혀 있는 판독하기 어려운 글자들을 근거로 발해에 고유 문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곤 한다. 그러나 고유 문자로 표기된 문장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발해인이 남긴 두 공주의 묘지나 詩文을 보면 이들은 한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발해에 고유 문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宋基豪〉

### 3. 예 술

#### 1) 건 축

발해의 건축물에는 궁궐이나 관청·살림집·寺院과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이들은 터만 남아 있을 뿐이지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범위를 좀더 넓게 잡아서 성곽이나 무덤, 탑과 석등까지 포함할 경우에 원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겨우 몇 개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발해의 건축물에 대한 언급은 그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sup>1)</sup>

##### (1) 성곽과 건물지

발해 성터에 대해서는 1933년과 그 이듬해에 일본의 東亞考古學會가 東京城(上京城)을 발굴하면서 체계적인 학술조사가 시작되었다. 그 뒤로 발해시대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城이나 堡壘들이 상당수 조사되었는데, 만주 지역에서 80개 이상, 북한에서 20여 개, 연해주에서 28개 정도여서 전체 숫자가 120개를 넘는다.<sup>2)</sup>

이들 성터는 발해 때에만 사용된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이전에 만들어져

1) 발해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 글들이 참조된다.

魏存成, 〈渤海의 建築〉(《黑龍江文物叢刊》1984-4).

李殿福, 〈渤海國의 建築與造形藝術〉(《清溪史學》6, 1989).

장상렬, 〈발해건축의 역사적위치〉(《고고민속론문집》3, 사회과학출판사, 1971).

——, 〈발해의 건축〉(《발해사연구논문집》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

2) 宋基豪, 〈발해 城址의 조사와 연구〉(《韓國史論》19, 國史編纂委員會, 1989), 410~413쪽.

엄장록, 〈연변지구 발해시기의 옛성터에 관한 고찰〉(《발해사연구》1, 연변대학출판사, 1990), 120~121쪽.

송기호, 〈北韓의 渤海史・統一新羅史 研究〉(《北韓의 古代史研究》歷史學會 編, 一潮閣, 1991), 194~195쪽.

에.웨. 샤브꾸노프, 〈沿海州의 渤海遺蹟〉(《中國 東北地方 및 沿海州에서의 韓民族史의 再構成》제7회 韓國民族史 國際學術 심포지엄, 1994), 48쪽.

에.웨. 샤브꾸노프 엮음·송기호·정석배 옮김, 《러시아 연해주와 발해 역사》(민음사, 1996), 84~101쪽.

발해 때에 계속 사용된 것도 있다. 발해가 멸망하고 나서 요·금나라 때에 수리되어 다시 사용된 것도 많다. 따라서 발해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지만 아직은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현재 편년 기준으로는 성의 구조와 출토 유물의 양식이라는 두 가지가 이용되고 있는데, 앞의 경우에 성벽에 시설된 雉나 甕城 등의 유무가 주로 고려되고 있고, 뒤의 경우에는 기와와 陶器 양식이 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들이 통일되지 않아 중국·북한·러시아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면도 보인다.

발해의 성은 입지 조건에 따라 平地城과 山城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上京城·八連城·西古城 등은 평지성에 속하고, 城山子山城·城牆砬子山城 등은 산성에 속한다. 기능에 따라서는 中心城과 이를 호위하는 衛城으로 분류되고 위성은 다시 堡壘·遮斷城 등으로 나누어진다. 성산자산성과 永勝遺蹟 주변에는 石湖古城·黑石古城·馬圈子古城·通溝嶺山城 등이 둘러싸고 있고, 강을 방어하기 위한 南臺子古城堡·大甸子古城堡·孫家船口古城堡 등의 보루도 있다. 서고성 주위에는 獐項古城·龍泉古城·紅星古城·河南屯古城 등의 위성이 자리를 잡고 있다.<sup>3)</sup> 함경도지역의 성을 예를 들면 靑海土城(北靑土城)은 중심성이고, 강미봉 보루나 노루목 보루 등은 강가에 축조된 보루에 속하며, 새덕 차단성이나 지방리 차단성은 차단성에 속한다.

축성 재료를 기준으로 발해의 성곽을 분류하면 토성·석성·토석 혼축성이 있다. 평지성은 토성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산성은 석성과 토석 혼축성이 많고 그 중에서도 석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평면 형태에 따라 크게 長方形·正方形·不定形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평지성은 계획적으로 축조되어서 여러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지만,<sup>4)</sup> 산성은 대체로 지형에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부정형에 속한다. 장방형에 속하는 것에는 상경성·팔련성이나 서

3) 嚴長錄, 〈和龍縣西古城及其附近渤海遺迹調査〉(《博物館研究》1984-1).

4) 60여 개의 평지성에 대한 상세한 분류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리정봉, 〈발해국 평원성의 유형, 시기회분 및 그 특징〉(《발해사연구》4, 연변대학출판사, 1993).

고성이 대표적이고, 정방형에 속하는 것에는 연길시 北大古城(延吉街 北土城) · 돈화시 石湖古城 등이 있다. 연해주 크라스키노성터는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어 부정형에 속한다.

발해는 전국에 5京 · 15府 · 62州 및 그 아래의 縣을 두어 다스렸고, 이러한 소재지마다 성을 쌓아 통치의 거점으로 삼았다. 이 기준에 따라 발해 성들을 都城 · 府城 · 州城 · 縣城으로 분류해 볼 수도 있다. 이 밖에 교통로의 요충지에 쌓은 성도 있다.

도성에는 성산자산성과 영승유적 · 상경성(동경성) · 서고성 · 팔련성이 있다. 성산자산성과 영승유적은 吉林省 敦化市에 있는 초기 도읍지이다. 성산자산성은 大祚榮이 성을 쌓고 도읍을 정했다고 하는 東牟山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그리고 영승유적은 발해 건국집단이 동모산에서 얼마간 머물다가 안정을 찾은 뒤에 평지로 내려와 중심지로 삼았던 장소로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는 성터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인지 종래에 지목하였던 敖東城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상경성은 黑龍江省 寧安縣 동경성에 위치하고 있다. 756년초에 이곳에 도읍을 정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수도가 되었던 곳이다. 서고성은 길림성 和龍縣에 있는데, 8세기 전반기에 일시적으로 도읍을 삼았던 곳이며, 팔련성은 길림성 琿春市에 있는데 8세기 후반기에 10여 년간 도읍으로 정했던 곳이다.

이러한 도성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경성이다. 이 성은 당나라 長安城을 본떠서 外城 · 宮城 · 皇城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성은 동서로 긴 橫長方形의 평면을 하고 있고 북쪽 벽은 가운데가 밖으로 튀어 나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丄자형을 이루고 있다. 외성의 총 둘레는 16,296.5m이고, 10개의 성문이 시설되어 있으며, 성벽 밖으로는 堠字를 돌렸다. 외성 안에는 11개의 도로가 종횡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도시 전체가 바둑판 모양의 坊을 이루고 있었다. 방의 전체 숫자는 81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4개의 방이 한 단위를 이루어 田자 모양을 하고 있다. 이곳에는 일반 주택뿐 아니라 시장이나 절이 자리잡고 있었다.

궁성은 북쪽에 치우쳐 있고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지금도 五鳳樓라 불리는 궁성의 정문자리가 잘 남아 있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중심구역에



는 7개의 궁전이 자리잡고 있다. 황성은 궁성 남쪽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중앙의 관청들이 있던 곳이다.

府城으로 지목되는 것으로는 청해토성·蘇密城·大城子古城·유즈노 우수리이스크(Iuzhno Ussuriisk)성터 등이 있다. 南京 南海府의 소재지로 추정되는 청해토성은 함경남도 北靑郡에 있는데, 肅愼古城 또는 북청토성이라고도 칭해진다. 소밀성은 길림성 樺甸縣에 있고, 長嶺府의 소재지로 여겨지고 있다. 率賓府의 소재지로는 대성자고성 또는 유즈노 우수리이스크성터가 지목되고 있다.

청해토성은 5경에도 속하던 곳으로서 전체 둘레가 1,342m인 방형 토성이다. 네 벽의 가운데에 성문이 서로 대칭되게 있고 성 안에는 이 문들을 연결하면서 십자 모양의 도로가 나 있다. 성벽에는 角樓와 웅성, 치가 설치되어 있다. 소밀성은 輝發河 남쪽 강가에 있으며 외성과 내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성은 내각이 직각을 이루지 않는 장방형으로서 둘레가 2,600m이고, 웅성과 각루가 시설되어 있지만 치는 없다. 외성 밖에는 해자가 두 겹으로 둘러져 있다.

州城으로는 크라스키노(Kraskino)성터·溫特赫部城·薩其城·南城子古城·南湖頭古城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해주 하산(Khasan)구역에 있는 크라스키노성은 동경 관할의 鹽州 소재지로 비정된다. 성 옆을 흐르는 강이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안치혜(Ianchikhe), 즉 鹽州河로 불렸기 때문이다. 혼춘시에 있는 온특혁명성이나 살기성도 역시 동경 관할의 慶州·穆州·賀州 등의 소재지로 추정되고 있다. 남성자고성은 獨奏州의 하나인 涑州의 소재지로 비정되고 있고, 남호두고성은 상경에 속하였던 湖州의 소재지로 거론되고 있다.

크라스키노성은 불규칙한 원형 또는 반타원형에 가까운데 남북 400m, 동서 300m 정도이고 전체 면적이 14ha쯤 된다. 북·동·남벽에 각기 1개의 성문이 나 있고, 성문마다 장방형의 웅성이 설치되어 있다. 지금은 습지로 변해 있어서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성 안에서는 절터와 기와 가마터 등이 발굴되었다. 이곳은 일본으로 파견되던 사신들이 배를 타던 항구 도시였다.

縣城으로 비정되는 것은 거의 없다. 다만 흑룡강성 영안현 城東鄉 土城子村에 있는 土城子古城이 상경 龍州 관할의 長平縣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정도이다.

발해에는 5개의 중요한 대외교통로가 있었다. 당나라로 가던 營州道·朝貢

道, 신라로 가던 新羅道, 일본으로 가던 日本道, 거란으로 가던 契丹道가 그것이다. 5京과 같은 주요 거점들을 서로 연결하던 내부 간선 교통로도 이러한 도로와 대체로 연계되어 있다. 동경에서 신라 국경지역까지 39개의 驛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주요 교통로에는 역을 설치하였고,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충지에는 城을 쌓았음을 알 수 있다. 근년에 이러한 성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수 이루어짐으로써 구체적인 경로가 확인되고 있다.<sup>5)</sup>

발해 성터에 대한 연구로서는 고구려 및 당나라 성과 비교하여 발해 성의 변화과정을 언급한 것이 주목된다.<sup>6)</sup> 발해 성은 성산자산성과 영승유적처럼 초기에는 평지성과 산성이 결합된 방어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集安의 丸都山城과 國內城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그러다가 문왕이 8세기 중반에 상경으로 천도하고 당나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長安城을 모방하여 평지성 중심의 방어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상경성이나 서고성과 팔련성은 이러한 계통에 속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변화과정을 보면 발해의 성은 건국기에 고구려식을 계승하다가 문왕 시기쯤부터 당나라식으로 전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 내외에 건축되었던 건물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조사되지는 않았다. 발해시대의 건물로서 궁전이나 관청자리·성문·정원·교량·우물 등이 조사되었고, 절과 탑자리도 많이 확인되었으며 평민 주거지도 조사되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무덤 위에서 건물터가 확인되고 있고, 건물 성격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24개석 주춧돌 유적도 여러 곳에서 10여 개가 발견되었다.

궁전과 관청자리는 상경성에서 조사된 것이 대표적이다. 궁전은 모두 7개인데, 이 중에서 5개의 궁전은 일직선상에 놓여 있고, 건물들은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1궁전지는 속칭 金鸞殿이라고 하는데, 궁전의 기단은 높

5) 李健才·陳相偉, 〈渤海的中京和朝貢道〉(《北方論叢》1982-1).

王俠, 〈琿春的渤海遺迹與日本道〉(《學習與探索》1982-4).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吉林汪清考古調查〉(《北方文物》1985-4).

張殿甲, 〈渾江地區渤海遺迹與遺物〉(《博物館研究》1988-1).

劉曉東·祖延峯 著·朴龍연 역, 〈남성자고성, 목단강변성과 발해의 흑수도〉(《발해사연구》1, 연변대학출판사, 1990).

6) 주영현, 〈발해 중경 현덕부에 대하여〉(《고고민속》1966-2), 3쪽.

魏存成, 〈渤海城址의發現與分期〉(《東北考古與歷史》1, 1982).

이 2.7m, 동서 길이 55.5m, 남북 너비 24m 정도이다. 그 뒤로 궁전들이 이어지는데, 제2궁전지 옆에는 八寶琉璃井이라 불리는 발해시대의 우물이 잘 남아 있다. 제4궁전지와 그 서쪽 건물에는 ㄱ자형의 온돌장치가 시설되어 있어서 寢殿址로 보이는데, 이러한 온돌장치는 궁성의 서쪽 구역에서도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관청자리는 거의 발굴되지 않아서 면모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 밖에 궁성의 동쪽 구역에는 속칭 御花園이라 불리는 禁苑址가 있는데, 이 곳에는 인공으로 만든 못과 산이 있고 정자터도 확인되었다. 상경성 부근의 牡丹江에서는 발해시대에 사용되었던 五孔橋, 七孔橋 등과 같은 교량 유적이 여러 개 남아 있다. 한편 성에서 벗어난 지역에서도 주거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평민 주택으로 보이는 반지하식 건물지들이 東寧縣 團結유적에서 발굴되었고, 연해주 일대에서도 성 안팎에서 화덕자리나 온돌장치가 딸린 반지하식 또는 지상식 주거지들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琿春市 屯灣子村과 東六洞, 林口縣 烟筒砬子에서는 교통로에 위치한 특수한 용도의 기와 건물터가 조사되었다. 건물 축조에 사용되었던 기와와 벽돌을 굽던 窯址도 상경성 부근의 杏山과 크라스키노성터 등지에서 확인되었다.

이상의 유적들은 주춧돌이나 기단만 남아 있기 때문에 상층구조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다만 상경성 제2 절터에 있는 석등의 火舎石과 屋蓋石에 표현된 기둥, 料枋, 기와 지붕과 같은 목조건물 양식은 건물 복원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리고 1987년에 연해주 하산구역에서 발견된 佛板에도 불상이 안치된 목조건물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이 방면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sup>7)</sup> 鷓尾나 鬼面瓦, 그 밖의 기와 출토 현상을 통하여 건물 양식을 추정하기도 하고, 주춧돌의 평면 각도와 배열상태를 바탕으로 각기 기둥의 안솔림과 안휘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2 절터의 석등 竿柱石 형태에서 기둥에 배흘림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바닥에는 寶相華文磚과 같은 벽돌을 깔아 장식하였고, 발해에서 독특하게 기둥이 썩지 않도록 기둥밑 장식기와(柱礎裝飾瓦)를 기둥 둘레에 돌렸음을 발견할 수 있다.

7) E.V. Sharvkunov, A.L. Ivliev 著・宋基豪 譯, <연해주에서 출토된 발해 佛板> (《美術資料》50, 국립중앙박물관, 1992).

이러한 일련의 자료를 토대로 건물 원형을 복원해보려는 시도가 다각도로 행해지고 있다.<sup>8)</sup> 이 밖에 건축에 사용된 자(尺)가 고구려 자를 기본으로 하였는지 아니면 당나라 자였는지에 관해서도 논의되었다.<sup>9)</sup>

## (2) 사원과 탑

발해에는 불교 신앙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었으므로, 사원도 많이 조성되었다. 발해시대의 절터는 대체로 40여 곳이 확인되었다.<sup>10)</sup> 첫 도읍지가 있던 敦化지역에서 廟屯절터 1개, 上京의 성 안팎에서 10여 개, 中京지역에서 高産절터 · 龍海절터 · 仲坪절터 등 13개, 東京지역에서 馬滴達절터 · 新生절터 등 9개, 南京지역에서 梧梅里절터 · 開心寺절터의 2개, 연해주지역에서 아브리코스(Abrikos)절터 · 코프이트(Kopyto)절터 등 5개가 조사 · 발굴되었다. 이 밖에도 西古城과 大城子古城 등에도 사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절터를 몇 개 들어보겠다. 상경성에서 발견된 절터는 성밖에서 발견된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성 안에 자리잡고 있는데, 도성의 중앙대로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다. 1933년과 이듬해 이 곳에서 6개의 절터를 발견하고 4개를 발굴하였다.<sup>11)</sup> 그리고 1963년과 이듬해에 중국과 북한학자들이 공동으로 도합 9개의 절터를 조사하였고,<sup>12)</sup> 그 뒤에 몇 군데의 절터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8) 장상렬, 앞의 글(1971) 및 〈부록 : 몇 개의 발해건축에 대한 외관복원〉.

張鐵寧, 〈渤海上京龍泉府宮殿建築復原〉(《文物》1994-6).

9) 村田治郎, 〈渤海王國の造營尺〉(《日本建築學會研究報告》15, 1952).

장상렬, 위의 글, 149~160쪽.

10) 宋基豪, 〈渤海佛教의 展開過程과 몇 가지 特徵〉(《伽山李智冠스님華甲紀念論叢 韓國佛教文化思想史》上, 1992), 713~714쪽.

박용연, 〈고고학방면으로부터 본 발해의 불교문화〉(《발해사연구》4, 연변대학출판사, 1993), 239~242쪽.

예.웨. 사브꾸노프, 앞의 글(1994), 48쪽.

11) 東亞考古學會, 《東京城—渤海國上京龍泉府址의發掘調査—》(東方考古學叢刊 甲種第五冊, 1939), 31~38쪽.

12) 조중궁동고고학발굴대, 《중국 동북지방의 유적 발굴 보고(1963~1965)》(사회과학원출판사, 1966), 179~181쪽과 194~198쪽.

《東京城》보고서의 절터 편호와 이 책의 편호가 서로 달라 혼동하기 쉬운데, 각각의 대응표는 다음과 같다. 이 글에서는 뒤의 것을 따랐다.

상경성 1호 절터를 보면 본전과 좌우의 곁채가 회랑으로 연결된 구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본전 좌우에 곁채를 두고 있는 것은 기후가 추운 곳에서 승려들의 動線을 최대한 짧게 하고, 외부 동선을 내부로 끌어들이기 위한 공간 구성으로 여겨진다.<sup>13)</sup> 본채는 우리 나라의 일반 사찰과 마찬가지로 안칸과 바깥칸으로 구분되면서 안칸에 凹자형의 불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불단에는 9개의 불상을 안치하였던 받침돌이 있다. 본채의 주변에서 綠釉를 칠한 치미와 8개의 귀면와가 발견되어 본전의 건물 양식이 팔작집이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현지에서 南大廟로 불리는 상경성 2호 절터에는 청나라 때에 지은 興隆寺가 들어서 있어서 구체적인 구조를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곳에는 발해 석등이 남아 있고, 석등 뒤의 三聖殿 안에는 발해시대의 석불이 전해지고 있어서 중요하다.

상경성 9호 절터는 외성의 북쪽 벽 밖에서 발견되었다. 이 곳에서는 본전만 발굴되었는데 역시 안칸과 바깥칸으로 구분되면서 凹자형 불단이 만들어져 있다. 불단 위에는 5개의 불상 받침돌이 있다. 이 절터에서도 귀면와 8개와 치미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1호 절터의 본전과 마찬가지로 팔작집 구조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경이 있던 서고성 부근의 東南山에도 발해시기의 것으로 보이는 절터가 있는데 이 절터도 안칸과 바깥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和龍縣 德化鄉 高產村에서도 단일 건물로 된 8각형 정자 모양의 절터가 발견되었다.<sup>14)</sup>

함경남도 신포시 오매리 절골유적에서 발견된 건축지는 고구려 문화층과 발해 문화층으로 나뉘어져 있다.<sup>15)</sup> 그리고 발해시대의 건물들은 두 차례에 걸쳐 축조된 것이다. 절골 절터유적으로 불리고 있는 1차 건물들은 동서 중

---

《東京城》	《유적 발굴 보고》
1호 절터	2호 절터
2호 절터	6호 절터
3호 절터	3호 절터
4호 절터	5호 절터

13) 이병건, <발해시대 사찰건축 연구>(建國大 建築工學科 碩士學位論文, 1991), 22쪽.

14) 何明, <吉林和龍高產渤海寺廟址>(《北方文物》1985-4).

15) 장상렬, 앞의 글(1992), 256~257쪽.

심축을 따라 배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2차 건물들로는 몇 개의 온돌장치만이 알려졌을 뿐이다. 절터유적에 속하는 것으로는 북쪽 1호 건물지와 금산 건물지가 대표적이다. 앞의 것은 동쪽의 본채와 서쪽의 부속 건물로 이루어졌는데 온돌장치가 시설되어 있었다. 뒤의 것은 이 유적에서 조금 떨어진 금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데, 온돌장치와 함께 무기류가 발견되어 초소 역할을 하였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해주에서 발굴된 코프이토절터와 아브리코스절터는 크로우노브카(Krounovka)강을 사이에 두고 좌우에 솟아 있는 얇은 야산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sup>16)</sup> 강의 오른쪽에 있는 코프이토절터는 산 정상 부근에 있는데, 건물은 거의 직사각형 평면을 띠고 있다. 절 밖에는 건물에 바짝 붙어서 판석으로 쌓은 낮은 벽이 둘러져 있다.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북쪽과 동쪽에는 낮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정원이 조성되어 있고, 북서쪽 모퉁이에 입구가 있었다.

강의 왼쪽에 있는 아브리코스절터는 산의 북쪽 경사면에 형성된 낮은 대지 위에 있다. 두 절의 거리는 500m~700m 정도 떨어져 있다. 건물터는 한 변이 7m인 정사각형으로 정면은 북서쪽을 바라보고 있다. 주춧돌은 5개씩 5열로 모두 25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절 주위에는 돌담이 둘러져 있었다.

크라스키노성터 안에서 발견된 절터는 건물터의 크기가 12m×11m로서 정면은 남쪽을 향하고 있다. 이 곳에는 주춧돌이 6개씩 5열로 배치되어 모두 30개가 놓여 있었다. 1994년에는 이 절터에서 탑자리가 조사되기도 하였다.

이상의 분포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발해 절터는 통치의 중심지였던 5경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원 중에는 왕실이나 귀족의 무덤에 딸린 절도 있는데, 龍海절터는 貞孝公主무덤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馬滴達절터도 마적달塔墓 부근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절터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이들 절터의 절대연대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최근에 조사된 함경북도 명천군 開心寺절터에서는 宣王 9년(826)에 세워졌다는 명문이 발견되었다고 한다.<sup>17)</sup> 그리고 아브리코스

16) 연해주의 절터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정리되어 있다.

예.베. 사브꾸노프 엮음·송기호·정석배 옮김, 앞의 책, 123~138쪽.

17) 리준걸, <함경남북도 일대의 발해 유적 유물에 대한 조사 보고> (《조선고고연

사원은 이미 폐기된 코프이토사원의 기와를 가져다가 다시 사용하여 건축한 것이 확인됨으로써 두 절의 선후 관계가 밝혀졌다.<sup>18)</sup>

한편 탑자리도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었다. 잘 알려진 것으로는 정효공주 무덤탑, 馬滴達塔, 靈光塔의 3개가 있다. 이 밖에 八連城 제1절터, 上京城 안의 土臺子, 東寧縣 大城子고성, 신포시 오매리 절골, 크라스키노절터 등에서도 탑자리가 발견되었다.

탑 가운데에는 영광탑만이 제대로 남아 있다. 이 탑은 길림성 長白朝鮮族自治縣 縣城 서북쪽의 塔山 정상에 있다. 5층의 벽돌탑으로서 제일 아래층의 높이가 약 2.8m, 둘레가 12.4m이고 전체 높이는 13m 정도이다. 탑의 내부는 상하로 통하도록 되어 있다. 마적달탑은 7층의 벽돌탑이었지만 1921년에 무너졌다고 한다. 정효공주무덤탑도 역시 벽돌탑이었다. 그런데 이 탑들은 승려의舍利를 안치하는 탑이 아니라 일반인의 시신을 매장한 墓塔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탑 아래에 玄室을 만들고, 그 곳에 시신을 안치한 것이다. 그리고 정효공주무덤의 예로 보아 이 탑의 주인공들은 불교와 밀접한 왕실 내지 귀족들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리탑도 발견되었다. 팔련성 제1절터에서 사리장치의 일부로 보이는 心礎石이 발견된 적이 있다. 대성자고성에서는 1972년에 금동제 사리함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의 작은 銀盒에 6顆의 사리가 들어 있었다. 상경성 토대자에서도 1975년에 은합에서 시작하여 石函까지 모두 7겹으로 싸여 있는 사리함이 발견되었다. 이 중에서 漆匣은 가는 銀絲로 꽃무늬가 상감되어 있고, 은합에는 구름무늬와 四天王像이 새겨져 있었으며, 마지막 함에는 유리병 속에 사리 5과가 들어 있었다.

### (3) 고 분

발해 고분들은 舊國의 소재지였던 중국 길림성 敦化市를 비롯하여 상경성 · 서고성 · 팔련성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서경의 관내

구》1986-1), 34쪽.

18) E.V. Shavkunov 著 · 宋基豪 譯, 〈沿海州의 발해 문화 유적〉(《白山學報》30 · 31, 1985), 462쪽.

였던 길림성 通化지구, 남경의 관내였던 함경도지역을 비롯하여 변방에 해당하는 吉林省지역·綏芬河유역·沿海州 일대에서도 고분들이 조사되었다.

중국에서는 50여 곳에서 2천 기 가까이 발견되었고, 이 중에서 150기 이상이 발굴되었다. 북한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 함경남북도 일대에서 발해 고분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20여 곳에서 2천 기 가까이 확인하였고, 100여 기를 발굴하였다. 러시아 연해주에서는 2~3곳에서 10기 미만의 극히 적은 숫자의 고분만이 발견되었는데 성터나 주거지·절터유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사가 부진한 실정이다.

주요한 고분군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돈화시에 있는 六頂山高분군에는 모두 80여 기의 무덤이 있으며, 이 중에서 32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특히 1949년에 정혜공주무덤이 발견됨으로써, 이곳에 발해 초기의 왕족과 귀족들이 묻혀 있음이 밝혀졌다.<sup>19)</sup>

정혜공주무덤은 대형 石室封土墓로서 무덤 방향은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남향이다. 무덤 앞에 벽돌을 깬 11m 길이의 墓道가 있고, 여기서 羨道를 통하여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연도의 길이는 1.74m, 너비는 1.10m이다. 무덤 안에는 4면에 현무암 돌을 쌓아 반지하식의 玄室을 만들었고, 천정은 고구려 무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抹角藻井천정을 하였다. 현실은 남북 길이 2.80m~2.94m, 동서 너비 2.66m~2.84m이며, 전체 높이는 2.68m이다. 지상에는 1.5m 높이의 원형 봉토를 하였다. 이러한 무덤 양식은 발해 왕실이 건국 초기에 고구려 전통을 강하게 계승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무덤에서는 墓誌 1점을 비롯하여 木棺 조각들, 암수의 돌사자 조각 각 1점, 도금된 구리못 4점 등이 출토되었다.

다음으로 서고성에 가까운 화룡현 龍頭山高분군에서도 1980년에 정효공주 무덤이 발견되어, 이 고분군에 있는 10여 기의 무덤이 역시 발해 왕실과 귀족들의 것임이 밝혀졌다.<sup>20)</sup>

정효공주무덤은 남향인데 무덤 전체 크기는 남북 길이 약 15m, 동서 너비 약 7m이다. 벽돌과 판석으로 쌓았는데 현실·연도·墓門·묘도·탑의 다섯

19) 王承禮, 〈敦化六頂山渤海墓清理發掘記〉(《社會科學戰線》1979-3).

20)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渤海貞孝公主墓發掘清理簡報〉(《社會科學戰線》1982-1).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7.10m 길이의 계단식 묘도는 두 차례에 걸쳐 수축되었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차 폭이 좁아지고 끝 부분에 벽돌을 쌓아 무덤을 막았다. 그 뒤에는 石門이 있고 연도가 이어진다. 연도는 1.90m로서 바닥에 벽돌을 깔았고 墓誌를 세워 놓았다. 현실은 길이 3.10m, 너비 2.10m, 높이 1.90m로서 지면에서 약 4m되는 지하에 만들었고, 벽돌로 棺臺를 쌓았다. 현실 벽은 검은 벽돌로 쌓았고 그 위에 1~2단의 평행고임을 하고 다시 한 번 2단의 평행고임을 한 뒤에 큰 판석을 덮었다. 현실 위에 쌓은 탑은 이미 무너져 한 변의 길이가 5.60m인 방형의 기초만 남아 있었다. 무덤 양식은 벽돌로 쌓는 당나라 방식과 돌로 공간을 줄여 나가면서 천정을 쌓는 고구려 방식이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무덤 위에 탑을 쌓았는데 이는 발해의 독창적 방식이다. 무덤 앞에는 무덤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기거하던 건물터가 있고, 산 아래에는 陵寺로 보이는 龍海절터가 있다. 무덤에서 남녀 각 1인의 유골이 수습되어 공주 부부의 합장 무덤임이 확인되었고, 이 밖에 벽화와 묘지·陶俑 조각·글씨가 새겨진 벽돌 등이 출토되었다.

1971년에는 화룡현 八家子에 있는 河南屯古城 안에서 부부 무덤이 발굴되었다.<sup>21)</sup> 동서로 4.5m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있는 두 무덤은 長方形 磚築墳에 해당한다. 둘 다 남향으로서 크기는 길이 2.4m, 너비 1.4m, 높이 0.47m로 거의 동일하다. 현실 바닥에는 정방형 벽돌을 깔았고, 네 벽은 장방형 벽돌로 쌓아 백회로 틈을 메웠다. 발굴할 때 이미 파괴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에 따르면 무덤 위에는 8개의 판석을 두 층으로 덮고 그 위에 동서 길이 약 28m, 남북 너비 약 20m, 높이 약 2m되는 커다란 봉토가 있었으며, 이 봉토 위에는 30여 개의 주춧돌이 동서 방향으로 줄지어 있었다고 한다. 주변에는 기와 조각들이 널려 있어서 무덤 위에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무덤 주위에는 길이 500m되는 방형의 담이 쳐져 있어서 墓域을 이루고 있었다. 이 무덤에서는 순금제 허리띠를 비롯한 각종 화려한 장식물들이 출토되었다.

상경 부근의 三陵鄉 三星村에서 확인된 三陵屯고분군도 주목할 필요가 있

21) 郭文魁, 〈龍渤海古墓出土的幾件金飾〉(《文物》1973-8).

다.<sup>22)</sup> 고분군 주위에는 길이가 약 450m되는 日字형의 土壁이 둘러싸고 있고, 3기의 무덤이 북쪽 구역에 삼각형을 이루면서 배치되어 있다. 이 가운데 1호묘는 일제시대에 조사가 이루어졌고, 2호묘는 1991년과 이듬해에 발굴되었다. 이 무덤들은 대체로 왕릉으로 추정되고 있다.

1호묘는 반지하식으로 쌓았고 남향하고 있으며, 현실·연도·묘도로 구성되어 있다. 묘도는 약 7m로서 바닥을 경사지게 만들었고 길 좌우는 돌로 쌓았다. 현실 남벽 가운데에 낸 연도는 길이가 4m이다. 현무암을 정교하게 가공하여 서로 맞물리게 하면서 남북으로 긴 장방형의 현실을 쌓았는데 벽의 표면에는 회칠한 흔적이 있다. 현실 크기는 길이 3.9m, 너비 2.1m, 높이 2.4m이다. 천정은 꺾음식 천정을 하고 있고, 봉토 위에는 주춧돌이 동서로 길게 줄지어 각각 4개씩 있고 주변에 기와조각들이 널려 있어서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호묘는 지하식으로서 남향하고 있고 역시 현실·연도·묘도로 구성되어 있다. 묘도는 13단의 흙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9.8m이고 너비는 2m이다. 연도는 현실 남벽 가운데에 있고 바닥에는 현무암 판석을 깔았으며 길이는 2.7m이다. 현실은 현무암으로 7층 정도를 쌓았는데 길이 3.90m, 너비 3.30m, 높이 2.45m이다. 현실 천정은 3층의 말각천정으로 하였고 연도는 1층의 평행고임천정을 하였다. 이 무덤에는 모두 15인의 인골이 출토되었고, 현실과 연도의 벽 및 천정에는 인물과 꽃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상은 대형의 석실봉토묘나 전축묘로서 왕실이나 상층 귀족들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보다 낮은 계층의 무덤은 중형이나 소형의 석실묘·석곽묘·석관묘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서 지방 세력가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것이 安圖縣 東淸고분군이다.

이 고분군은 1990년과 이듬해에 걸쳐 모두 13기가 발굴되었다.<sup>23)</sup> 여기에

22) 鄭永振, 〈1991년에 發掘한 三陵屯渤海壁畫墓와 高句麗壁畫墓와의 關係〉(《韓國上古史學報》 16, 1994).

23) 鄭永振, 〈최근년간 중국동북지역에서의 발해유적 조사 발굴과 발해사연구동향〉(《韓國上古史學報》 9, 1992), 186~188쪽.

박윤무, 〈안도동청발해무덤〉(《발해사연구》 2, 연변대학출판사, 1991).

연변박물관, 〈동청발해무덤발굴보고〉(《발해사연구》 3, 연변대학출판사, 1992).

는 土墳墓・積石墓・石墳墓(石槨墓)・石室墓 등의 여러 형식이 존재하고, 方墳積石墓・方壇石墳墓・方壇階梯積石墓・方壇階梯石室墓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도 조사되었다. 매장 습속에서도 1인장과 多人合葬이 있고, 1・2次葬이 모두 있으며, 火葬도 있어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이 고분군이 있는 곳은 발해의 중심지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상경에서 당나라로 가는 중간 경유지에 해당하므로, 중앙 귀족보다는 지방 세력가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永吉縣 楊屯 大海猛유적이나 榆樹縣 老河深유적 등에서는 발해시대의 수혈식 토광묘들이 발굴되었다.<sup>24)</sup> 이러한 무덤들은 말갈적 전통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발해에 편입되었던 말갈족의 고분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해 무덤에는 흙무덤・돌무덤・벽돌무덤 등이 있다.<sup>25)</sup> 흙무덤은 발해 건국 이전부터 유행하던 양식으로 발해 초기까지 지속되었다. 돌무덤은 다시 석실묘・석곽묘・석관묘로 나눌 수 있는데, 석실봉토묘가 발해 고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돌을 이용하여 무덤을 쌓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고구려적인 것으로서, 특히 석실봉토묘는 고구려 후기의 양식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정효공주무덤이 대표적이다. 벽돌무덤은 당나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발해 중기 이후에 왕실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그 숫자는 많지 않다. 이러한 것으로는 정효공주무덤과 마적달무덤이 대표적이다. 특히 정효공주무덤의 벽은 벽돌로 쌓았으면서 천정은 돌로 평행고임을 하여 당나라 양식과 고구려 양식이 결합된 양상을 보여준다. 이 밖에 상경 부근의 삼릉둔 1호묘는 돌을 벽돌처럼 깎아서 축조하였다.

2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榆樹老河深》(文物出版社, 1987), 119~121쪽.

吉林市博物館, 〈吉林永吉楊屯大海猛遺址〉(《考古學集刊》5, 1987).

吉林省文物工作隊・吉林市博物館・永吉縣文化局, 〈吉林永吉楊屯遺址第三次發掘〉(《考古學集刊》7, 1991).

鄭永振, 〈高句麗・渤海・靺鞨 墓葬形制 比較研究〉(《百濟研究》22, 1991), 187~188쪽.

25) 발해 무덤에 대한 자세한 형식 분류에 대해서는 다음 글들이 참조된다.

주영현, 《발해문화》(사회과학출판사, 1971), 65~75쪽.

정영진, 〈발해무덤연구〉(《발해사연구》1, 연변대학출판사, 1990).

박윤무, 〈발해석실봉토무덤에 대한 고찰〉(《발해사연구》2, 연변대학출판사, 1991).

매장방식으로는 單人葬・二人合葬・多人合葬이 모두 보인다. 2인합장은 부부합장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인합장은 발해 매장습속의 특색인데, 大城子 고분이나 大朱屯고분에서처럼 주인공과 陪葬者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예도 있다. 매장자는 적게는 1인에서 많게는 16인에 이른다. 이러한 매장자에는 주인공과 혈연관계에 있었던 가족뿐만 아니라, 그에 딸린 奴婢나 部曲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殉葬의 한 遺風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sup>26)</sup>

무덤에서 출토된 인골의 배치상태로 보아 1차장과 2차장이 모두 존재하며, 하나의 무덤에서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2차장 인골은 대체로 追加葬에 의한 것이다. 1차장의 경우에는 木棺을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목관없이 직접 묻은 예도 보인다.

발해 초기에는 육정산고분군에서처럼 火葬도 유행하였다. 이것은 시신을 관에 넣은 채 무덤 안에서 불에 태우는 방식이다. 이러한 풍습은 중기 이후에 점차 사라진다. 이 밖에 육정산고분군에서는 사람뼈와 함께 동물뼈들도 출토되었다. 동물뼈로는 말・소・개의 뼈들이 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고분들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 특이한 현상으로서 발해 초기에 유행하였다.

한편 발해에서는 무덤 위에 건물을 짓던 풍습도 있었다. 삼릉둔 1호묘와 하남둔고분에서는 봉토 위에서 주춧돌이 발견되었고, 육정산고분군과 용두산고분군에서는 봉토에서 기와들이 다수 노출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불교가 성행하면서 탑으로 대체되었는데, 정효공주무덤과 마적달무덤은 승려의 무덤이 아닌 데도 그 위에 벽돌로 만든 탑이 세워져 있었다. 이러한 전통은 중국학자들이 말갈의 풍속을 계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고구려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구려나 백제고분에서 기와가 다수 발견되었고, 將軍塚 정상부에 있는 건물 난간의 흔적같은 것들이 이를 증명해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6) 宋基豪, 〈발해의 多人葬에 대한 연구〉(《韓國史論》 11, 서울대, 1984).

엄장록・박용연, 〈북대발해무덤연구〉(《발해사연구》 2, 연변대학출판사, 1991), 82~85쪽.

## 2) 미 술

## (1) 회 화

발해의 繪畫에 대해서는 元나라 때에 편찬된 《圖繪寶鑑》에 大簡之가 松石과 小景을 잘 그렸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대간지를 渤海人이라 하면서도 金나라 항목에 넣은 점으로 보아 그는 금나라 때에 활동한 발해유민으로 보인다. 따라서 발해시대의 회화와는 거리가 있다.

그림으로는 정효공주무덤과 삼릉둔 2호묘의 벽화가 대표적이다. 정효공주무덤에는 연도와 현실의 3면의 벽에 모두 12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sup>27)</sup> 비록 공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그려진 武士·侍衛·內侍·樂師(樂伎)·侍從을 통하여 공주의 궁중생활을 엿볼 수 있다. 현실의 棺臺 남쪽 측면에도 백회 위에 그린 사자머리 같은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으나 손상이 심하여 원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정효공주무덤에 그려진 벽화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도에는 양쪽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문을 지키고 서 있는 무사 2명이 그려져 있다. 두 사람의 키는 98cm로서, 칼을 잡고 첩퇴를 메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검은 가죽신을 신고 있다.

현실의 동쪽과 서쪽 벽에는 키가 113cm~117cm되는 인물들이 각각 4명씩 그려져 있다. 서쪽 벽에는 시위 1명을 앞세우고 악사 3명이 문 쪽을 향하여 뒤를 따르고 있다. 시위는 상투를 높이 틀고 붉은색 抹額(帕首)을 썼으며, 갓이 둥글고 소매가 좁고 옷자락이 긴 갈색 團領袍를 입고 검은 가죽신을 신었다. 허리에는 劍과 활을 차고 어깨에는 첩퇴를 메고 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악사들은 모두 幘頭를 썼고 갓이 둥글고 소매가 넓고 옷자락이 긴 단령

27) 정효공주무덤 벽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참조된다.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앞의 글.

池升元, 〈淺談渤海貞孝公主墓壁畫〉(《延邊文物資料匯編》, 1983).

李殿福, 〈唐代渤海貞孝公主墓壁畫與高句麗壁畫比較研究〉(《黑龍江文物叢刊》 1983-2).

방학봉, 〈정효공주무덤의 벽화에 대하여〉(《발해문화연구》, 이론과실천, 1991).

포를 입고 있다. 단령포의 색깔은 앞에서부터 붉은색, 질푸른색, 흰색으로 서로 다르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고 약기를 싼 보자기를 하나씩 들고 있다. 발에는 미투리(麻鞋)를 신었다.

동쪽 벽에도 역시 시위 한 명을 앞세우고 공주를 시중들던 3명의 내시가 그려져 있다. 첫 번째 인물이 시위로서 서쪽 벽과 모습이 거의 같다. 그 뒤에 보이는 3명의 내시도 약사들처럼 복두를 쓰고 갓이 둥글고 소매가 넓고 옷자락이 긴 단령포를 입고 있다. 단령포는 약사들처럼 앞에서부터 붉은색, 질푸른색, 흰색이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발에는 미투리를 신었다. 두 손으로 물건을 잡고 역시 문 쪽을 향해 서 있다.

북쪽 벽에는 키가 117cm되는 侍從 두 사람이 얼굴을 서로 마주보면서도 약간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복두를 쓰고, 갓이 둥글고 소매가 넓고 옷자락이 긴 단령포를 입고 있으며, 검은색 가죽띠를 띠고 미투리를 신고 있다. 둘 다 등 뒤로 활을 매고 있다. 서쪽 인물은 흰색의 단령포를 입고 두 손에 雙頭の 지팡이를 잡고 있으며, 동쪽 인물은 紫色 단령포를 입고 두 손으로는 日傘같은 것을 들고 있다. 왼쪽 허리에 찬 화살통(箭囊) 중간에는 머리를 뒤로 돌리고 앞다리를 들면서 도망하는 황토색 사슴 한 마리가 그려져 있어서 하나의 독립된 그림을 이루고 있다.

벽화를 그리는 방법으로 밑그림을 붙이고 그 위에 칠폴로 찢러가면서 윤곽선을 만드는 針刺法보다는 鐵線描를 택하였던 듯하다.<sup>28)</sup> 현실의 벽 위에 백회를 바르고 다시 석회물을 칠한 다음에 그 위에 그림을 그렸다. 먼저 먹으로 윤곽선을 그리고 나서 다홍색(紅)·붉은색(朱)·적갈색(赭)·푸른색·검은색·녹색·흰색 등으로 바탕색을 칠하고, 다시 먹으로 그림을 완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옷에 문양을 그려 넣었다.

인물 표현을 보면 하얗게 칠한 얼굴은 둥글고 크며 살이 찌서 풍만하다. 눈은 작고 눈썹은 가늘며 코가 낮고 뺨은 둥글며 붉은 입술은 작고 동그랗게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인물 표현은 대체로 당나라 풍격을 지니고 있

28) 엄장록, <정효공주무덤의 몇 개 특점에 대한 탐구>(《발해사연구》3, 연변대학 출판사, 1992), 164~166쪽.

鄭永振, 앞의 글(1994), 376~377쪽.

다.<sup>29)</sup> 그리고 이들이 비록 남자옷을 입고는 있지만 여성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주를 시중들던 남장한 여성들로 여겨진다. 이러한 예는 당나라 벽화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sup>30)</sup>

이 벽화는 발해인의 服飾도 엿볼 수 있다.<sup>31)</sup> 머리는 높은 상투를 틀고 복두나 抹額·투구를 썼고, 몸에는 단령포나 갑옷을 입었다. 단령포는 깃이 발아서 목둘레선에서는 속옷이 보이지 않으나, 허리 아래에서 옆으로 트인 옆트임을 통하여 속에 입은 中單·內衣·袴가 드러난다. 소매에는 넓은 것과 좁은 것이 있고, 옷자락이 발등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다. 겉옷에는 여러 가지 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겉옷의 색깔에는 갈색·붉은색·갈푸른색·흰색·자색 등이 있는데, 동일한 직분인데에도 옷 색깔이 각기 다른 점으로 보아서 관복 규정에 따른 것은 아닌 듯하다.<sup>32)</sup> 다음으로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고 신발은 검은 가죽신이나 미투리를 신었다.

삼릉둔 2호묘의 현실과 연도의 벽 및 천정에도 백회를 바르고 벽화를 그렸다.<sup>33)</sup> 이 무덤에는 정효공주무덤 벽화와 비교가 되는 인물과 함께 꽃그림이 그려져 있다. 인물 그림은 현실 동·서벽에 각각 4명, 북벽에 3명, 남쪽 연도 입구 좌우에 각각 1명, 연도 동·서벽에 각각 무사 1명씩 도합 15명이 그려져 있지만, 그림의 보존상태는 아주 나쁘다. 여기에 그려진 인물들도 역시 얼굴이 풍만한 여성들이라고 한다.

현실 천정에는 꽃그림이 있다. 삼각으로 고임한 천정에는 흰색 바탕에 노란색 꽃이 가득 그려져 있다. 천정 한가운데에는 6개의 꽃잎이 3겹으로 된 큰 꽃을 그리고, 그 둘레를 6개의 꽃잎이 2겹으로 된 여섯 송이의 꽃으로 싸

29) 당나라 벽화에 대해서는 다음 글들이 참고가 된다.

賀梓城, 〈唐墓壁畫〉(《文物》1959-8).

宿白, 〈西安地區唐墓壁畫的布局和内容〉(《考古學報》1982-2).

秦浩, 《隋唐考古》(南京大學出版社, 1992), 196~201쪽.

30) 宿白, 위의 글, 150~153쪽의 附表 참조.

31) 김민지·이순원, 〈발해의 복식에 관한 연구(I)－정효공주묘 벽화를 중심으로－〉(《生活科學研究》18, 서울大 家政大, 1993).

32) 《新唐書》渤海傳에는 관복 색깔이 3품 이상은 紫色, 4·5품은 緋色, 6·7품은 綠色, 8품은 綠色으로 규정되어 있다.

33) 鄭永振, 앞의 글(1994), 373~374쪽.

서 아주 커다란 꽃문치를 이루고 있다. 고임돌의 아래쪽과 옆에도 각기 다른 꽃무늬로 꽃이 그려져 있다. 현실 천정의 꽃그림들은 二方連續團花圖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연도 천정에도 동일한 그림으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꽃으로만 채워진 그림은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다.

한편 돈화 육정산 6호분(IM6)에서 검은 선과 주홍색·청회색·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벽화조각이 발견되었고,<sup>34)</sup> 화룡 하남둔고분 부근에서도 꽃그림이 있는 벽화 파편이 발견되었으나,<sup>35)</sup> 워낙 작아서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상경성에서 조사된 절터들에서도 꽃이나 千佛圖가 그려진 아주 작은 벽화 파편들이 발견되었고,<sup>36)</sup> 아브리코스절터에서도 번개무늬와 직물무늬가 복합된 벽화 파편이 발견되었다.<sup>37)</sup> 또 상경성에서 출토된 벼루 위에 복두를 쓴 인물의 얼굴이 좌우로 납작하게 그려진 예도 있다.<sup>38)</sup>

## (2) 공 예

발해의 공예품으로는 조각, 도자기, 기와·벽돌, 금속 세공품 등이 있다.<sup>39)</sup> 조각품으로서 불상·석등·石獅子像 등이 대표적인데, 불상은 불교 항목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상경성 2호 절터에는 현무암으로 만든 높이 6m의 거대한 석등이 지금도 원래의 위치에 남아 있다. 이 석등은 上·下臺石, 竿柱, 火舍石, 屋蓋石, 相輪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 하대석과 화사석은 8각형이고 간주는 배가 부른 둥근 기둥 모양이다. 상륜부에는 寶輪, 寶蓋, 寶珠가 잘 남아 있다. 옥개석과 화사석에는 목조건축 양식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당시의 건물 형태를 엿볼

34) 王承禮, 앞의 글, 206쪽.

35) 郭文魁, 앞의 글.

36) 東亞考古學會, 앞의 책, 76쪽.

37) E.V. Shavkunov 著·宋基豪 譯, 앞의 글(1985), 450쪽.

38)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앞의 책, 211쪽.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8 발해편(평양; 외국문종합출판사, 1991), 275쪽.

39) 발해 공예 전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주영현, <발해의 공예>(《고고민속》1967-1).

조대일, <발해의 공예>(《발해사연구논문집》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



수 있게 해준다. 상·하대석에 새겨진 연꽃은 부조가 강하여 힘찬 느낌을 준다. 하대석의 基臺面에는 眼象이 뚜렷하게 부조되어 있다.

돌사자상으로 대표적인 것은 정혜공주무덤의 연도에서 출토된 것이다.<sup>40)</sup> 화강암으로 만든 것으로 두 마리가 출토되었다. 하나는 높이 64cm로서 머리는 치켜들고 눈을 부릅뜨고 있으며 입을 벌리고 혀를 말고 있다. 가슴을 볼썽 앞으로 내밀어서 강한 힘을 느끼게 한다. 앞다리는 가슴 앞에서 버티어 세우고 뒷다리는 구부려서 받침돌 위에 쭈그리고 앉아 있으며, 목 갈기는 둥글게 말고 있다. 당나라의 돌사자보다 크기가 아주 작지만 강한 힘을 표현한 조각수법이 돋보인다. 다른 하나는 높이 60cm로서 자세는 거의 같으나 크기가 약간 작고 입은 반쯤 벌리고 있는데 조각수법이 조금 뒤떨어진다.

1958년 돈화지방을 지표조사할 때에도 돌사자상 하나를 습득하였는데 그 모습은 이들과 거의 같다고 한다.<sup>41)</sup> 그리고 육정산 6호분을 발굴할 때에도 돌사자의 귀 부분이 출토되었다. 1988년에 三靈屯(三陵屯) 1호 무덤을 정리하면서 무덤 위에서 화강암으로 만든 돌사자상 하나를 또 발견하였다. 일부가 손상되었으나 남아 있는 높이가 39cm이고 위의 사자들과는 달리 뒷다리를 펴고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sup>42)</sup>

상경성 제1궁전지(보고서의 제2궁전지)에서도 섬록암 또는 현무암으로 만든 7마리의 돌사자상 머리가 출토되었는데,<sup>43)</sup> 머리 뒤쪽은 기단에 끼울 수 있도록 방추형 모양으로 깎았고 이곳에 고정시키기 위한 구멍이 나 있다. 이들은 입이 귀 밑까지 찢어지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있고 눈망울이 크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소 형식화된 느낌을 준다. 상경성과 팔련성에서 각각 綠釉를 바른 사자상 머리도 출토되었다.<sup>44)</sup>

조각품에 속하는 것으로는 이 밖에 龜趺·그릇 다리·墓誌石 등이 있다.

40) 王承禮, 앞의 글, 205쪽.

41) 李殿福·孫玉良, 《渤海國》(文物出版社, 1987), 130쪽.

42) 왕립안·황립계 저·방학봉 역, <새로 발견한 발해시기의 돌사자>(*《발해사연구》* 3, 연변대학출판사, 1992).

43) 東亞考古學會, 앞의 책, 62~64쪽.

44) 齋藤甚兵衛, 《半拉城—渤海の遺蹟調査—》(琿春縣公署, 1942), 34쪽.

주영현, 앞의 책, 142~144쪽.

현무암으로 만든 귀부는 1976년에 상경성 궁성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sup>45)</sup> 몸은 거북이이고 머리는 용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30cm 높이의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었다. 전체 길이는 206cm이고 몸통 길이는 131cm이다. 또한 상경성에서 출토된 그릇의 다리에 짐승 머리가 조각된 것도 있다. 그것은 높이가 8cm에 불과하지만 길게 내민 혀가 바닥에 닿고 머리로 그릇의 몸을 떠받들도록 되어 있는데 발해 예술품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묘지석은 모두 화강암으로 만든 것으로서 위가 뾰족하고 아래가 네모진 圭形이다. 앞 면에는 楷書體로 묘지문이 음각되어 있다. 정혜공주의 경우에는 비문 주위에 唐草文을 두르고 윗부분에 구름무늬를 새겨 넣었으나, 정효공주의 경우에는 주위에 선을 음각하는 데에 그쳤다.

발해시대에 사용되었던 그릇으로 陶器와 磁器가 있다. 도기에는 유약을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발해인들이 주로 사용한 것은 유약을 바르지 않은 도기이다. 도기는 크게 육정산고분군에서 출토된 초기의 것과 상경성·서고성·팔련성·和龍 北大고분군 등지에서 출토된 중·후기의 것으로 구분된다.<sup>46)</sup> 초기에 만들어진 도기들은 바탕흙이 거칠고 모래가 많이 섞여 있으며, 홍갈색·회갈색·황갈색이 많고 색깔이 고르지 못하다. 그리고 손으로 빚은 것이 대부분이다. 도기 형태로는 작은 접시(碟)·사발(碗)·바리(鉢)·배 깊은 단지(長腹罐)·배 부른 단지(鼓腹罐)·목 긴 병(長頸瓶)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입술이 두 겹이고 배가 깊은 단지(重脣長腹罐)가 발해 초기의 전형적인 그릇으로서, 말갈의 전통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중·후기에 만들어진 도기들에는 바탕흙에 모래가 섞인 것이 줄어들고 물레를 사용한 것이 많아지며 회색이 주류를 이룬다. 유약을 바른 도기도 이때에 출현한다. 회색 도기는 다시 泥質의 흑회색 도기와 모래가 섞인 회갈색 도기의 두 가지로 나뉜다. 앞의 것은 물레로 만든 것으로서 구운 온도가 높

45) 왕림안 저·방학봉 역, <발해 상경귀부에 관한 두가지 문제>(*《발해사연구》* 4, 연변대학출판사, 1993).

46) 이보다 자세한 시기구분을 하려는 시도도 있다.

김태순 저·마성길 역, <발해 질그릇의 시기획분에 대하여>(*《발해사연구》* 3, 연변대학출판사, 1992).

아서 단단하고 표면을 갈아서 빛이 나는데, 표면에 銀을 입힌 것도 있다. 회갈색 도기는 상대적으로 거칠며 구운 온도가 낮다. 손으로 빚은 것이 많고 바탕흙에 가는 모래가 섞여 있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 도기 형태들이 다양해지는데, 작은 접시·사발·바리·단지(罐)·독(甕)·시루·그릇 뚜껑·다리가 달린 그릇·벼루 등등이 있다. 이들 그릇에는 줄·그물·새끼줄·마름모·물결·忍冬·寶相花 등과 같은 다양한 문양들을 누르고·찍고·새기고·덧붙여서 장식하였고, 일부에는 中·信·禳見·章 등과 같은 글자들을 새기거나 찍었다.

이 가운데에서 아가리를 구름무늬와 인동무늬로 표현한 흑회색의 큰 접시(盤)는 길이 86cm, 너비 64cm, 높이 10cm 크기로서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입이 나팔꽃처럼 활짝 벌어지고 목이 긴 병은 높이가 39.7cm로서 몸통에 두 개의 손잡이가 달려 있고 입과 목에 띠가 돌려져 있는데, 고구려 유적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四耳壺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유약을 바른 도기는 구운 온도가 높고 바탕이 희고 단단하다. 유약으로 三彩를 즐겨 사용하였는데, 삼채로서 노란색·갈색·녹색·자색 등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삼채를 생활 용기로 많이 사용한 것은 통일신라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유약을 바른 도기에는 큰 접시·단지·분·병·사발·세 발 달린 그릇·벼루·그릇 뚜껑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1988년에 화룡 북대고분군 7호 무덤에서 출토된 삼채 병과 삼채 사발이다.<sup>47)</sup> 이들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발굴되었다. 삼채 병은 높이가 18.1cm로서 고령토로 된 흰 바탕흙을 물레를 사용하여 성형하였고, 삼채 사발은 높이가 5.4cm, 입 지름이 11.6cm되는 크기로서, 고령토와 노란 진흙을 섞어 물레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당나라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발해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磁器는 수량이 아주 적고 그마저 조각난 상태로 발견되었다. 상경성에서

47) 정영진, <1988년에 발굴한 북대발해무덤 및 3채그릇>(《발해사연구》2, 연변대학출판사, 1991).

延邊博物館・和龍縣文物管理所, <吉林省和龍縣北大渤海墓葬>(《文物》1994-1).

출토된 것으로 白磁 사발과 紫色 단지가 있다. 이러한 발해 자기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sup>48)</sup> 외국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絞釉 호리병(葫蘆瓶)도 있다. 이 병은 높이가 24.5cm로 갈색 교유를 흐르는 구름이 에워싸듯이 생동감 있게 발랐다.<sup>49)</sup> 위에는 도금한 구리 뚜껑을 덮었고 바닥에는 먹으로 ‘咸和’라는 발해 연호가 쓰여 있어서 9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발해 그릇은 중국에도 알려져 있었는데 당나라 蘇鶚이 지은 《杜陽雜編》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전해진다.

武宗皇帝 會昌 원년(841)에…발해가 馬瑙櫃와 紫瓷盆을 바쳤는데, 마노궤는 사방이 3척으로 꼭두서니처럼 짙은 붉은 색이었고, 공교하게 만든 것이 어디에도 비할 바가 없어, 神仙에 관한 책을 담아 장막 옆에 두었다. 자자분은 半斛 정도 들어갈 크기로 안팎이 투명하고 그 색은 純紫色이었다. 두께가 한치 정도 되어 이를 들어보면 마치 기러기 깃털을 드는 것 같았다. 임금이 이 그릇의 빛깔이 고결한 것을 좋아하여 仙臺秘府에 두어 약과 음식을 담도록 하였다. 후에 왕의 才人이 玉環을 던지다가 잘못하여 그릇을 조금 깼더니, 임금이 오랫동안 탄식하였다(《杜陽雜編》 권 下).

이 기록을 통해서 발해의 도자기 생산기술이 상당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발해에서 제작된 그릇의 우수성은 일본측 기록에도 보인다. 일본 조정은 876년말에 도착한 楊中遠 일행을 入京시키지 않고 이듬해 6월에 出雲國에서 귀국시키면서 발해에서 보내온 노리개와 玳瑁 술잔을 되돌려 보냈는데, 이를 본 通事 春日宅成이 과거에 당나라에 갔을 때에도 이렇게 진기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평을 하였다.<sup>50)</sup>

이상의 도기에는 대체로 3가지 전통이 엿보인다. 첫째는 말갈 전통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입술이 두 겹이고 몸통이 긴 단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계통의 단지에는 일반적으로 톱날같은 隆起文이 돌려져 있다. 둘째는 고구려

48) 金元龍·安輝濬, 〈渤海의 美術〉(《新版 韓國美術史》, 서울大 出版部, 1993), 207쪽.

49) 李汝寬 著·井垣春雄 譯, 〈渤海絞釉葫蘆酒瓶〉(《中國青花瓷器的源流》, 雄山閣, 1982).

50) 《日本三代實錄》 권 31, 陽成天皇 元慶 원년 6월 25일.

풍격을 지닌 것으로서 상경성에서 발견된 입이 나팔꽃처럼 벌어지고 몸통에 가로띠 손잡이가 달린 병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화룡 북대무덤에서 발견된 삼채 그릇들은 唐三彩를 본받은 것들이다.

다음으로 기와와 벽돌 생산을 살펴보자. 발해 기와에는 암키와·수키와·치미·귀면와·기둥밑 장식기와(柱礎裝飾瓦) 등이 있다. 이들 기와에는 유약을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이 있는데 유약은 녹유를 바른 것이 대부분이고 紫色 유약을 바른 것도 일부 있다. 유약을 바르지 않은 것은 대부분이 회색이다. 암키와의 겉에는 새끼줄무늬·그물무늬·마름모꼴무늬 등이 장식되어 있고, 안쪽에는 布目무늬가 많으며, 가장자리에는 손가락으로 누른 무늬나 連珠紋 또는 톱날무늬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sup>51)</sup>

수키와는 막새 기와(瓦當)가 대표적이다. 수막새의 문양으로는 연꽃잎무늬가 주종을 이룬다는 점에서 고구려 계승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고구려 막새 기와에서 보이지 않는 문양들도 나타나고 있다. 연꽃잎은 대체로 양식화되어 있는데 4잎에서 8잎 사이로서 6잎 짜리가 기본을 이루고 있다.<sup>52)</sup> 연꽃잎 사이에는 十자무늬·구슬무늬·V자형 무늬·삼각무늬·고사리무늬·꽃망울무늬·文字 등이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연해주 코르사코프카(Korsakovka)절터에서 출토된 것처럼 봉황새를 부조해 넣은 예도 있다.<sup>53)</sup>

발해 기와에는 문자를 찍거나 새긴 것이 다수 발견되어 주목된다.<sup>54)</sup> 이들은 주로 상경성·팔련성·서고성에서 출토된 것들로서, 숫자는 400개 정도에

51) 嚴長錄·楊再林, 〈延邊地區高句麗渤海時期的紋飾板瓦初探〉(《博物館研究》1988-2).

52) 李殿福, 앞의 글(1989), 272~275쪽.

류병홍, 〈발해유적에서 드러난 기와막새무늬에 대한 고찰〉(《조선고고연구》1992-4).

53) E.V. Shavkunov 著·宋基豪 譯, 〈不死鳥문양이 있는 발해의 막새기와〉(《美術資料》50, 국립중앙박물관, 1992).

문명대, 〈코르사코프카 불교사원지 발굴조사〉(《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 대륙연구소, 1994), 72~80쪽.

54) 孫秀仁, 〈唐代渤海의文字和文字瓦〉(《黑龍江古代文物》, 黑龍江人民出版社, 1979).

李强, 〈論渤海文字〉(《學習與探索》1982-5).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473~480쪽.

달하고 문자의 종류는 250종 이상이 된다. 발해 주변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문자 기와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발해문화의 한 특색을 이루고 있다. 문자는 한 글자가 대부분이지만 두 글자 이상 되는 것도 있다. 문자의 종류에는 一·三·九 등과 같은 숫자, 乙·丙·卯 등과 같은 干支, 王·尹·金·高 등과 같은 성씨, 昌·福·計·卯仁·俳刀 등과 같은 이름이 있는데, 이들은 기와 제작과 관련된 사항들을 적은 것으로 보인다. 절반에 가까운 글자는 한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은 정식 한자가 아니라 別體字나 판독이 잘 되지 않는 글자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종래에는 이들을 발해의 고유 문자로 보는 견해가 있었으나, 다른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것만을 토대로 발해에 고유 문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건물에 장식적 효과를 더해 주는 기와에는 치미·귀면와·기둥밑 장식기와 등이 있다. 치미는 지붕 용마루 양 끝에 올려 놓은 새 모양의 기와로서 吉祥과 辟邪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상경성·서고성·연해주 아브리코스절터 등에서 발견되었다. 상경성 제1절터에서 출토된 것은 길이 97cm, 높이 87cm의 크기로서 표면에 옅은 녹유를 칠하였다. 두 날개 부분에 각각 16개의 깃털을 표현하고, 몸통에는 인동무늬로 돈을새김을 하였으며, 날개와 몸통 사이에는 5개의 작은 구슬무늬를 꽃잎처럼 장식하였다. 제9절터에서 출토된 것은 길이 91cm, 높이 91.5cm로서 짙은 녹유를 칠하였는데, 몸통에 무늬가 없고 세부적인 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지만 기본 형태는 대체로 제1절터의 것과 동일하다. 아브리코스절터에서 출토된 것은 길이 75cm, 높이 80cm로서 유약을 바르지 않았다. 기본 형태는 상경성에서 출토된 것들과 통하지만 머리 부분에 龍을 새겨 넣은 것이 특색을 이룬다. 연해주 하산구역에서 발견된 佛板에 불상이 안치된 목조 건물이 나타나는데, 기와꼴이 잘 표현된 지붕의 양 끝에 치미가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는 송곳니를 드러내고 있는 용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아브리코스절터에서 출토된 것과 서로 통하는 면이 있다.

귀면와는 내림마루나 귀마루 끝에 달던 것으로서 악귀를 쫓으려는 벽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와는 상경성·서고성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상경성에서는 제1절터와 제9절터 그리고 제1궁전지와 제3궁전지 등에서 출

토되었다. 복원된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녹유를 발랐고 크기가 길이 33~43cm, 높이 23~27cm 정도이다. 기본 형태는 커다란 눈망울을 부라리고 있고, 입을 크게 벌려서 길다란 혀바닥과 툭 튀어 나온 이빨이 드러나 있다. 코는 입 위에 몽푹하게 드러나 있고, 귀는 큰 고리처럼 표현되어 있으며, 뒤쪽으로 뻗처럼 생긴 갈기가 돋아 있다. 전체적으로 귀신을 쫓으려는 사나운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지만, 안압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귀면와보다는 덜 세련되고 덜 양식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둥밑 장식기와는 발해에서 독특하게 발견되는 것이다. 커다란 고리 모양을 하여 기둥과 주춧돌이 만나는 부분을 씌워서 기둥을 장식하면서 비가 들이쳐 기둥이 썩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 기와는 몇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조립식으로 되어 있다. 곁에 연꽃잎을 새기기도 하였고, 녹유를 바른 것이 많다.

발해시대에 기와나 벽돌을 굽던 가마터가 발견된 사실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발해인들은 무덤이나 건축에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벽돌을 만들었다. 특히 바닥에 깔기 위해서 만든 방형이나 장방형 벽돌에는 보상화 무늬·인동무늬가 화려하게 장식된 것이 있는데, 통일신라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아주 유사하다. 이 밖에 상경성 성문 자리에서는 鬼面을 새긴 벽돌이 발견된 예가 있고, 정효공주무덤과 마적달무덤에서는 문자가 새겨진 벽돌도 출토되었다.

금속 공예품에는 쇠나 구리 또는 은이나 금으로 만든 것들이 많다. 중경관할의 鐵州에 속하였던 位城縣(지금의 茂山 지방)은 철의 생산지로 유명하였다. 발해가 멸망한 뒤에는 거란이 冶鐵 장인들을 중심으로 강제 이주시켜 이용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송나라 王曾이 지은 글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芹菜嶺을 지나 70리를 가면 柳河館에 이르는데, 그 옆에 柳河가 흐른다. 서북쪽에는 冶鐵하는 곳이 있어 발해인들이 많이 사는데, 유하에서 모래와 돌을 걸러서 제련하여 철을 만든다(《契丹國志》권 24, 王沂公行程錄).

814년에는 발해 사신이 당나라에 금과 은으로 만든 불상을 바쳤고,<sup>55)</sup> 836

년에는 발해에서 당나라의 허락을 얻어서 登州에 熟銅을 가져가 교역하였다.<sup>56)</sup> 연해주 아누치노(Anuchino)구역에 있는 노보고르데예브카(Novogordeevka) 산성은 조사 결과 발해시대에 커다란 수공업 중심지였음이 밝혀졌다. 이 곳에서는 흙으로 구운 거푸집·도가니·주물용 국자·씻물 찌꺼기(슬래그)·送風管 등이 발견되었는데, 도가니에는 청동 주물이 늘어붙어 있었다.

금속 공예품에는 쇠로 만든 것이 제일 많다. 여기에는 그릇·가위·자물쇠·삽·낫 등과 같은 일상 용품들, 투구·창·화살촉 등과 같은 무기들, 風鐸과 같이 절에서 사용되던 것들이 있다. 구리로 만든 제품에는 불상·거울·못·팔찌 등으로 도금한 것도 많다. 순금으로 만든 것에는 허리띠·귀걸이 등이 있다.

금속 공예품으로 특징적인 것이 허리띠이다. 허리띠는 여러 곳에서 출토되었는데, 和龍 河南屯에서는 순금제 허리띠와 귀걸이·팔찌·꽃장식 등이 발견되었고, 화룡 북대 2·9·28호 무덤 등에서 비교적 완전한 형태의 청동 허리띠가 발견되었다. 특히 하남둔에서 발견된 순금 세공품은 금 알갱이를 촘촘하게 붙인 鏤金 수법이 뛰어나다. 허리띠에서 특징적인 것은 띠꾸미개(鈎板)이다. 발해 유적에서 발견되는 띠꾸미개에는 주변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D자형·사각형 외에도 작은 구멍이 많이 뚫린 것이 있다. 이러한 종류는 종래에 연해주 일대에서 많이 발견되었지만, 근래에 들어 만주지역에서도 종종 출토되고 있는데 발해 띠꾸미개의 특색을 이루고 있다.

연해주 크라스키노성터 부근의 강가에서 발견된 靑銅俑은 발해인의 얼굴과 의상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sup>57)</sup> 이 인물은 두 갈래로 상투를 틀고 둥근 것의 저고리와 길이가 발등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를 입고 있다. 布帛으로 만든 띠를 가슴 아래에서 매어 길게 늘어뜨렸고, 그 위에는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袍를 입었다. 포 위에는 雲肩을 걸쳤고 발 끝이 올라가 둘로 갈라진 형태의 신을 신었으며, 손에는 원통같은 물건을 들고 있다. 이를 보고한 러시아 학자

55) 《冊府元龜》권 972, 外臣部, 朝貢 5, 元和 9년 정월.

56) 《冊府元龜》권 999, 外臣部, 互市 開成 원년 6월.

57) 김민지, 〈발해의 복식에 관한 연구(II)—러시아 연해주에서 발견된 청동용(靑銅俑)을 중심으로—〉(《韓國服飾學會誌》22, 1994).



는 관리의 모습으로 보았으나, 전체적으로는 여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청동으로 만든 騎馬人物像은 상경성에서 2개, 연해주 우수리이스크에서 1개가 출토되었으며, 대단히 양식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해주의 노보고르데예브카성터 등에서는 아주 작은 소형 장식물들이 다수 출토되고 있다.

1975년에 상경성 土臺子에서 발견된 사리함에 새겨진 四天王像도 주목된다.<sup>58)</sup> 방형의 銀盒 4면에 양각한 것으로 선이 가늘고 유려하게 표현되어 있다. 사천왕의 머리에는 頭光이 나타나 있고 몸에는 戰袍를 입고 손으로는 持物을 들고 있으며 발로는 마귀를 두 마리씩 밟고 있다. 천왕의 좌우에는 각각 두 명의 권속을 거느리고 있다. 여러 겹으로 된 이 사리함에는 銀絲로 상감하여 인동무늬를 표현한 漆匣도 포함되어 있다.

### 3) 음악과 무용

발해의 중앙 관청에 禮儀와 祭祀를 관장하던 太常寺가 있다. 이곳에서 음악과 무용을 관장하였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길이 없다.<sup>59)</sup> 다만 정효공주무덤의 서쪽 벽에는 3명의 樂師(樂伎)가 그려져 있어서 발해 악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발해 음악은 일본 기록에 많이 보인다. 사신으로 갔던 己珍蒙 일행이 740년 정월에 聖武天皇 앞에서 ‘본국의 음악’을 연주한 것이 발해 음악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sup>60)</sup> 사신 일행이 음악을 연주한 것으로 보아서 일행 중에 악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연주를 계기로 발해 음악이 일본에 처음으로 알려졌을 것이다. 발해 음악이 일본 조정에 전해져 최초로 연주된 것은 749년에 東大寺에서 개최된 법회에서 大唐樂·吳樂과 함께 渤海

58) 丹化沙, 〈黑龍江省寧安縣出土的舍利函〉(《文物資料叢刊》2, 1978).

59) 발해 음악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宋芳松, 〈渤海樂 小考〉(《東洋學》14, 檀國大, 1984).

宋芳松, 〈渤海樂의 音樂史學的 再照明—日本 六國史를 중심으로—〉(《韓國學報》53, 一志社, 1988).

60) 《續日本紀》권 13, 聖武天皇 天平 12년 정월 정사.

樂이 연주되었을 때이다. 이 무렵에 발해 음악이 정식으로 일본 궁중 음악의 하나에 속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뒤로 일본 조정에서는 발해 음악을 직접 배워올 필요성을 느끼게 됨에 따라 유학생 內雄을 파견하여 音聲(음악)을 배워오도록 하였는데,<sup>61)</sup> 이 사람은 763년에 귀국한 高內弓과 같은 인물로 추측된다.<sup>62)</sup> 이로부터 발해 음악은 일본 궁중음악에 포함되어 발해 사신들을 접대할 때에 수시로 연주되었다. 발해 사신을 위해서 763년에 東國樂을 연주하고, 772년에 ‘세 가지 음악’을 연주하였고, 777년에는 발해 사신들이 ‘본국의 음악’을 연주하였다. 그렇지만 기록에는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발해 사신들이 파견되었을 때마다 아마 발해 음악이 연주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731년 7월에 雅樂寮의 雜樂生 인원수를 정할 때에 백제·고려·신라 음악은 있으나 발해 음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809년 3월에도 역시 그러하였던 사실로 보아, 아악료에 있던 高麗樂師와 樂生들이 발해 음악을 연주한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 平安시대 중기에 외래 음악을 개편할 때에 중국과 인도 계통의 음악을 左方の樂, 삼국과 발해 음악을 右方の樂으로 편제하여 앞의 것을 唐樂, 뒤의 것을 高麗樂(狛樂)이라고 불렀는데,<sup>63)</sup> 여기서의 고려악은 한반도 계통의 음악을 총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861년 3월에 개최된 동대사 법회와 874년 3월에 개최된 貞觀寺 大齋會에서 연주된 고려악이나 863년 5월에 개최된 神泉苑 靈會에서 춘 高麗舞에는 발해 음악과 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928년(延長 6)에 太平樂의 답무로서 渤海樂이 연주되었다고 하는데,<sup>64)</sup> 이것도 역시 이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지금까지 일본에서 연주되고 있는 雅樂曲에 들어 있는 新靺鞨은 발해에서 전래된 것이라고 한다.<sup>65)</sup>

발해가 멸망한 뒤에 발해 음악은 중국의 宋나라와 金나라에도 이어졌다.

61) 《續日本紀》권 32, 光仁天皇 寶龜 4년 6월 병진.

62) 《續日本紀》권 24, 淳仁天皇 天平寶字 7년 10월 을해.

63) 吉川英史, 《日本音樂の歴史》(創元社, 1965), 66~67쪽.

64) 《歌儼品目》권 1, 異域樂名.

65) 酒寄雅志, 〈雅樂“新靺鞨”與渤海國〉(《走向國際化的日本》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天津人民出版社, 1995).

송나라에서는 孝宗 12년(1185) 3월에 발해 음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예가 있고, 송나라 陳暘이 지은 《樂書》 胡部에 나오는 鞞鞫舞란 것도 발해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 금나라 때에는 渤海敎坊이 있어서 발해 음악이 제도적으로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발해 악기로는 송나라 때에도 사용된 渤海琴이 있지만 실물은 전해지지 않는다. 정효공주무덤의 서쪽 벽에 그려진 3명의 악사 그림을 보면 각기 보자기에 썸 악기를 들고 있다. 보자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악기인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인 외형으로 보아서 앞에서부터 拍板, 箏篋, 琵琶를 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공후의 경우에는 보자기 밖으로 갈색의 길다란 자루가 나와 있고, 자루 위에는 꽃잎 모양의 매듭이 저 있으며 두 개의 매듭 끈이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발해 음악은 고구려 음악과 말갈 음악을 모두 흡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음악이 연주될 때에는 춤과 노래도 함께 따르기 때문에 음악과 무용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한 발해 음악에는 노래 및 악기 연주와 함께 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밖에 발해인들 사이에는 踏鉦라고 하는 춤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거란의 柳河館 근처에서 발해유민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묘사한 다음과 같은 기록에 보인다.

발해 풍속에 歲時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며 논다. 먼저 노래와 춤을 잘 하는 사람을 여러 명 앞에 내세우고 그 뒤를 남녀가 따르면서 서로 화답하여 노래부르며 빙빙 돌고 구르고 하는데 이를 踏鉦라 한다(《契丹國志》 권 24, 王沂公行程錄).

이는 발해에서 일반인들 사이에 춤추고 노래부르는 일종의 집단 무용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宋基豪〉

#### 4. 발해사 인식의 변천

발해는 전성기에 그 영역이 동쪽으로 沿海州, 서쪽으로 遼東地方, 북쪽으로 松花江까지 미쳤고, 남쪽으로 大同江과 龍興江(金野江)을 잇는 선을 경계로 신라와 이웃하고 있었다. 국가로 따진다면 오늘날의 중국, 북한, 러시아에 걸쳐 있었던 광대한 나라였다. 따라서 발해의 역사는 한국에서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발해가 빈번하게 사신을 파견하였던 일본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발해사는 단순히 한국사의 한 부분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금세기로부터 1994년 전반기까지 발표된 글들을 망라하면 1,500여 편이 되는데, 이를 국가별로 분류하면, 중국이 전체의 45%, 일본이 24%, 남한이 16%, 북한이 5%, 러시아가 10%를 각기 차지하고 있다.

〈발해사 연구 현황표〉

	남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계
1949년 이전	10		124	18	19	171
1950~1959	2	0	24	7	9	42
1960~1969	6	10	39	15	22	92
1970~1979	18	8	44	31	33	134
1980~1989	80	17	78	432	48	655
1990~1994전반	131	46	51	184	20	432
계	247	81	360	687	151	1,526
비율	16%	5%	24%	45%	10%	100%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연구사를 정리할 때에 어느 한 나라에만 비중을 두기가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에서의 발해사 인식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중국·일본·러시아에 관한 것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sup>1)</sup>

1) 연구 경향을 국가별로 개관한 것으로 다음 글들이 있다.

李龍範, 〈渤海史研究의 回顧와 國史〉(《韓國思想》1964-7).

浜田耕策, 〈渤海史をめぐる朝鮮史學界の動向—共和國と韓國の南北國時代論につ

## 1) 국내의 발해사 인식과 연구

먼저 국내에서 발해사 인식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겠다.<sup>2)</sup> 크게 보면 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는 발해를 兩面的으로 認識해 왔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한국사에서 제외하였다가 후기에 와서 발해의 역사를 재발견하는 커다란 전환이 있었다. 이 때에 발해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미완성인 채로 중단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발해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었으나 구체적 연구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실증적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80년대부터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보면 비록 시대적 배경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한국에서 북방 영토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던 시기에 발해에 대한 인식과 연구도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그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신라인들은 발해를 高句麗系 국가로 인식하였는가 하면 靺鞨系 국가로도 인식하였다.<sup>3)</sup> 이러한 인식은 崔致遠의 글 속에서도 뒤섞여 나타나고 있다. 그는 “옛날의 고구려가 지금의 발해가 되었다”<sup>4)</sup>고 하였고, “고구려 殘孽들이 모여서 발해를 세웠다”<sup>5)</sup>고 하였다. 여기에는 신라인 자신들이 멸망시킨 고구려의 잔당이 세웠다고 하여 발해를 낮추어 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

いて－)(《朝鮮學報》86, 1978).

薛虹, 〈外國的渤海史研究〉(《學習與探索》1982-6).

西川宏, 〈渤海考古學の成果と民族問題〉(《山陰考古學の諸問題》, 山本清先生喜壽記念論文刊行會, 1986).

李成市, 〈渤海史研究における國家と民族－‘南北國時代’論の検討を中心に－〉(《朝鮮史研究會論文集》25, 1988).

宋基豪, 〈渤海史 研究 動向〉(《韓國上古史學報》1, 1988).

송기호, 〈발해사, 남북한·중·일·러의 자국중심 해석〉(《역사비평》18, 1992).

- 2) 국내에서의 발해사 인식을 通時代的으로 개관한 것으로 다음의 연구가 있다.  
石井正敏, 〈朝鮮における渤海觀の變遷－新羅～李朝－〉(《朝鮮史研究會論文集》15, 1978).

한규철, 〈고려에서 독립운동기까지의 발해사 인식〉(《역사비평》18, 1992).

- 3) 宋基豪, 〈발해에 대한 신라의 양면적 인식과 그 배경〉(《韓國史論》19, 서울대, 1988).

4) 《孤雲集》권 1, 新羅王與唐江西高大夫湘狀 및 與禮部裴尙書瓚狀.

5) 《孤雲集》권 1, 上太師侍中狀.

지만, 이들이 발해를 고구려 계승국가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반면에 그가 지은 다른 글에서 “발해는 말갈족이 변성하여 세운 나라”<sup>6)</sup>라고 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발해가 말갈계 국가임을 천명하는 모순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면적 인식은 비록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도 반영되어 있다. 두 사서에는 발해를 靺鞨渤海, 渤海靺鞨, 靺鞨, 狄國, 北狄 등으로 표현하여 적대감을 나타낸 곳이 있는가 하면, 北國이나 渤海로 표현하여 다소 중립적 표현을 사용한 곳도 있어서 역시 발해를 대하는 태도에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발해가 존재하던 당시에 이미 신라인들이 양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 역사적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발해사회의 이중적 구조이다. 발해사회는 크게 고구려인과 말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둘째는 발해의 건국자인 大祚榮의 출신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아마 그는 말갈인의 혈통을 가지고 고구려 장수의 직책에 있었던 靺鞨系 高句麗人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셋째는 양국 사이의 외교관계를 들 수 있다. 발해에는 두 가지로 인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었지만 신라인들이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두 나라가 적대적인 때였느냐 우호적인 때였느냐 하는 외교적 상황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후삼국 통일을 기반으로 성립된 高麗는 기본적으로 신라 계승의식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으나, 때로는 같은 고구려 계승국가라는 점에서 발해가 주목되기도 하였다.<sup>7)</sup> 고려 초기에 발해유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였고, 934년에는 발해 세자 大光顯을 왕족으로 우대하였다. 이로부터 고려는 발해를 ‘婚姻한 나라’ 또는 ‘親戚의 나라’라고 부르는 동질의식을 가지게 되었다.<sup>8)</sup> 그리고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은 서역 승려를 後晋에 보내어 거란을 함께 쳐서 사로잡혀 있던 발해 왕을 구출하자고 제의하였고, 太祖 25년(942)에는 고려에 온 거란 사신을 붙잡아 유배시키기도 하였다.

6) 《孤雲集》 권 1, 謝不許北國居上表.

7) 趙仁成, 〈高麗 初・中期의 歷史繼承意識과 渤海史 認識〉(《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上, 一潮閣, 1994).

8) 《資治通鑑》 권 285, 後晋紀 6, 齊王 下, 開運 2년 10월.

고려 중기에도 尹彦顧의 表文이나 《高麗圖經》에서처럼 발해에 대한 관심이 표명되었다. 윤언이가 고려 인종에게 稱帝建元할 것을 청하자, 金富軾은 금나라를 격노시켜 고려를 치는 빌미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매도하였다. 이에 대해서 그는 다만 임금을 높이고자 하는 일이며, 신라와 발해가 연호를 사용하였지만 중국이 군사를 동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여기에서 그는 발해를 신라와 함께 중국과는 다른 존재로 파악하였음을 보여준다. 徐兢이 1124년에 지은 《고려도경》도 비록 중국인이 쓴 것이지만 당시 고려인의 역사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sup>10)</sup> 이 책에서는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국가로 다루었다. 그러나 고려 중기인 인종 23년(1145)에 金富軾이 지은 《삼국사기》에는 발해를 서술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라 중심의 역사인식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다가 후기에 들어서면서 발해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어, 《삼국유사》나 《帝王韻紀》에서와 같이 발해사가 한국사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一然이 忠烈王 7년(1281)경 찬술한 《삼국유사》는 신라 중심의 역사서로서 王曆篇에는 발해가 배려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에는 靺鞨渤海條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불완전성은 李承休가 충렬왕 13년(1287)에 지은 《제왕운기》에서 해소되었으니, 여기서는 발해사가 분명히 한국사의 한 줄기로 파악되어 있다. 이 밖에 일연이 충렬왕 4년(1278)에 지은 《歷代年表》<sup>11)</sup>나 14세기에 나온 鄭夢周의 《圃隱集》에도 발해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13세기 후반과 14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崔瀼의 《拙藁千百》에서처럼 신라 계승의식을 고수하는 흐름도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초기에 두 가지 흐름이 하나로 정리되면서 발해사가 배제되어 주변국의 역사로 전락하였지만, 그 후에 점차 인식이 바뀌면서 발해사를 재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겪었다.<sup>12)</sup> 대체로 이 과정은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9) 《高麗史》 권 96, 列傳 9, 尹瓘 附 尹彦顧.

10) 李佑成, 〈南北國時代와 崔致遠〉(《韓國의 歷史像》, 創作과批評社, 1983), 150쪽.

韓永恩, 〈高麗圖經에 나타난 徐兢의 韓國史體系〉(《奎章閣》 7, 서울대, 1983).

11) 蔡尙植, 〈至元 15年 仁興寺刊 歷代年表와 三國遺事〉(《高麗後期佛教史研究》, 一潮閣, 1991), 165~166쪽.

12) 李萬烈, 〈朝鮮後期の 渤海史認識〉(《韓祐昞博士停年紀念 史學論叢》, 지식산업

첫째 단계는 成宗 15년(1484)에 간행된 《東國通鑑》의 역사인식으로서, 여기서는 발해사를 한국사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신라에 이웃하였던 역사로 파악하였다. 고려 태조가 거란에 대해 행한 정책을 두고 “거란이 발해에 신의를 저버린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발해를 위하여 보복을 한다고 하는가”<sup>13)</sup>라는 史論을 달아 비판하였는데 바로 이 책이 반영하고 있는 역사의식이라고 하겠다. 그러면서도 이 책에는 발해사가 간단히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와 이웃하였던 인접국가의 역사로서 다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15·6세기를 지나 17세기까지 근간을 이루고 있었으며 《東國史略》(林祥, 16세기초)을 비롯하여 《東史纂要》(吳湜, 1606), 《東史補遺》(趙挺, 1646), 《東國通鑑提綱》(洪汝河, 1672), 《東國歷代總目》(洪萬宗, 1705) 등에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歷代紀年》(鄭述, 17세기초), 《東史會綱》(林象德, 1711), 《同文廣考》(李敦仲, 18세기 후반) 등도 이러한 계열에 속한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새로이 나타나는 발해사 인식은 이러한 기존의 인식을 수정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이 시작되는 둘째 단계는 전기와 후기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기에는 고구려 영토를 계승하였던 나라로 발해를 인식하였으니, 《東國地理誌》(韓百謙, 1615)가 그 선구를 이루었다. 한백겸이 이 책을 저술한 동기 중의 하나가 조선이 왜 약한 나라가 되어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역사적 원인을 찾는 데에 있었다. 이에 따라 그는 그 원인을 고구려 영토의 상실에서 찾게 되었고, 이러한 관심 속에서 발해가 고구려 영토를 계승한 나라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결과 발해가 신라에 부속된 역사가 아니라 고구려에 부속된 역사로 파악되어 발해사가 처음으로 고구려 역사 뒤에 붙여져서 설명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東事》(許穆, 1667), 《星湖僿說》(李瀾, 1720년대~1750년대), 《東史綱目》(安鼎福, 1754~1759) 등으로 계승되었다.

사, 1981).

宋基豪, 〈조선시대 史書에 나타난 발해관〉(《韓國史研究》 72, 1991).

김혁철, 〈실학자들의 발해력사관〉(《발해사연구논문집》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

13) 《東國通鑑》 권 13, 고려 태조 25년 史論.



그러나 전기에는 발해사가 우리 역사의 일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적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후기에 들어와 발해가 고구려 영토를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건국자도 고구려유민이었다는 인식이 등장하면서 발해사를 적극적으로 한국사의 일부로 다루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는 《疆界考》(申景瀾, 1756)가 그 선구를 이루었다. 신경준은 新羅古記나 최치원의 글을 인용하여 乞四比羽는 말갈인이고 乞乞仲象은 고구려인이라 하였다. 또 고구려가 망한 지 10년 후에 대씨가 고구려유민을 불러일으켜 옛 땅을 회복하였고, 바다를 건너 당나라의 刺史를 죽임으로써 前王(고구려왕)의 치욕을 설욕하였으며, 忽汗州를 평양성이라 부른 것은 옛 도읍지를 못잊어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특히 고구려왕을 前王이라 표현한 것은 발해가 고구려 계승국가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매우 주목된다.

그의 역사인식은 《東國文獻備考》(신경준, 1770)의 〈輿地考〉를 집필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는 여기서 발해와 定安國을 扶餘·東沃沮·報德國 등과 함께 고구려 속국으로 다루었다. 여기서 속국이란 말은 服屬國과 繼承國의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발해가 고구려 계승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대조영은 고구려 옛 장수로서 그 유민에서 일어나 전왕의 땅을 모두 회복하였으니, 그는 曠世의 호걸이라고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신경준의 발해사 인식은 《紀年兒覽》(李萬運, 1778), 《靑莊館全書》(李德懋, 18세기 후반), 《燃藜室記述》(李肯翊, 1797), 《大東掌攷》(洪敬謨, 憲宗代) 등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셋째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주로 고구려 계승국에 초점을 맞추어 발해사를 인식하던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발해를 통일신라와 대등하였던 독립국으로 다루거나 발해가 신라보다 우위에 있었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 때에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삼국이나 통일신라와 대등하게 世家, 世紀 등으로 취급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南北國時代를 설정하는 경우이다.

전자는 《東史》(李種徽, 18세기 후반)에서 출발하였다. 이 책은 비록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紀傳體의 형식으로 발해사를 서술한 최초의 역사서에 해당한다. 그 편목을 보면 삼국 이전의 역사는 本紀로 처리하였지만 삼국은 본기에 서술되지 않았으며, 부여·발해·가야의 역사가 세가로 다루어졌다. 따라

서 여기서는 발해를 신라와 대등한 수준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종래와 같이 삼국보다 한 단계 아래인 부여·가야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해하였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발해사를 고구려의 속국으로 인식하던 단계에서 나아가 독립된 나라의 역사로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더구나 이종휘는 우리 나라 땅이 발해시기에 최대 판도를 이루었다가 고려 이후에 축소되었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가 약한 나라로 전락한 것이 발해의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상이 고구려 옛 땅에서 발해 옛 땅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앞 시대에 한백겸·이익·신경준 등이 우리 나라가 약한 나라가 된 이유를 고구려 영토의 상실 때문으로 보고 발해의 건국을 가리켜 ‘고구려 영토를 잃었다’고 표현하였던 것과는 크게 다르다. 이들이 발해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라측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이러한 설명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고구려 땅을 되찾아야 한다는 高句麗故土 회복의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종휘는 이와 달리 발해 땅을 되찾아야 한다는 渤海故土 회복의식을 표명함으로써 발해사 인식면에서 커다란 전환점을 이루었다.

이종휘의 이러한 발해사 인식은 《東史世家》(洪奭周, 1820년대)에서 더욱 강화되어 나타났다. 홍석주는 발해사를 신라·고구려·백제의 역사와 함께 世家로 다루어 삼국과 발해를 동등하게 보았다. 《海東繹史》(韓致彞, 1814)와 《海東繹史續》(韓鎭書, 1823)도 역시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한치윤은 발해사를 世紀로 다루어 신라사와 동등하게 취급하였고, 한진서도 〈古今疆域圖〉에서 삼국과 함께 발해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 丁若鏞은 체계적인 역사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발해사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는 과거시험에서 발해의 땅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이미 피력한 바 있다. 그의 발해사 인식이 구체화된 것은 《疆域考》(1811, 1833)에서이다. 그는 한백겸의 설을 따라 한강을 경계로 하여 북쪽에는 고조선·4군·고구려·발해로 이어졌고, 남쪽에는 삼한이 백제·신라·가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북방 계열과 남방 계열의 역사를 거의 동등하게 다룬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후자는 《渤海考》(柳得恭, 1784)가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유득공은 서문에서 고려가 발해를 신라와 동등하게 다루어 남북국사를 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여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신적 의식을 담았다. 이러한 의식은 《大東地志》(金正浩, 1864년경)로 이어졌다. 김정호는 단군조선에서 고려까지의 역사를 다룬 〈方輿總志〉에서 발해사를 독립된 항목으로 다루었으며, 〈渤海國〉에서는 삼한-삼국(신라·가야·백제)-삼국(고구려·신라·백제)-남북국(신라·발해)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고대사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두 흐름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흐름이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나타나지 못하고 각기 독립적이었다는 것은 이 당시 발해사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장차 이 두 부류가 하나로 융합되어 고대사 체계가 완성되었어야 했는데, 19세기 초반을 지나면서 더 이상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중단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 후기의 발해사 인식은 미완의 형태로 끝나버림으로써 다음 세기로 과제가 넘겨지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 한껏 고조된 발해사 인식은 비로소 발해사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낳게 하였다. 발해사에 대한 관심이 주로 영토적인 데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자연히 地理考證으로 나타났다. 발해의 지리에 대해서는 이미 《동국지리지》에서부터 독자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동사회강》·《동사강목》 등으로 이어졌지만, 19세기초에 정약용·한치윤·한진서에 이르러서 탁월한 업적이 나오게 되었다. 특히 《해동역사속》에 실린 지리고증은 후에 徐相雨를 통하여 중국에 소개되어 《渤海疆域考》(서상우 輯, 1925)라는 이름으로 그 곳에서 간행됨으로써 중국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리고증의 주요 논점은 建國地 및 5京·15府의 위치, 발해의 서쪽 및 남쪽 경계문제였다. 건국지에 대해서는 太白山과 東牟山이 과연 어디인가 하는 점이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敦化市 부근의 額敦山으로 비정한 정약용의 견해가 타견으로 현재의 통설에 가장 가깝다. 5경·15부의 위치 비정은 《遼史》地理志나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明·淸시대의 문헌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책들은 발해가 마치 遼東지방에

있었던 것처럼 서술하였는데, 그러한 오류가 왜 발생하였는가를 규명하고 이들의 원래 위치를 역시 현재의 통설과 거의 비슷하게 비정한 것이 《강역고》와 《해동역사속》이다.

그리고 서쪽 경계문제와 관련해서는 요동지방이 과연 발해의 영토였는가 하는 점이었다. 또 남쪽 경계문제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가 거론되었다. 첫째는 대동강 북쪽에서 압록강 남쪽까지가 과연 발해의 땅이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신라와의 경계를 이룬 泥河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며, 셋째는 《新唐書》에 弁韓이 발해 땅이 되었다고 한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이상과 같은 지리고증에서 비교적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남길 수 있었다.

이렇게 발해사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본격적인 학문연구의 대상으로 끌어올린 것은 중국을 비롯한 주변의 어느 나라보다도 시기적으로 앞선다. 특히 이들이 《遼史》地理志의 기록에 오류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힌 것은 당시 중국과 조선을 통틀어 처음으로, 발해의 지리고증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발해사 연구는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증적 연구는 19세기 중반 이후에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조선시대의 渤海觀은 15·6세기까지의 인식이 17세기 초반, 18세기 중·후반, 19세기 초반을 경계로 획을 그으면서 변화하다가 19세기 중반부터 퇴조해 버렸다. 각 시기마다 변화를 가져오게 된 직접적 계기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7세기 초반의 경우 16세기말에서 17세기초에 걸친 여러 차례의 外亂 때문이었으며, 18세기 중·후반은 18세기 초반에 세워졌던 定界碑를 둘러싼 북방영토 문제 때문이었다. 특히 이 시기에 들어와 종래의 高句麗故土 회복의식이 渤海故土 회복의식으로 전환된 것은 발해사를 적극적으로 우리 역사로 인식한 결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발해사 인식은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장기간 침체 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개화기의 교과서들은 三韓正統論의 영향을 크게 받아 삼국통일을 강조함으로써 발해사 인식은 크게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발해사를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신라사에 덧붙여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sup>14)</sup> 다만 《歷史輯略》(1905)을 편찬하면서 발해사를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였던 金澤榮이 나중에

일본측의 발해 자료를 많이 인용하여 《韓國歷代小史》(1922)를 다시 간행한 것이 돋보인다.

한동안 침체되었던 발해사 인식이 다시 크게 고양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의 일이다. 특히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과 연계되면서 滿洲지역의 北方史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게 되었는데,<sup>15)</sup> 이러한 모습은 朴殷植·申采浩·張道斌·權惠圭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박은식은 《渤海太祖建國誌》(1911)를 발표하였으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아서 그의 발해사 인식을 파악할 길이 없다. 신채호의 발해사 인식은 《讀史新論》(1908)과 《朝鮮上古史》(1931) 總論에 잘 나타나 있다. 그의 발해사 인식은 유득공과 이종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는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미를 격하시키고 발해를 단군·부여·고구려의 정통을 계승한 국가로 파악하여 ‘兩國時代’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증적 연구와 역사 서술로 이어지지 못하고 史論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삼국통일 평가와 발해사 인식은 훗날 북한의 역사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신채호에게서 영향을 받아 국사 개설에서 남북국시대를 설정하는 예들도 보인다. 장도빈은 《國史》(1916·1946)에서 ‘南北國’을 설정하였고, 권덕규의 《朝鮮留記》(1924)와 黃義敦의 〈上古時代〉(1943)<sup>16)</sup>에서 각기 ‘南北朝’를 설정하였다.

한편으로 大倭敎 계통에서는 남방사보다 북방사를 높이 평가하여 만주에서 일어난 단군조선·부여·고구려·발해 등을 중시하였으며, 발해 수도 東京城 부근에 1933년 渤海農場을 세워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족정신을 양양한다는 목적의식에 사로잡혀 북방사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면도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발해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다만 장도빈의 연구가 눈에 띄일 뿐이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渤海太祖》(1926)를 발표하였고, 해방 후에도 《大韓歷

14) 김영하, 〈한말·일제시기의 신라·발해사론〉(《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 24, 1992), 7~9쪽.

15) 韓永愚, 《韓國民族主義歷史學》(一潮閣, 1994).

16) 黃義敦, 〈上古時代〉(《半島史話と樂土滿洲》, 新京; 滿鮮學海社, 1943).

史》(1959), 《國史概論》(1959)에서 발해사를 지속적으로 비중있게 다루었다. 이러한 작업에는 신채호의 영향이 컸으며, 이와 함께 그가 망명지에서 유적을 직접 답사하였던 경험도 크게 작용하였다. 그는 1912년 경에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한 뒤에 우수리이스크(송왕령)지역의 성터를 답사하여 이곳을 고구려 柵城 또는 발해 東京 소재지로 추정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통설과는 다르지만, 한국인 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연해주 유적을 답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큰 것이다.<sup>17)</sup>

해방이 되면서 발해사 연구는 남·북한에서 각기 개별적으로 재개되었다. 남한에서는 1960년대부터 발해사 연구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60년대에 발표된 글들에서는 기왕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서 한국사와의 연결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발해 왕실을 고구려 桂婁部와 연결시켜 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70년대에 이르러 발해의 社會構成과 遺民史의 연구에 상당한 진척을 보았지만, 오히려 발해사를 한국사에 넣는 데에 주저하였던 면도 보인다.<sup>18)</sup> 이 당시의 연구에는 과거 일본인들의 연구 성과가 주요한 토대가 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 다수의 학자들이 참여하였다.<sup>19)</sup> 그리고 근년에는 일련의 석사논문들이 발표됨으로써 연구 인력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 분야도 다양화되었다. 역사학 분야에서 대외관계·유민·사회구성 등에 관한 연구가 진척되었으며, 중국측의 고고학 자료도 직접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문학·음악·회화·조각·복식·건축 등의 인접학문으로까지 연구 범위가 확대되었다.<sup>20)</sup>

아울러 이러한 성과들은 발해사가 한국사에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여야 하는가 하는 南北國時代論이 더욱더 심층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sup>21)</sup> 근년에 들어서 많은 개설서에서 남북국시대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경

17) 宋基豪, 〈沿海州의 渤海遺蹟 研究 動向〉(《韓國民族史의 再照明》, 제5회 韓國民族史 국제학술심포지엄, 1992), 32쪽.

18) 李龍範, 《中世東北亞細亞史研究》(亞細亞文化社, 1976), 27~29쪽.

19) 宋基豪·韓圭哲·盧泰敦·金渭顯·徐炳國·崔茂藏 등이 참여하였고 林相先과 金恩國 등이 뒤를 잇고 있다.

20) 문학사에 趙東一·金武植, 음악사에 宋芳松, 미술사에 安輝濬, 불상연구에 車玉信·宋基豪·全虎兌, 사찰건축에 이병건, 복식사에 金玟志 등이 있다.

21) 1991년 11월 30일에 한국고대사연구회 주관으로 ‘南北時代論의 기초적 검토’라

향이 늘어나면서 발해사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그렇지만 발해사는 한국사에서 아직도 확고한 자리를 잡지 못한 채로 있다. 이것은 삼국통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국사에서 과연 신라와 발해를 동등하게 다룰 수 있겠는가 하는 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문제들을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서의 발해사 연구<sup>22)</sup>도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 1962년에 발표된 글에서 발해가 모든 면에서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명제를 제시한 것이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였다.<sup>23)</sup> 문헌연구를 통한 이러한 주장은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sup>24)</sup> 이러한 연구들은 발해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발해사를 한국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70년대초까지 문헌과 고고학의 두 방면에서 연구의 기본틀이 마련됨으로써, 그 후의 연구들은 이들의 주장을 보강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당시의 연구에는 문헌사에서 정약용과 金毓黻의 업적을 많이 수용하였고, 고고학 자료는 60년대 전반에 중국학자들과 공동으로 만주지역을 조사한 것이 바탕이 되었다.

북한에서는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발해사 연구도 1970년대에 침체를 보이다가 80년대 들어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80년대 후반에는 발해사 연구 기구와 인력이 대폭 확충되어 연구 성과도 더욱 늘어났다.<sup>25)</sup> 이 밖에 발해 건축사에 관한 논문이 60년대 이래 발표되어 주목을 받았다.<sup>26)</sup>

---

는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이 때에 발표된 논문들이 이러한 논의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 24(1992) 참조.

22) 송기호, 〈北韓의 渤海史・統一新羅史 研究〉(歷史學會 編, 《北韓의 古代史研究》, 一潮閣, 1991).

한규철, 〈북한의 발해사 연구〉(《북한의 고대사 연구와 성과》,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4).

23) 박시형, 〈발해사 연구를 위하여〉(《력사과학》 1962-1).

24) 주영현, 《발해문화》(사회과학출판사, 1971).

25) 문헌학자로서 張國鍾・蔡泰亨・孫永鍾・김혁철・玄明浩 등과 고고학자로서 金宗赫・리준걸・金志哲 등이 80년대에 들어서 새로 가세하였다.

26) 이 방면에는 장상렬이 발표한 논문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80년대에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고구려 계승의식, 그리고 고려에의 계승성에만 너무 집착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방면의 연구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여기에만 매달림으로써 논증에 무리를 범하고 있고, 발해사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거의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료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연구의 실증성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후대에 엮어진 《陝溪太氏族譜》의 〈渤海國王世畧史〉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사료로 이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발해가 고려를 계승하였다는 근거로 삼기도 하였다.<sup>27)</sup> 그리고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비판없이 받아들여 ‘고려 후국’을 설정하고 성천에서 신의주로 도읍을 옮겼다고 주장하는 것도 볼 수 있다.<sup>28)</sup>

이와 연관되는 것이지만 또 하나의 경향으로서 과거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연구 수준으로 회귀하려 하는 점이 눈에 뜨인다. 檀君陵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이미 드러났듯이 금세기 들어와서의 과학적 연구 성과들을 포기하고 전근대 사학의 수준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래에 와서 실학자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는 실학자들의 견해를 비판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입론의 근거로 삼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고고학에서는 만주의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1980년대 들어와 함경도지역에서 발해 유적을 찾는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sup>29)</sup> 그 결과 상당수의 유적들을 새로이 확인하였고, 문헌사보다는 이와 같은 새로운 고고학 자료들이 우리들에게는 더 유용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咸鏡南道 新浦

27) 박영해, 〈발해의 대외관계에 대하여〉(《역사과학논문집》 1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7), 197쪽.

채태형, 〈「협계태씨족보」에 실린 발해사관계 사료에 대하여〉(《발해사연구논문집》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

김성호, 〈발해와 후기신라의 관계〉(위의 책).

28) 장국중, 〈발해의 ‘고려후국’의 존립과 그 수도에 대하여〉(《역사과학》 1992-2).

29) 리준걸, 〈함경남북도 일대의 발해 유적 유물에 대한 조사 보고〉(《조선고고연구》 1986-1).

박진욱, 〈최근년간 우리 나라 동해안일대에서 발굴된 발해유적들과 그 성격에 대하여〉(《연변대학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논문집》, 1989).



市 梧梅里절터는 특히 주목되는 유적이다. 그러나 조사보고서가 너무 간략하여 유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고구려의 계승성을 설명하려는 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고구려 유적과 구별되는 편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2) 국외의 발해사 인식과 연구

이상으로 근년에까지 한국에서 전개되어 온 발해사 인식과 연구 경향을 살펴 보았다. 이제 국외로 눈을 돌려 보겠다. 중국에서의 발해사 인식은 《舊唐書》渤海靺鞨傳과 《新唐書》渤海傳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唐會要》·《冊府元龜》·《五代會要》·《資治通鑑》 등은 전자를 따르고 있고, 《玉海》·《文獻通考》·《金史》 등은 후자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두 역사서에서는 발해사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채 靺鞨의 요소와 高句麗의 요소가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문헌들도 이러한 서술을 답습함으로써 새로운 역사인식이 별로 형성되지 못하였다.

발해사 연구는 19세기에 曹廷杰, 景方昶 등이 지리고증을 하면서 단초를 열었다. 그러나 전문적 연구는 금세기초에 들어와서 비롯되었다.<sup>30)</sup> 특히 발해에 관한 거의 모든 문헌들을 망라하고 고증도 정밀하게 한 연구도 나와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국학자들의 발해사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sup>31)</sup> 해방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는 발해사 연구의 소강기였다. 이 기간에 貞惠公主무덤, 河南屯무덤과 같이 중요한 유적이 조사되기는 하였지만, 체계적이지 못하고 우발적인 것이었다.

문화혁명이 끝나고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는 1970년대말부터 모든 학문 분야에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발해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1980년 이후에 발표된 글이 616편에 달하여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것만 보아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sup>32)</sup>

30)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唐宴, 黃維翰, 金毓黻 등이 있다.

31) 金毓黻, 《渤海國志長編》(華文書局, 1934).

32) 주요 연구자로서는 王承禮·魏國忠·劉曉東·孫玉良·陳顯昌·朱國忱·張泰湘

전반적으로 볼 때 중요한 연구 주제로는 발해사의 귀속문제·대외관계·지리고증 등이 있고, 그에 못지 않게 고고학적 연구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33)</sup> 특히 성터·무덤·절터·窯址 등을 조사·발굴한 고고학 자료는 발해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80년대 이후에 조사된 대표적 유적으로 貞孝公主무덤·三陵屯 2호무덤·北大高분군·東清高분군·上京城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의 발해사 연구는 특이한 점이 있다.<sup>34)</sup> 한국이나 중국·러시아에서는 자기 역사의 일부로서 발해사를 다루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도 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일본의 대외관계사라는 측면 외에도 일제시대에 만주를 지배하였던 경험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년보다도 오히려 일제시대에 발해사 연구가 활발하였음이 통계 자료로도 확인된다.

과거 《續日本紀》를 비롯한 일본의 역사서들은 발해를 고구려계 국가로 보았다. 발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19세기말에 시작되었고, 일제시대에 들어와 만주 침략과 연계되면서 주로 지리고증과 고고학적 조사에 연구의 중점이 두어졌다. 고고학 성과로서 東京城(上京城)·西古城·八連城(半拉城) 등을 조사하여 발해의 주요 수도들을 확인하였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sup>35)</sup> 그러나 해방이 되고 나서 1960년대까지는 소강 상태였다. 연구 내용에서 볼 때에 일제시대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앞 시기의 연구자들이 그대로 활동하던 시기였다<sup>36)</sup>.

1970년대 이르러 전후 세대로 구성된 새로운 연구자들이 등장하였다. 이

·鄭英德·孫進己·孫秀仁·王俠 등이 있고, 이 밖에 張高·王成國·羅繼祖·宋德胤·丹化沙도 여러 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조선족 학자로서 方學鳳·鄭永振·金香 등이 있다. 그리고 林樹山 등은 러시아 논문을 지속적으로 번역하여 소개하는 데에 공헌하고 있다.

33) 西川宏, 〈中國における渤海考古學の成果と課題〉(《青丘學術論集》3, 1993).

34) 鈴木靖民, 〈日本における戦後の渤海史研究—研究の動向と課題—〉(《발해의 민족형성과 연구사》, 발해사 국제학술회의 발표요지, 1993).

酒寄雅志, 〈近代日本と渤海史研究〉(위의 책).

35) 이 시기에는 鳥山喜一·三上次男·駒井和愛·齋藤優·和田清·津田左右吉 등과 같은 연구자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36) 이들과 함께 日野開三郎, 新妻利久 등이 활동하였다.

시기에 와서는 고고학 자료를 직접 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문헌사가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sup>37)</sup> 이에 따라 연구의 내용이 과거와는 달라졌으며, 일본의 대외관계와 정치사 및 발해의 사회구조를 밝히는 데에 중점이 두어졌다. 발해사회 가운데에서도 首領制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사회의 구조를 해명하는 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를 보겠다.<sup>38)</sup> 러시아에서 발해사에 관한 관심은 19세기에 활동한 연구자들에게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sup>39)</sup> 그로부터 20세기 전반까지는 연해주의 발해유적들에 대해 산발적인 조사가 진행됨으로써 향후의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발해사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이다.<sup>40)</sup>

1958년에 코프이트(Kopyto)절터를 발굴하면서 연해주에서 체계적 발굴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샤이가(Shaiga)성터에 대한 조사가 중심을 이루면서 금나라의 유적에 관심이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발해유적에 관심이 덜 기울여졌다. 이후 발해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37) 일본사 전공자로서 石井正敏・鈴木靖民・酒寄雅志 등이 있고, 한국사 내지 중국사 전공자로서 古畑徹・河上洋・李成市・浜田耕策 등이 있다. 이 밖에 小嶋芳孝와 西川宏 등의 연구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38) 小島武男, <ロシアに於ける渤海研究者及び文獻について> (《史學》10-1, 三田史學會, 東京, 1930).

林樹山・姚鳳, <蘇聯對渤海國的研究> (《中國史研究動態》1981-12).

薛虹, <蘇聯的渤海史研究—兼評蘇聯對渤海國的研究—> (《中國史研究動態》1983-1).

T. A. Vasil'eva, <우리나라 문헌을 통해서 본 연해주 발해 유적 연구사> (《소련원동 중세 고고학의 새로운 자료》, 소련과학원 원동지부 원동민족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 블라디보스톡, 1989).

宋基豪, <沿海州의 渤海遺蹟 研究 動向> (《韓國民族史의 再照明》, 제5회 韓國民族史 국제학술심포지엄, 1992).

예. 뵤. 샤브꾸노프, <러시아에서의 발해사 연구> (《발해의 민족 형성과 연구사》, 발해사 국제학술회의 발표요지, 1993).

39) 비추린(N. Ia. Bichurin) 등이 있다.

40) 이 때부터 아클라드니코프(A. P. Okladnikov)와 그의 제자인 샤브꾸노프(E. V. Shavkunov)가 연구를 주도하였다. 특히 샤브꾸노프는 전체 연구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볼딘(V. I. Boldin), 세메니첸코(L. E. Semenichenko), 이블리에프(A. L. Ivliev) 등의 연구자들을 배출한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그 사이에 성터와 주거지들이 다수 발견됨으로써 상당한 자료가 축적되었고,<sup>41)</sup> 이를 토대로 고고학적으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러시아측 연구의 특색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해보면 고고학에 관한 것이 70% 이상에 달한다. 연구자들은 대부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러시아과학원 원동지부 원동민족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다.<sup>42)</sup>

### 3) 주요 연구 주제

이상으로 각국의 발해사 인식과 연구 동향을 살펴 보았다. 전체적으로 개괄해 보면 발해사 연구는 1980년대에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이후에 발표된 글이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중심을 이루어 온 주제는 발해사의 歸屬문제, 지리고증, 대외관계, 고고학적 조사와 연구, 내부 사회의 여러 양상들, 유민 활동 등이다.<sup>43)</sup> 전체 글을 대략적으로 분류해 보면, 고고학 분야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대외관계 분야이다. 이어서 종족구성, 지방사회, 경제·정치제도, 문화 등과 같은 내부구조 해명이 있고, 그 다음으로 지리고증, 유민, 귀속문제, 번역물, 연구사 정리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 가운데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 온 부분이 발해사의 귀속

41) 연해주 유적 목록 및 참고문헌은 다음 책에 망라되어 있다.

A. G. Striuchenko 등 공저, 《연해주의 역사유적 및 문화유적—자료 집성—》 2, 고고유적편(러시아과학원 원동지부 원동민족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 1991).

42) 볼딘, 세메니첸코, 디야코바(O. V. D'iakova), 이블리에프 등이 있다.

43) 발해사 연구 성과를 주제별로 개관한 것들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景愛, 〈戰前東北歷史地理研究述評〉(《學習與探索》1981-4).

諸爲, 〈國內渤海史研究近況介紹〉(《學習與探索》1982-5).

孫秀仁, 〈新中國時期渤海考古學的進展〉(《黑龍江文物叢刊》1982-2).

王成國, 〈近年來國內研究渤海史概況〉(《中國史研究動態》1982-10).

丹化沙, 〈渤海歷史地理研究情況述略〉(《黑龍江文物叢刊》1983-1).

송기호, 〈발해사 연구의 몇가지 문제점〉(《韓國古代史論》, 한길사, 1988).

宋基豪, 〈발해 城址의 조사와 연구〉(《韓國史論》 19, 國史編纂委員會, 1989).

鄭永振, 〈최근년간 중국동북지역에서의 발해유적 조사 발굴과 발해사 연구동향〉(《韓國上古史學報》 9, 1992).

문제이지만, 전적으로 이것만 다룬 글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大祚榮의 出自나 발해의 종족 구성, 대외관계, 문화 성격 등 다른 여러 방면의 연구도 직·간접적으로 이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발해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인식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가 되며, 발해사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

금세기에 들어 각국에서 진행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高句麗 계승국가로 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靺鞨系 국가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기보다는 현재의 국가적 이해 관계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지배층을 중심으로 보려는 전통적 역사관과 피지배층을 중심으로 보려는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적 차원에서보다는 국가별로 견해가 갈라지는 특성이 있다. 전자는 주로 남·북한과 일본에서 보는 시각이며, 후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견지하는 시각으로 정리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그룹 안에서도 관점들이 조금씩 다르다. 똑같이 고구려 계승국가로 보지만, 북한에서는 영토·주민·문화 등 모든 면에서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하여 고구려 일변도로 기울고 있어서 그만큼 경직성을 띠고 있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고구려 계승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동의하면서 南北國時代라는 명칭을 사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보다 강도는 약하지만, 國書에 나타나는 고구려 계승의식, 지방제도면에서 고구려와 발해의 연속성을 추적함으로써 고구려계 국가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난다. 똑같이 말갈계 국가로 보더라도 말갈족의 귀속문제에서 시각이 갈라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말갈족을 중국에 속하는 소수민족의 하나로 보는 데에 반해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원동 소수민족의 하나로 보려 하고 있다. 따라서 발해사를 각기 자기 역사의 일부로 다루려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에서는 발해가 粟末靺鞨族을 주체로 한 정권이며, 심지어는 독립국이 아닌 당나라의 일개 지방정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실이 연구의 기본

전제가 되어 있을 정도이다. 근래에는 고구려도 중국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말갈계 국가이건 고구려계 국가이건 간에 중국사의 일부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up>44)</sup>

따라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모두 발해를 자기 역사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연구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글들을 보면 이러한 주장들이 아직도 실증적 토대 위에서 설득력있게 전개되어 온 것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그 예로서 중국에서 1970년대부터 제기된 것으로 발해가 당나라 지방국가였다는 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발해인들이 賓貢科에 응시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허구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빈공과란 신라인이나 발해인과 같은 외국인을 위해서 특별히 설치한 것이기 때문이다. 발해는 대외적으로 당나라로부터 冊封을 받았고 당나라에 朝貢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는 당나라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있었던 왕국이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皇帝國의 면모를 원용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발해는 대외적으로 당나라에 臣屬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황제국의 질서를 일부 유지하려 한 二重體制를 취하고 있었던 엄연한 독립국이었다.

그러면서 발해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던 나라였다. 고고학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고구려·말갈·당나라 문화 요소 등이 서로 융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역사적 계승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발해인의 생활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발해인들의 의식은 바로 문헌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문헌 자료에서는 지속적으로 고구려 계승의식만이 나타날 뿐이다.

건국 집단의 구성이나 지배 집단의 姓氏 구성에서 고구려 계통의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文王대에는 일본과의 외교에서 고구려의 天孫意識을 원용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의 후반기에는 고구려 계승국이라는 의미로서 고려국을 표방하였다. 康王대에도 고구려 계승의식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때에 강왕 자신이 스스로 이러한 의식을

44) 孫進己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드러난 것은 발해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주목된다. 그리고 872년에 일본에서 발해 사신을 접대하면서 고구려 계통의 사람을 내세웠다는 점을 볼 때에 마지막까지 고구려 계승의식이 지속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발해사의 고구려 계승성은 자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발해사는 한국사의 일부이다.

〈宋基豪〉

# 찾아보기

## ㄱ

가독부 可毒夫 155  
 〈가사훈묘지〉 〈賈師訓墓誌〉 77  
 간왕 簡王 → 대명충 大明忠  
 간의 諫議 153, 144  
 갈(개)복순 葛(蓋)福順 33, 102, 121  
 감 監 145, 154  
 감장 監長 189  
 《강계고》 《疆界考》 232  
 강사현 强師縣 79  
 《강역고》 《疆域考》 233, 235  
 강왕 康王 → 대송린 大嵩璘  
 개심사 開心寺 179  
 개심사절터 開心寺 절터 203, 205  
 개원례 開元禮 35  
 거란 契丹 2, 9, 24, 26, 27, 30, 37, 43, 72  
   ~84, 86~96, 111~114, 116, 118, 120~  
   123, 161, 167, 183, 192, 201, 226, 229, 231  
 《거란국지》 《契丹國志》 75, 111, 163, 222  
 거란군 契丹軍 2, 9, 24, 26, 75  
 거란도 契丹道 74, 79, 171, 172, 201  
 거란 부족 契丹 部族 72  
 거란 사신 契丹 使臣 76  
 거란 여당 契丹 餘黨 27, 28  
 거란인(사람) 契丹人 7, 41, 83, 84, 93  
 거란족 契丹族 2, 20, 23, 28, 29, 31, 40  
 건흥 建興 63, 140  
 걸걸중상 乞乞仲象 2, 24, 25, 28, 115,  
   232  
 걸사비우 乞四比羽 2, 24~26, 28, 44,  
   49, 159, 232

걸사비우집단 乞四比羽集團 2, 24, 27,  
   28, 30, 49  
 검모잠 劍牟岑 13  
 격구 擊球 162  
 경 卿 143, 145, 153, 154  
 경교 景敎 185, 186  
 경덕왕 景德王 129  
 경방창 景方昶 240  
 경주 慶州 200  
 계루군왕 桂婁郡王 138  
 계부 計部 143, 153  
 고경수 高景秀 67, 193  
 고구려계 高句麗系 6, 7, 43, 44, 48, 49,  
   51, 52, 55, 109, 161, 183, 228, 241, 244,  
   245  
 고구려 계승국(가) 高句麗 繼承國(家)  
   43, 44, 50, 53, 54, 56, 229, 232, 244  
 고구려 계승의식 高句麗 繼承意識 51,  
   62, 63, 245, 246  
 고구려고토 회복의식 高句麗故土 回復  
   意識 233, 235  
 고구려 금동판 高句麗 金銅板 178  
 고구려 부흥운동 高句麗 復興運動 14  
 고구려식 高句麗式 185, 201  
 고구려 영토 高句麗 領土 101, 102, 109,  
   119, 231, 233  
 고구려유민 高句麗遺民 1, 2, 13, 16, 19  
   ~21, 23~26, 30, 48, 53, 56, 114, 159, 232  
 고구려인 高句麗人 6, 13~16, 23, 31,  
   44, 45, 48, 49, 51, 52, 56, 157, 159, 160,  
   229, 232  
 고구수 高仇須 26  
 고길덕 高吉德 91, 93  
 고남신 高南申 36, 37, 128, 131



- 고내궁 高內弓 225  
 고다불 高多佛 80  
 고덕무 高德武 25  
 고려 高麗 6, 9, 42, 43, 56, 71, 75, 76, 81, 82, 88~93, 95, 96, 112, 179, 183, 225, 228, 229, 233, 234, 239  
 고려구장 高麗舊將 49, 54  
 고려국왕 高麗國王 49  
 《고려도경》《高麗圖經》 230  
 고려별종 高麗別種 45, 46, 49, 51  
 《고려사》《高麗史》 41, 82, 83, 90, 91, 95, 112  
 고려사 高麗使 49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95  
 고려왕 高麗王 7  
 고려인 高麗人 7, 50, 52, 230  
 고려 후국 高麗後國 239  
 고문 高文 26  
 고문간 高文簡 14  
 고문신 高文信 191  
 고보(상)영 高寶(賞)英 186  
 고선지 高仙芝 13  
 고수해 高壽海 187  
 고씨 高氏 42, 43, 45, 50, 63, 85, 156, 183  
 고영창 高永昌 9, 45, 94~96  
 고예진 高禮進 169, 181  
 고욕 古欲 95, 96  
 고원고 高元固 67, 128, 187, 191  
 고원도 高元度 129  
 고인(의) 高仁(義) 30, 125, 191  
 고자 高慈 26  
 고정사 高正詞 87  
 고제덕 高齊德 120, 125  
 고진 高震 7, 53  
 고흥복 高興福 128, 131  
 공무역 公貿易 172  
 공부경 工部卿 81  
 과의도위 果毅都尉 151, 152  
 곽원 郭元 90~92  
 관방무역 官方貿易 171  
 관야진도 菅野眞道 63  
 관영무역 官營貿易 141  
 관원도진 菅原道眞 43, 194  
 관음상 觀音像 182  
 관음신앙 觀音信仰 182, 185  
 광주 廣州 169  
 교위 校尉 152  
 교유호리병 絞紬葫蘆瓶 168, 219  
 교통로 交通路 26, 74, 78, 149, 171, 199~201  
 구국 舊國 2, 5, 28, 36, 148, 177, 178, 180, 206  
 《구당서》《舊唐書》 18, 27, 46, 48, 49  
 《구당서》발해말갈전 《舊唐書》渤海靺鞨傳 17, 45, 117, 196, 240  
 구생관계 舅甥關係 39, 70  
 국서 國書 1, 7, 30~39, 49, 51, 61~63, 65, 70, 71, 125, 126, 191, 244  
 국인 國人 38, 107, 138, 156  
 국자감 國子監 186, 187, 189  
 권덕규 權惠奎 236  
 귀면와 鬼面瓦 202, 204, 220, 221  
 금 金 9, 39, 41, 52, 94, 152, 163, 183, 184, 196, 198, 212, 225, 226, 230, 242  
 금난진 金鸞殿 201  
 금동불상 金銅佛像 181  
 금동제 사리함 金銅製舍利函 181, 206  
 금동판 金銅板 185  
 《금사》《金史》 161  
 금어 金魚 163  
 금원 禁苑 148  
 《기년아람》《紀年兒覽》 232  
 기도위 騎都尉 66, 70  
 기둥밑 장식기와 柱礎裝飾瓦 202, 220~222  
 기마인물상 騎馬人物像 186, 224  
 기미주 羈縻州 2, 23  
 기(이)진몽 己(已)珍蒙 126, 224  
 기하 基下 155

김맹 金猛 90, 91  
 김사란 金思蘭 102, 112, 121, 122  
 김육불 金毓黻 84, 85, 191, 238  
 김윤문 金允文 122  
 김윤중 金允中 122, 124  
 김의충 金義忠 122  
 김정호 金正浩 234  
 김충신 金忠信 54, 102, 122  
 김택영 金澤榮 235

[ㄴ]

낙유 樂游 166  
 남경 南京 185, 203, 207  
 남경 남해부 南京 南海府 36, 146, 167, 173, 200  
 남북교섭 南北交涉 99, 108, 114  
 남북국 南北國 99~103, 107, 109~111, 113, 114, 234, 236  
 남북국사 南北國史 234  
 남북국시대 南北國時代 93, 100, 125, 232, 236, 237, 244  
 남북국시대론 南北國時代論 237  
 남북조 南北朝 236  
 남성자고성 南城子古城 200  
 남우위 南右衛 150, 154  
 남좌우위 南左右衛 150, 151  
 남좌위 南左衛 150, 154  
 남해부 南海府 36, 42, 165, 171  
 남호두고성 南湖頭古城 200  
 낭장 郎將 30, 125, 151  
 낭중 郎中 143, 144  
 내사 內史 144, 153  
 내웅 內雄 162, 225  
 내투 來投 92  
 노보고르데예브카(Novogordecka)산성 223  
 노비 奴婢 8, 85, 155, 158, 211  
 노상 老相 79  
 노성 廬城 10, 37, 165, 166

노하심유적 老河深遺蹟 210  
 녹색 綠色 163  
 농안 農安 79  
 능금원 綾錦院 168  
 능사 陵寺 179, 185, 208  
 니하 泥河 65, 235

[ㄷ]

다종족국가 多種族國家 5, 39  
 단결유적 團結遺蹟 202  
 달고 達姑 80  
 답추 踏鎚 163, 226  
 당군 唐軍 2, 3, 14, 21, 22, 25, 26, 29, 33  
 《당례》《唐禮》 162, 188  
 당항 党項 55, 78, 112  
 대간지 大簡之 212  
 대건황 大虔晃 9, 65, 179  
 대경한 大慶翰 91  
 대곡성 大谷城 104  
 대광현 大光顯 76, 82, 229  
 대내상 大內相 142, 144, 153  
 대농시 大農寺 145, 154, 165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 162, 188  
 대동강 大同江 3, 21, 33, 34, 64, 65, 103, 146, 227, 235  
 《대동장고》《大東掌攷》 232, 234  
 대령 大令 144, 145, 153, 154  
 대명충 大明忠 61~63, 140, 190  
 대무예 大武藝 1, 3, 4, 30~35, 49, 61, 65, 70, 71, 100~103, 116~118, 120, 121, 125, 126, 128, 137, 139, 155, 190  
 대문예 大門藝 3, 29, 32, 33, 102, 115, 117, 118, 121, 139, 141  
 대발해국 大渤海國 9, 83, 94, 95  
 대봉예 大封裔 69, 111  
 대성경 大誠慶 191  
 대성신 大誠愼 191  
 대성자고분 大城子古墳 211

- 대성자고성 大城子古城 181, 200, 203, 206
- 대소순 大昭順 191
- 대송린 大嵩璘 61, 62, 140, 151, 245
- 대심리 大審理 151
- 대씨 大氏 43, 45, 50, 63, 85~87, 155, 161
- 대씨발해 大氏渤海 87, 115
- 대아찬 大阿飡 100, 101
- 대야발 大野勃 8, 63, 138
- 대언의 大言義 62, 140, 179, 180, 190
- 대연림 大延琳 9, 45, 89~93, 95
- 대연정 大延定 90, 91, 93
- 대외사절단 對外使節團 4
- 대우모 大禹謨 191
- 대원유 大元瑜 62, 140
- 대원의 大元義 8, 38, 61, 156, 190
- 대원화상 179
- 대위해 大瑋瑨 69, 111
- 대의신 大義信 191
- 대이진 大彝震 8, 65~68, 140, 191
- 대인선 大謹讓 9, 69, 72, 73, 75, 111, 112, 128
- 대인수 大仁秀 4, 8, 14, 35, 36, 44, 61~65, 68, 69, 77, 109, 137, 138, 140, 146, 179, 190, 191, 205
- 대장군 大將軍 151, 154
- 대조영 大祚榮 2, 8, 24~30, 45, 49, 52, 55, 63, 90, 100~102, 115, 116, 137~139, 156, 172, 190, 199, 229, 232, 244
- 대조영집단 大祚榮集團 1, 2, 22~28, 39, 44, 48, 51
- 대주둔고분 大朱屯古墳 211
- 대준명 大俊明 187
- 대중정 大中正 144, 153
- 대창태 大昌泰 63, 151
- 대해맹유적 大海猛遺蹟 210
- 대현석 大玄錫 65, 68, 69, 137, 138, 151, 162
- 대화여 大華璵 38, 61, 81, 84, 85, 140, 148, 155, 156, 245
- 대흥무 大欽茂 4, 5, 8, 34~39, 49, 51, 61, 62, 64, 65, 69, 70, 77, 100, 103, 105, 107, 115, 126~129, 131, 137~140, 148, 156, 178, 179, 185, 188~190, 193, 201, 245
- 대흥 大興 38, 103, 107, 115, 126~129, 131, 140, 178
-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 大興寶曆孝感金輪聖法大王 5, 38, 156, 178, 189
- 도독 都督 35, 42, 149, 154, 159, 160
- 독주주 獨奏州 4, 35, 149, 200
- 돈화 敦化 2, 28, 51, 103, 166~169, 199, 203, 206, 207, 215, 216, 234
- 돈황문서 敦煌文書 56
- 돌궐 突厥 1~7, 14, 22~25, 29~33, 55, 56, 100~102, 115~121, 123, 192
- 동경 東京 5, 61, 148, 165, 177, 178, 180~182, 185, 200, 201, 203, 237
- 동경성 東京城 103, 146, 197, 199, 236, 241
- 동경 용원부 東京 龍原府 5, 38, 103, 107, 124, 137, 146, 148, 171
-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232
- 《동국사략》《東國史略》 231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239
- 《동국역대총목》《東國歷代總目》 231
- 《동국지리지》《東國地理誌》 231, 234
- 《동국통감》《東國通鑑》 231
- 《동국통감제강》《東國通鑑提綱》 231
- 동궁 東宮 138, 139
- 동궁제도 東宮制度 138
- 동단(란)국 東丹國 7, 9, 40, 55, 75, 86, 193
- 동대사 東大寺 49, 179, 224, 225
- 동모산 東牟山 2, 27, 28, 199, 234
- 《동문광고》《同文廣考》 231
- 《동사》《東事》 231
- 《동사》《東史》 232
- 《동사강목》《東史綱目》 231, 234

《동사보유》《東史補遺》 231  
 《동사세가》《東史世家》 233  
 《동사찬요》《東史纂要》 231  
 《동사회강》《東史會綱》 231, 234  
 동주 銅州 149  
 동청고분군 東淸古墳群 209, 241  
 동평군 東平郡 78  
 두씨 竇氏 85, 156  
 《두양잡편》《杜陽雜編》 219  
 등원서사 藤原緒嗣 65  
 등원중마려 藤原仲麻呂 104, 130  
 등주 登州 3, 31, 33, 53, 102, 103, 117,  
 118, 120, 121, 169, 172, 222

[口]

마노케 馬瑙檣 219  
 마도산 馬都山 33, 102, 121  
 마도산전투 馬都山戰鬪 121  
 마적달무덤 馬滴達無덤 210~222  
 마적달절터 馬滴達절터 203, 205  
 마적달탑 馬滴達塔 180, 206  
 마적달탑묘 馬滴達塔墓 205  
 막힐부 鄭頡府 165, 170  
 만부교사건 萬夫橋事件 76  
 말갈 靺鞨 8, 10, 20, 42~47, 50~52,  
 54, 102, 103, 115, 156, 157, 159, 183, 184,  
 210, 211, 217, 219, 229, 245  
 말갈계 靺鞨系 6, 7, 9, 44, 49, 51, 52,  
 54, 228, 229, 244, 245  
 말갈발해 靺鞨渤海 54, 229, 230  
 말갈부락 靺鞨部落 4, 18, 19, 30, 32,  
 34, 38, 42, 64, 160  
 말갈인 靺鞨人 158, 159, 170, 229, 232  
 말갈족 靺鞨族 1, 6~8, 15~20, 23, 24,  
 30, 31, 42~44, 46~52, 55, 71, 77, 159,  
 161, 167, 210, 229, 244  
 말갈집단 靺鞨集團 2  
 말갈 7부 靺鞨 七部 16, 17, 30  
 말라 襍囉 76

맥중 貉種 63  
 맥포 貉布 166  
 맹분위 猛賁衛 151  
 맹안 猛安 152  
 모극 謀克 152  
 모시몽 慕施蒙 126  
 모창록 慕昌祿 128  
 목단강 牧丹江 2, 25, 27~29, 51, 165,  
 202  
 목저주 木底州 37, 64, 77  
 목주 穆州 200  
 목홀 木笏 163  
 묘둔절터 廟屯절터 203  
 무관 武官 67, 104, 129, 131, 143, 166  
 무덤탑 無덤塔 180, 185  
 무상가한 無上可汗 23  
 무성자 無姓者 85  
 무왕 武王 → 대무예 大武藝  
 문관 文官 67, 104, 131, 132, 142  
 문왕 文王 → 대흙무 大欽茂  
 문적원 文籍院 4, 68, 145, 154, 189, 193  
 문적원소감 文籍院少監 68  
 문하성 門下省 142, 144  
 물길 勿吉 46  
 미타호 湄沱湖 64, 165  
 민간무역 民間貿易 171, 172

[ㅂ]

박은식 朴殷植 236  
 《발해강역고》《渤海疆域考》 234  
 발해계 거란인 渤海系 契丹人 83  
 발해계 여진인 渤海系 女眞人 83  
 《발해고》《渤海考》 234  
 발해 고분 渤海 古墳 206, 207  
 발해고토 회복의식 渤海故土 回復意識  
 233, 235  
 발해교방 渤海敎坊 163, 226  
 발해국왕 渤海國王 115, 138, 140  
 《발해국지장편》《渤海國志長編》 84, 85

- 발해군왕 渤海郡王 29, 115, 138, 140  
 발해군왕 흘한주도독 渤海郡王 忽汗州都督 115, 116  
 발해금 渤海琴 163, 226  
 발해말갈 渤海靺鞨 46, 54, 229  
 발해무 渤海舞 162, 163  
 발해 불교 渤海 佛教 178, 180, 183~185  
 발해 비상 渤海 碑像 70  
 발해 사신 渤海 使臣 7, 43, 50, 63, 65, 80, 87, 101, 107, 111, 114, 125, 127, 128, 162, 169, 180, 181, 186, 193, 194, 222, 225, 246  
 발해사 인식 渤海史 認識 228, 231~236, 240, 243  
 발해삼채 渤海三彩 168  
 발해 성터 渤海 城터 197, 201  
 발해 수도 渤海 首都 79, 81  
 발해 승려 渤海 僧侶 179, 183, 193  
 발해악 渤海樂 126, 162, 224, 225  
 발해 악기 渤海 樂器 226  
 발해유민 渤海遺民 9, 51, 56, 82~89, 92~96, 112, 183, 184, 196, 212, 226, 229  
 발해유예 渤海遺裔 83  
 발해의 도자기 渤海의 陶磁器 168  
 발해의 복식 渤海의 服飾 163, 214  
 발해의 불상 渤海의 佛像 182  
 발해의 수공업 渤海의 手工業 166  
 발해의 회화 渤海의 繪畫 212  
 발해인 渤海人 2, 6~10, 25, 27, 34, 40, 41, 43, 45, 50~53, 55, 56, 63, 66, 70, 76, 78, 81, 83~86, 95, 161~165, 168, 172, 177, 183, 184, 187, 191, 192, 212~223, 226, 245, 246  
 발해인 예(맥)족설 渤海人 濊(貊)族說 46  
 발해 절터 渤海 절터 180, 205  
 방해 螃蟹 170  
 배구 裴瑋 67, 193, 194  
 배정 裴頴 67, 193~195  
 배현규 裴玄珪 26  
 백돌부 伯咄部 16, 18, 44  
 백산부 白山部 16~18, 30, 44, 46  
 백어 伯魚 106  
 번국 藩國 70, 71  
 번속국 藩屬國 141  
 법화신앙 法華信仰 182, 185  
 별장 別將 152  
 별종 別種 45~48  
 병조참군사 兵曹參軍事 152  
 보국대장군 輔國大將軍 126, 131  
 보덕국 報德國 21, 232  
 보력 寶曆 38, 103, 178  
 보로국 寶露國 80  
 보장왕 寶藏王 7, 14, 19, 20, 25, 53  
 부곡 部曲 8, 85, 155, 158, 211  
 부병제 府兵制 151, 152  
 부여 扶餘 1, 30, 46, 49  
 부여부 扶餘府 9, 74, 79, 81, 87, 165, 172  
 부여성 扶餘城 14, 16, 46, 75  
 부여의 사슴 扶餘의 사슴 170  
 부왕 副王 139, 155, 157  
 부유말갈 浮渝靺鞨 46  
 부주현제 府州縣制 4, 35, 36, 38, 42  
 부흥운동 復興運動 9, 13, 15, 85, 86, 88, 90~94, 96, 114  
 북국 北國 106  
 북대고분군 北大古墳群 167, 217, 220, 241  
 북대고분군 7호 무덤 北大古墳群 七號 무덤 218  
 북대고성 北大古城 199  
 북우위 北右衛 150, 154  
 북위 양식 北魏 樣式 182  
 북적 北狄 229  
 북좌우위 北左右衛 150, 151  
 북좌위 北左衛 150, 154  
 불교 佛教 5, 38, 177~179, 184, 188, 211  
 불열부 拂涅部 4, 16~18, 30, 34, 44, 47

《불정존승다라니경》의 발문 《佛頂尊勝陀  
羅尼經》의 跋文 180  
미상형 오존상 碑像形 五尊像 182  
미위 巖衛 151  
빈공과 賓貢科 66, 67, 70, 75, 111, 187,  
245

[스]

사리탑 舍利塔 180, 185, 206  
사무역 私貿易 172  
〈사불허북국거상표〉〈謝不許北國居上表〉  
54, 69, 100, 110  
사빈시 司賓寺 4, 145, 154  
사빈시 소령 司賓寺 少令 68  
사선시 司膳寺 145, 154  
사은사 謝恩使 92, 103, 122  
사장시 司藏寺 145, 154, 165  
사정 司正 144  
사정 司政 81  
사천왕상 四天王像 181, 206, 224  
산성 山城 198, 201  
살기성 薩其城 200  
살다라 薩多羅 165, 179  
《삼국사기》《三國史記》 18, 47, 54, 99,  
106, 108, 122, 125, 229, 230  
《삼국유사》《三國遺事》 54, 229, 230  
《삼국지》《三國志》 162, 188  
삼릉둔고분군 三陵屯古墳群 208  
삼릉둔 2호묘 三陵屯 二號墓 212,  
214, 241  
삼릉둔 1호묘 三陵屯 一號墓 210,  
211, 216  
3성 三省 4, 71  
3성 6부(제) 三省 六部(制) 4, 141, 142  
《삼십육국춘추》《三十六國春秋》 162,  
188  
상경 上京 5, 9, 37, 38, 61, 165, 178, 180~  
182, 185, 201, 203, 208, 210  
상경성 上京城 66, 148, 163, 166, 171,

183, 186, 198, 199, 201~203, 206, 215~  
218, 220~222, 224, 241  
상경성 9호 절터 上京城 九號 절터 204  
상경성 2호 절터 上京城 二號 절터(南大  
廟) 204, 215  
상경성 1호 절터 上京城 一號 절터 204  
상경성 제1궁전지 上京城 第一宮殿址  
216  
상경성 토대자 上京城 土台子 181  
상경 용천부 上京 龍泉府 5, 85, 86, 88,  
107, 137, 146, 148, 166, 167, 168, 171  
상서성 尙書省 142  
상시 常侍 145  
생여진 生女眞 40, 82, 89  
샤머니즘 185, 186  
샤이가(Shaiga)성터 242  
서경 西京 182, 206  
서경 압록부 西京 鴨綠府 51, 88, 146,  
171, 173  
서고성 西古城 117, 198, 199, 201, 203,  
204, 206, 207, 220, 221, 241  
서고성자 西古城子 36, 146  
서귀도 徐歸道 37  
서눌 徐訥 90, 91  
서상우 徐相雨 234  
서성 庶姓 85  
서요덕 胥要德 35, 126  
서인 徐寅 80, 192  
석관봉토묘 石棺封土墓 164  
석광(곽)묘 石壙(郭)墓 164, 209, 210  
석광봉토묘 石壙封土墓 164  
석등 石燈 171, 197, 202, 204, 215  
석사자상 石獅子像 215, 216  
석산사 石山寺 180  
석실묘 石室墓 209, 210  
석실봉토묘 石室封土墓 7, 51, 164,  
207, 209, 210  
석실분 石室墳 7  
석인정 釋仁貞 67, 179, 193, 194, 195  
석정소 釋貞素 179, 193~195

- 석호고성 石湖古城 199  
 선교성 宣敎省 71  
 선부 膳部 143, 153  
 선왕 宣王 → 대인수 大仁秀  
 선조성 宣詔省 4, 71, 142, 144, 153  
 설눌 薛訥 26  
 성덕왕 聖德王 54  
 성무천황 聖武天皇 125, 224  
 성산자산성 城山子山城 28, 198, 199, 201  
 성씨 姓氏 81, 84, 85, 155, 245  
 성왕 成王 → 대화여 大華璵  
 《성호사설》《星湖僊說》 231  
 세백포 細白布 167  
 세포 細布 167  
 소감 少監 145, 154  
 소경 少卿 143, 145  
 소고구려(국) 小高句麗(國) 14, 130, 137  
 소령 少令 144, 145, 153, 154  
 소밀성 蘇密城 200  
 소성황후 유씨 昭聖皇后 劉氏 184  
 소야전수 小野田守 104, 127~129, 131  
 소장 少將 151  
 소정 少正 144, 153  
 속말말갈 粟末靺鞨 46, 49, 54  
 속말말갈계 粟末靺鞨系 55  
 속말말갈족 粟末靺鞨族 45, 244  
 속말부 粟末部 16, 17, 30, 44, 46  
 《속일본기》《續日本紀》 30, 43, 49, 63, 125, 127, 172, 241  
 속주 涑州 35, 149, 165, 200  
 손만영 孫萬榮 24  
 솔빈부 率賓府 165, 170, 200  
 송 宋 51, 88, 92, 93, 225, 226  
 《송막기문》《松漠紀聞》 85, 155, 161, 164, 170, 177  
 《송사》《宋史》 88  
 송사 送使 127  
 송화강 松花江 4, 16, 17, 25, 31, 35, 38, 146, 165, 227  
 수경사 垂慶寺 184  
 수령 首領 4, 8, 42, 43, 71, 80, 149, 151, 152, 158~160  
 수령제(도) 首領制(度) 141, 149  
 수부 水部 144, 153  
 《수서》《隋書》 46, 47  
 숙신고성 肅愼古城 200  
 숙여진 熟女眞 40, 82  
 숙위 宿衛 54, 102, 115, 122, 123, 151, 152, 186~188  
 순인천황 淳仁天皇 106, 128, 129, 131  
 승정 崇正 106  
 승 丞 145, 154  
 시중 侍中 144, 153  
 신경준 申景濬 232, 233  
 《신당서》《新唐書》 46, 48, 49, 64, 139, 163, 165, 235  
 《신당서》발해전 《新唐書》渤海傳 8, 28, 35, 36, 42, 45, 54, 65, 66, 68, 74, 137, 142, 150, 162, 163, 165, 171, 240  
 《신당서》지리지 《新唐書》地理志 36  
 《신라고기》《新羅古記》 54, 232  
 신라군 新羅軍 3, 21, 75  
 신라도 新羅道 99, 171, 201  
 신라 사신 新羅 使臣 107  
 신라인 新羅人 53, 54, 56, 93, 102, 110, 121, 228, 229, 245  
 신라정벌(토)계획 新羅征伐(討)計劃 106, 127~131  
 신문덕 辛文德 191  
 신부 信部 143, 153, 166  
 신성 新城 20, 25, 26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231  
 신채호 申采浩 236, 237  
 실위(족) 室韋(族) 22, 33, 55, 78, 112  
 실학자 實學者 239  
 15부 十五府 8, 36, 65, 138, 146, 148~151, 199, 234  
 10위(제) 十衛(制) 150~152, 154  
 12사 十二司 142, 153

【ㅇ】

아골타 阿骨打 41, 52, 94  
 아미타불신앙 阿彌陀佛信仰 185  
 아브리코스(Abrikos)절터 181, 186, 203,  
 205, 215, 221  
 아홀 牙笏 163  
 악사 樂師 162, 212, 213, 224, 226  
 안거골부 安車骨部 16, 18, 44  
 안녹산 安祿山 14  
 안녹산의 난 安祿山の亂 37, 77, 137  
 안동도독 安東都督 25  
 안동도독부 安東都督府 25  
 안동도호 安東都護 7, 26, 53  
 안동도호부 安東都護府 14, 19, 20, 25  
 ~27, 123  
 안사의 난 安史의亂 104, 105, 115, 128  
 ~130, 131, 138  
 안승 安勝 13  
 안원부 安遠府 64  
 안정복 安鼎福 69  
 알덕 謁德 191  
 압록부 鴨渚府 165  
 압말갈사 押鉢曷使 7, 50, 71  
 애장왕 哀莊王 108  
 야율배 耶律倍 81, 86  
 야율아보기 耶律阿保機 9, 72, 73, 86  
 야율우지 耶律羽之 7, 25, 55, 81, 86  
 야율합저 耶律轄底 72, 73  
 〈야청도의〉 〈夜聽擣衣〉 194, 196  
 약홀주 若忽州 35  
 약홀주도독 若忽州都督 35, 36, 68  
 양길복 楊吉福 7, 50, 71  
 양면적 인식 兩面的認識 228, 229  
 양성규 楊成規 67, 191, 193  
 양수 梁水 55  
 양승경 楊(楊)承慶 36, 37, 104, 128  
 양씨 楊氏 85, 156  
 양중원 楊中遠 219

양태사 楊泰師 67, 193~195  
 어아주 魚牙紬 167  
 어화원 御花園 202  
 여부구 茹富仇 71  
 여사 女師 162, 190  
 〈여지고〉 〈輿地考〉 232  
 여진 女眞 51, 78, 82, 86, 94, 161  
 여진부락 女眞部落 90  
 여진인(사람) 女眞人 6, 8, 40, 41, 43,  
 51, 52, 82, 83  
 《역대기년》 《歷代紀年》 231  
 《역대연표》 《歷代年表》 230  
 《연려실기술》 《燃藜室記述》 232  
 연파 燕頗 87  
 연해주 沿海州 146, 164, 168, 180, 181,  
 186, 197, 199, 202, 203, 205, 207, 220,  
 223, 224, 227, 237, 242  
 열만화 烈萬華 88  
 염주 鹽州 200  
 영광탑 靈光塔 180, 185, 206  
 영덕 永德 140  
 영평현승 永寧縣丞 36  
 영선 靈仙 179, 193  
 영승유적 永勝遺蹟 2, 5, 28, 29, 36, 198,  
 199, 201  
 영원장군 寧遠將軍 30, 125  
 영주 郢州 149  
 영주 營州 2, 22~28, 31, 44, 45, 52, 114,  
 172, 177  
 영주도 營州道 171, 200  
 영주도독 營州都督 115  
 영주도독부 營州都督府 23, 31, 120  
 영주지방 營州地方 1, 2, 13, 23~25  
 예부 禮部 143, 153  
 예부경 禮部卿 81  
 예(맥)족 濊(貊)族 46  
 5경 五京 8, 36, 65, 138, 146, 148~150,  
 199~201, 205, 234  
 5경제 五京制 4, 35, 36, 38  
 오공교 五孔橋 202



- 오광찬 烏光贊 67, 111, 187  
 《오대회요》《五代會要》 25, 26, 240  
 오도 五道 150  
 오동성 敖東城 28, 166, 199  
 오매리 절골유적 梧梅里 절골遺蹟 178, 185, 204, 206  
 오매리절터 梧梅里절터 203, 240  
 오봉루 五鳳樓 199  
 오소도 烏昭(昭)度 67, 111, 187  
 오씨 烏氏 85, 156  
 오씨발해 烏氏渤海 87  
 오효신 烏孝愼 191  
 옥주 沃州 165, 167  
 옥주의 면 沃州的 綿 168  
 은돌(시설) 溫突(施設) 163, 164, 202, 205  
 은정균 溫庭筠 67  
 온특혁부성 溫特赫部城 200  
 울야정권 兀惹政權 86, 87  
 와당 瓦當 177, 220  
 왕문구 王文矩 36  
 왕신복 王新福 128, 131, 179  
 왕씨 王氏 43, 85, 157  
 왕종우 王宗禹 66  
 왕현지 王玄志 37  
 왕효렴 王孝廉 62, 67, 180, 193, 194, 196  
 요 遼 6, 8, 25, 39, 41, 51, 55, 65, 77, 93, 95, 168, 169, 196, 198  
 요동 遼東 1, 8, 9, 13, 14, 19, 20, 25~28, 40, 41, 43~45, 51, 55, 56, 64, 76~78, 114, 130, 156, 183, 227, 234, 235  
 요동성 遼東城 20, 26, 55  
 요동지역 遼東地域 1, 8, 9, 13, 14, 19, 20, 25, 26, 28, 40, 43, 44, 51, 55, 77  
 《요사》《遼史》 64, 73, 78, 81, 112, 113, 162, 169  
 《요사》지리지 《遼史》地理志 234, 235  
 요양 遼陽 64, 77, 78, 86, 94, 146, 183, 184  
 요양 장씨 遼陽 張氏 51  
 용두산고분군 龍頭山古墳群 167, 207, 211  
 용주 龍州 165, 167, 200  
 용해절터 龍海절터 203, 205, 208  
 용흥강 龍興江 227  
 우맹분위 右猛賁衛 150, 151, 154  
 우비위 右羅衛 150, 154  
 우사 右司 142  
 우사정 右司政 142, 153  
 우상 右相 142, 144, 153  
 우성 右姓 43, 85, 156  
 우성망족 右姓望族 156  
 우웅위 右熊衛 150, 154  
 우6사 右六司 142, 153  
 우윤 右允 142, 153  
 우평장사 右平章事 144, 153  
 우후루변장도독 虞侯婁蕃長都督 71  
 운휘장군 雲麾將軍 126  
 웅악 왕씨 熊岳 王氏 51  
 웅위 熊衛 151  
 원산만 元山灣 1, 146  
 원성왕 元聖王 100, 106~109  
 원오리절터 元五里절터 181  
 원외랑 員外郎 143, 144  
 원인 圓仁 53, 110  
 월희말갈 越喜靺鞨 64  
 월희부 越喜部 4, 19, 31, 34, 44  
 위말갈설 僞靺鞨說 47  
 위성 位城 37, 165, 169, 198  
 위성현 位城縣 222  
 위준 韋俊 102, 121  
 유가사상 儒家思想 35, 162  
 유교 儒敎 5, 38, 144, 189  
 유득공 柳得恭 234, 236  
 유보준 劉寶俊 187  
 유주 幽州 25, 117, 120, 121  
 유즈노 우수리이스크(Iuzhno Ussuriisk)성 200  
 《유취국사》《類聚國史》 2, 27, 35, 42,

43, 45, 159, 160  
유학 儒學 38, 188~190  
유학생 留學生 3, 38, 110, 186, 225  
6부 六部 4, 5, 38, 71, 144, 166, 189  
6사 六司 142  
62주 六十二州 8, 36, 65, 38, 146, 149, 150, 199  
육정산고분군 六頂山古墳群 2, 7, 28, 51, 167, 207, 211, 217  
육정산 6호분 六頂山 六號墳 215, 216  
윤언이 尹彦頤 230  
용기 隆基 94, 95  
용부 戎部 143, 153  
은어 銀魚 163  
읍루 挹婁 46  
의부 義部 143, 153  
이거정 李居正 180, 187, 191  
이광록 李匡祿 91  
이동 李同 111  
이불병좌상 二佛並坐像 178, 182, 185  
이사도 李師道 109  
이승휴 李承休 230  
이씨 李氏 85, 155, 156, 182  
이원태 李元泰 107  
이익 李瀾 233  
이정기 李正己 24, 109, 170  
이종휘 李種徽 232, 233, 236  
이진충 李盡忠 23, 24, 27, 114  
이해고 李楷固 24~28, 101, 115  
이흥성 李興晟 67, 151, 193  
인부 仁部 143, 153, 165  
인안 仁安 30, 70, 101~103, 116~118, 120, 121, 125, 139  
1감 一監 142, 144, 153  
1국 一局 142, 142  
1대 一臺 142, 144, 153  
일만복 壹萬福 128  
일본도 日本道 124, 171, 201  
일본 사신 日本 使臣 42, 50, 104, 127

일부일처제 一夫一妻制 161  
일세일원 一世一元 140  
일연 一然 54, 230  
1원 一院 142, 144, 153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110

## 【즈】

자사 刺史 35, 42, 149, 154, 159, 160, 232  
《자치통감》《資治通鑑》 54, 240  
작부 爵部 143, 153  
장군 將軍 151, 154  
장도빈 張道斌 236  
장령부 長嶺府 86, 87, 172, 200  
장문휴 張文休 102, 117, 121  
장사 長史 102, 117, 152  
장성 長城 31, 65  
장수실 張秀實 78  
장씨 張氏 85, 156  
장안성 長安城 5, 146, 199, 201  
장자상속(제) 長子相續(制) 138, 139  
장호 張浩 183  
재웅 載雄 179, 183  
쟁장사건 爭長事件 69, 75, 111  
적국 狄國 229  
적산포 赤山浦 53  
적석묘 積石墓 210  
전륜성왕 轉輪聖王 5, 38, 178, 185  
전불 塿佛 184  
전불사유관음보살입상 塿佛思惟觀音菩薩立像 182  
전제왕권 專制王權 142  
전중시 殿中寺 144, 153, 166  
전축묘(분) 塿築墓(墳) 208, 209  
절충도위 折衝都尉 151  
절충부 折衝府 151, 152  
정당성 政堂省 4, 38, 68, 142, 153  
정당성좌윤 政堂省左允 68  
정력 正曆 140

- 정사 正司 143, 144  
 정안국 定安國 9, 51, 83, 87, 88, 232  
 정약용 丁若鏞 47, 233, 234, 238  
 정왕 定王 → 대원유 大元瑜  
 정의황후 이씨 貞懿皇后 李氏 184  
 정천(천정)군 井泉(泉井)郡 99, 171  
 정혜공주 貞惠公主 140, 189, 193, 217  
 〈정혜공주묘지〉 〈貞惠公主墓誌〉 70, 156, 193  
 정혜공주무덤 貞惠公主墓 51, 207, 210, 216, 240  
 정효공주 貞孝公主 140, 189, 193, 217  
 〈정효공주묘지〉 〈貞孝公主墓誌〉 70, 156, 190  
 정효공주무덤 貞孝公主墓 163, 164, 168, 178, 205~207, 210~212, 214, 222, 224, 226, 241  
 정효공주 무덤탑 貞孝公主 무덤탑 180, 185, 206  
 《제왕운기》《帝王韻紀》 230  
 조고사인 詔誥舍人 71, 144, 153  
 조공(외교) 朝貢(外交) 34, 74, 104, 114, 117, 141, 170, 245  
 조공도 朝貢道 171, 200  
 조공사 朝貢使 2, 21, 31, 110, 139, 188  
 조공품 朝貢品 167  
 조문사 弔問使 49  
 조문휴 趙文休 70, 182  
 조방제 條坊制 148  
 조승덕 趙崇德 183  
 조정걸 曹廷杰 240  
 조하주 朝霞紬 167  
 조효명 趙孝明 187  
 《졸고천백》《拙藁千百》 230  
 종속시 宗屬寺 145, 154  
 좌맹분위 左猛賁衛 150, 154  
 좌비위 左罷衛 150, 154  
 좌사 左司 142  
 좌사정 左司政 142, 153  
 좌상 左相 142, 144, 153  
 좌상시 左常侍 144, 153  
 좌우과외도위 左右果毅都尉 151  
 좌우맹분위 左右猛賁衛 150  
 좌우비위 左右罷衛 150  
 좌우웅위 左右熊衛 150  
 좌우위 左右衛 151  
 좌우위장군 左右衛將軍 151  
 좌옹위 左熊衛 68, 150, 151, 154  
 좌6사 左六司 142, 153  
 좌윤 左允 142, 153  
 좌평장사 左平章事 144, 153  
 좌효위대장군 左驍衛大將軍 140  
 주 綱 167  
 주 紬 167  
 주승조 朱承朝 187  
 주원백 周元伯 67, 193, 194  
 주자감 胄子監 5, 38, 145, 154, 161, 189  
 주작 朱雀 140  
 주작대로 朱雀大路 148  
 주현민 州縣民 40, 41  
 주현제 州縣制 7, 8, 42  
 중경 中京 5, 38, 148, 165, 177, 178, 180, 185, 203, 204, 222  
 중경 현덕부 中京 顯德府 5, 36, 137, 146, 148, 169  
 중대성 中臺省 4, 71, 142, 144, 153, 192  
 중대성첩 中臺省牒 68  
 중서성 中書省 142, 144  
 중정대 中正臺 4, 144  
 중흥 中興 62, 140  
 지리고증 地理考證 234, 235, 240, 241, 243  
 지방정권 地方政權 70, 140, 141, 244  
 지부 智部 143, 153, 166  
 지사 支司 143, 144  
 직계적자계승 直系嫡子繼承 156  
 진국 辰國 115  
 진국공 震國公 24, 28, 115  
 진국왕 震(振)國王 28  
 《진서》《晉書》 162, 188

【ㄸ】

참군 參軍 66, 70  
 창부 倉部 143, 153  
 창혼 搶婚 161  
 채충순 蔡忠順 90  
 책봉 冊封 29, 30, 35, 92, 107, 108, 115,  
 116, 120, 138~141, 186, 245  
 《책부원구》《冊府元龜》 240  
 책성부 柵城府 99, 165  
 천도 遷都 5, 36~38, 62, 148, 201  
 천문군 天門軍 66  
 천문령 天門嶺 2, 25, 102, 115  
 천문령 전투 天門嶺戰鬥 2, 25~28  
 천손 天孫 39, 70, 245  
 철리국인 鐵利國人 172  
 철리부 鐵利府 42  
 철리부 鐵利部 4, 19, 31, 34, 38, 44, 169  
 철리부인 鐵利部人 34  
 철주 鐵州 169, 222  
 청안전사 淸安禪寺 184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232  
 청해토성 靑海土城 198, 200  
 촌장 村長 7, 42, 152, 159, 160  
 최사위 崔士威 90, 91  
 최언위 崔彦擄 111  
 최오사 崔烏斯 87  
 최치원 崔致遠 54, 69, 100~111, 228,  
 232  
 최흔 崔忻 29  
 추석 秋夕 53, 110  
 축성(사업) 築城(事業) 101, 116  
 〈춘일대우득정자〉〈春日對雨得情字〉  
 194, 196  
 출우국 出羽國 125, 126, 172  
 충부 忠部 142, 144, 153  
 치미 鷗尾 202, 204, 220, 221  
 칠공교 七孔橋 202  
 7시 七寺 142, 144, 153

【ㄷ】

코르사코브카(Korsakovka)절터 220  
 코프이토(Kopyto)절터 203, 205, 242  
 크라스키노(Kraskino)성(터) 199, 200,  
 202, 205, 223  
 크라스키노(Kraskino)절터 206

【ㄹ】

타구 打球 162  
 태백산 太白山 170  
 태봉 泰封 72  
 태상시 太常寺 145, 154, 162, 224  
 태시 太始 62, 140  
 태정관 太政官 192  
 태학 太學 162, 187  
 토갱봉토묘 土坑封土墓 164  
 토광묘 土墳墓 7, 51, 210  
 토둔 吐屯 22, 32, 117  
 토번 吐蕃 19, 78, 112  
 토성자고성 土城子古城 200  
 토인 土人 7, 8, 42~45, 51, 52, 159  
 토호포 吐號浦 36  
 《통전》《通典》 54  
 투화 投化 82

【ㅍ】

팔련성(반남성) 八連城(半拉城) 38, 146,  
 148, 198, 199, 201, 206, 216, 217, 220, 241  
 팔련성 제2절터 八連城 第二절터 186  
 팔련성 제1절터 八連城 第一절터 180,  
 206  
 팔보유리정 八寶琉璃井 201  
 8위(제) 八衛(制) 151, 152  
 패강 溲江 103, 122, 123  
 편호 編戶 157  
 평양 平壤 1, 13, 14, 18, 21, 31, 34, 48, 123

평양성 平壤城 13, 232  
 평지성 平地城 5, 28, 198, 201  
 《포은집》《圃隱集》 230

## 【ㅎ】

하남둔고분 河南屯古墳 211, 215, 240  
 하남둔고성 河南屯古城 208  
 하슬라도 何瑟羅道 31, 116, 119  
 하씨 賀氏 156  
 하정사 賀正使 69, 122, 187, 188  
 하정표 賀正表 192  
 하주 賀州 200  
 하행미 夏行美 89  
 한백겸 韓百謙 231, 233  
 한법 漢法 6, 41  
 한산주 漢山州 31  
 한진서 韓鎭書 233, 234  
 한치윤 韓致綸 233, 234  
 함화 咸和 66, 70, 140, 168, 182, 219  
 함달령 哈達嶺 25  
 함좌기관 合坐機關 142  
 항백국 巷伯局 145, 154, 189  
 해(족) 奚(族) 2, 24, 29, 31, 37, 75, 77,  
 111~113, 116, 120  
 해국 奚國 75, 111, 112  
 해동성국 海東盛國 9, 65, 66, 69, 138,  
 187, 190  
 《해동역사》《海東繹史》 233  
 《해동역사속》《海東繹史續》 233~235  
 해초경 解楚卿 187  
 행목저주자사 行木底州刺史 36, 37,  
 68  
 행정당성좌윤 行政堂省左允 131  
 허국공 許國公 24, 66, 70, 71  
 헌덕왕 憲德王 64, 100, 106, 108~110  
 현금 玄琴 163  
 현도주 玄菟州 37, 64, 77  
 현도주자사 玄菟州刺史 36, 37, 68  
 현주 顯州 36, 165~167

현주의 포 顯州의 布 37, 167  
 《협계태씨족보》《陝溪太氏族譜》 239  
 혜미압승 惠美押勝 104, 106, 130, 131  
 호실부 號室部 17, 18, 30, 44  
 호주 湖州 200  
 혼춘 琿春 38, 103, 107, 146, 148, 199,  
 200, 202  
 홀한성 忽汗城 79, 85~87, 112  
 홀한주 忽汗州 232  
 홀한주도독 忽汗州都督 29, 140  
 홍법대사 공해 弘法大師 空海 180  
 홍석주 洪奭周 233  
 홍호 洪皓 85, 155, 161  
 화룡 和龍 169, 215, 217, 218, 220  
 환관 宦官 145  
 환도 丸都 166  
 황상 皇上 39, 70, 140  
 황제국 皇帝國 9, 70, 71, 245  
 회골 回鶻 78, 112  
 회원부 懷遠府 64  
 효겸천왕 孝謙天皇 106, 131  
 후고구려(태봉) 後高句麗(泰封) 75  
 후당 後唐 72, 74, 87, 112, 113, 167  
 후량 後梁 72, 74, 112, 113  
 후발해 後渤海 83, 86~88  
 후백제 後百濟 72, 75  
 후삼국 後三國 69, 72, 74, 76, 112, 113,  
 229  
 후주 後周 87  
 후진 後晉 229  
 흑수 黑水 80  
 흑수국 黑水國 80  
 흑수말갈 黑水靺鞨 3, 20, 22, 31~33,  
 48, 64, 82, 102, 103, 116~118, 123, 167  
 흑수부 黑水府 3, 19, 31  
 흑수부 黑水部 17~19, 30, 32, 34, 44, 46  
 흑수주 黑水州 102, 117  
 흥룡사 興隆寺 181, 204  
 흥요국 興遼國 9, 83, 88~96  
 희왕 僖王 → 대언의 大言義

## 집필자

개요 .....	노태돈
----------	-----

### I. 발해의 성립과 발전

1. 발해의 건국 .....	노태돈
2. 발해의 발전 .....	노태돈
3. 발해국의 주민구성 .....	노태돈

### II. 발해의 변천

1. 발해의 융성 .....	송기호
2. 발해의 쇠퇴와 멸망 .....	송기호
3. 발해유민의 부흥운동 .....	한규철

### III. 발해의 대외관계

1. 신라와의 관계 .....	한규철
2. 당과의 관계 .....	한규철
3. 일본과의 관계 .....	한규철

### IV.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1. 중앙통치조직 .....	한규철
2. 지방·군사제도 .....	한규철
3. 사회·경제구조 .....	임상선

## V.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1. 불교와 기타 신앙 ..... 송기호
2. 유학과 한문학 ..... 송기호
3. 예 술 ..... 송기호
4. 발해사 인식의 변천 ..... 송기호

# 한 국 사

10

## 발 해

---

1996년 12월 26일	인쇄	정부간행물심의필
1996년 12월 30일	발행	( No. 96-12-6-10 )

발 행 국 사 편 찬 위 원 회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전화 02-500-8286

인 쇄 탐 구 당 문 화 사  
서울 용산구 서계동 260-1  
전화 02-730-8670

---